

2025
우수에세이 공모전
수상작품집

마음이 문장이 될 때



조선대학교
교무처 글쓰기센터

마음이 문장이 될 때

조선대학교
교무처 글쓰기센터

2025 우수에세이 공모전

본심 심사평

2025 우수에세이 공모전은 2025년 5월 26일(월)부터 11월 10일(월)까지 6개월여 동안 응모작을 받았습니다. 총 466명이 응모하였고, 예심을 거쳐 354명(자기서사 에세이 275명, 학술 에세이 57명)을 본심에서 심사했습니다. 본심은 글쓰기 센터 운영위원 네 분과 본교에서 글쓰기 관련 과목을 강의 중인 네 분이 각각 약 50 작품씩 맡아서 심사했습니다. 본심에서는 이렇게 8명의 심사위원이 우수작 5편씩을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40편을 대상으로, 이후에 진행된 최종심 심사위원들이 수상작을 뽑았습니다.

본심 심사위원들은 작품을 읽으며 행복했고, 예년보다 잘 쓴 에세이가 여러 편 발견되어 놀랐다는 심사위원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응모자 가운데 문창과 학생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그것도 아니어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런 글 솜씨 향상은 우리 대학 학생들이 글쓰기에 관심을 갖고 지내면서 열심히 쓴 덕분이겠지만, A·I의 조력도 한몫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부 응모작은 A·I의 도움을 받은 흔적이 너무 짙게 배어 있어 아쉬웠습니다.

글을 쓰면서 A·I의 도움을 받는 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쓸 때 A·I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한편으로 그 후유증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글을 쓸 때 A·I를 지나치게 의존하며 지내게 되면, 차츰 스스로 글쓰는 행위를 어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 반복 학습을 하지 않으면 애써 익혀놓은 역량 퇴화를 막을 수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의 주제 선정부터 초고 쓰기까지는 스스로 수행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A·I는 초고를 마친 후에 고쳐 쓸 때 도움받는 차원에서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글쓰기는 의사소통을 위한 행위일 뿐만 아니고, 사고력을 기르게도 합니다. A·I에 과의존하며 글을 쓰면 사고력을 기를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주제 선정부터 초고 쓰기까지는 스스로 완성해야 이유입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에세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공모했습니다. 자기서사 에세이와 학술 에세이로 나누어 공모했고, 응모글에 대한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자기서사 에세이는 ‘자신의 성장 과정이나 사회적 경험에 대한 성찰을 담은 글’이고, 학술 에세이는 ‘사회적·학술적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전개한 글’이라는 점을 이 행사 홍보 문건과 포스터에 공지했습니다.

본심에서는 두 유형 공히 표현의 적확성을 살폈고, 자기서사 에세이의 경우에는 글의 진정성과 독창성을, 학술 에세이의 경우에는 논리의 타당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주안점 삼아 심사했습니다. 청소년기에 팬데믹을 겪은 세대의 글이어서인지 우울한 정조를 띠거나, 사회 부적응을 그린 글이 많았습니다. 문학의 본령이 인간 존재의 심연을 탐구하는 데 있음을 떠올리며 읽다 보면 공감과 감동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응모자가 처한 현실이 염려되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울러 개인적 경험이 예술적 형상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낯두리 차원에 머문 글들이 많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글쓰기 과정이 응모자에게 상처를 치유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본 행사의 의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글쓰기는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전망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사고력을 배양하는 데도 이롭습니다. 자기서사 에세이와 학술 에세이 쓰기는 이런 글쓰기의 효용성을 발휘하게 하리라 믿습니다. 우수에세이 공모전이 오랫동안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심사평을 마칩니다.

2025년 11월 20일

본심 심사위원 김영학

2025 우수에세이 공모전

최종심 심사평

자기서사 에세이는 자신이 경험한 삶의 사건들을 토대로 삼는 글쓰기이다. '경험'한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단순한 사건 나열에 그치지 않는다.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고 정리하여 재구성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새로운 눈으로 읽어낼 수 있게 된다. 자기 자신을 다시 읽어내는 일, '변화'된 현재의 '나'를 이해하는 이 작업은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는 힘을 준다. 경험이 삶의 통찰로 확장되는 과정, 이것이야말로 자기서사 에세이가 가진 가치이고 의미이다.

자기서사 에세이 공모전은 그런 자기 발견의 순간들을 함께 읽고 나누는 자리이다.

대상을 받은 최혜인 학생의 <사랑의 무게>는 자기서사 에세이가 지향하는 '경험의 의미화'와 '성찰의 확장'을 잘 구현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돌보는 일상적인 경험을 감정적 진술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랑과 책임의 관계, 타자에 대한 윤리, 돌봄이 주는 성장의 의미로까지 자연스럽게 확장해 낸 점이 돋보였다.

학술 에세이는 자신의 생각을 학문적 근거와 논리적 구조라는 '학문적 언어'로 전개하는 글쓰기이다. '나의 생각'을 '학문적 주장'으로 서술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학문적 태도를 배우며, 지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학술 에세이가 대학에서 핵심적인 글쓰기인 이유이기도 하다. 금상을 받은 김태훈 학생의 <진압인가, 침해인가: 시위현장의 공권력 문제>는 학술 에세이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요소를 잘 갖춘 작품이다. 무엇을 다룰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 서론-본론-결론의 잘 짜여진 논증적 구조, 여기에 다양한 근거를 기반으로 자신의 관점을 분명히 제시하여 학술 에세이로서 탄탄한 기본기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많은 좋은 작품들이 최종심에 올라왔다. 각자의 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반짝거리고 있어 수상작을 가리기 쉽지 않았다. 물론 작품 전반에서 느껴지는 아쉬운 점도 있다. 자기서사 에세이 경우, 개인적 경험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점이다. 개인의 경험에 그치면 '개인의 뉘두리'가 된다.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변화'가 읽혀지고 시대적 문제와 연결된 통찰이 된다. 학술 에세이의 경우 논증의 균형성이나 학술적 형식의 미흡 등이 눈에 들어 온다. 그러나 이는 모두 도달할 수 있는 목표지점들이다. 다음 회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글들은 한층 성장하고 탄탄해질 것이다.

수상작은 물론이요, 아쉽게 수상권에 들지 못한 이들에게도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낸다. 한층 더 성장해 돌아올 그대들을 우리는 또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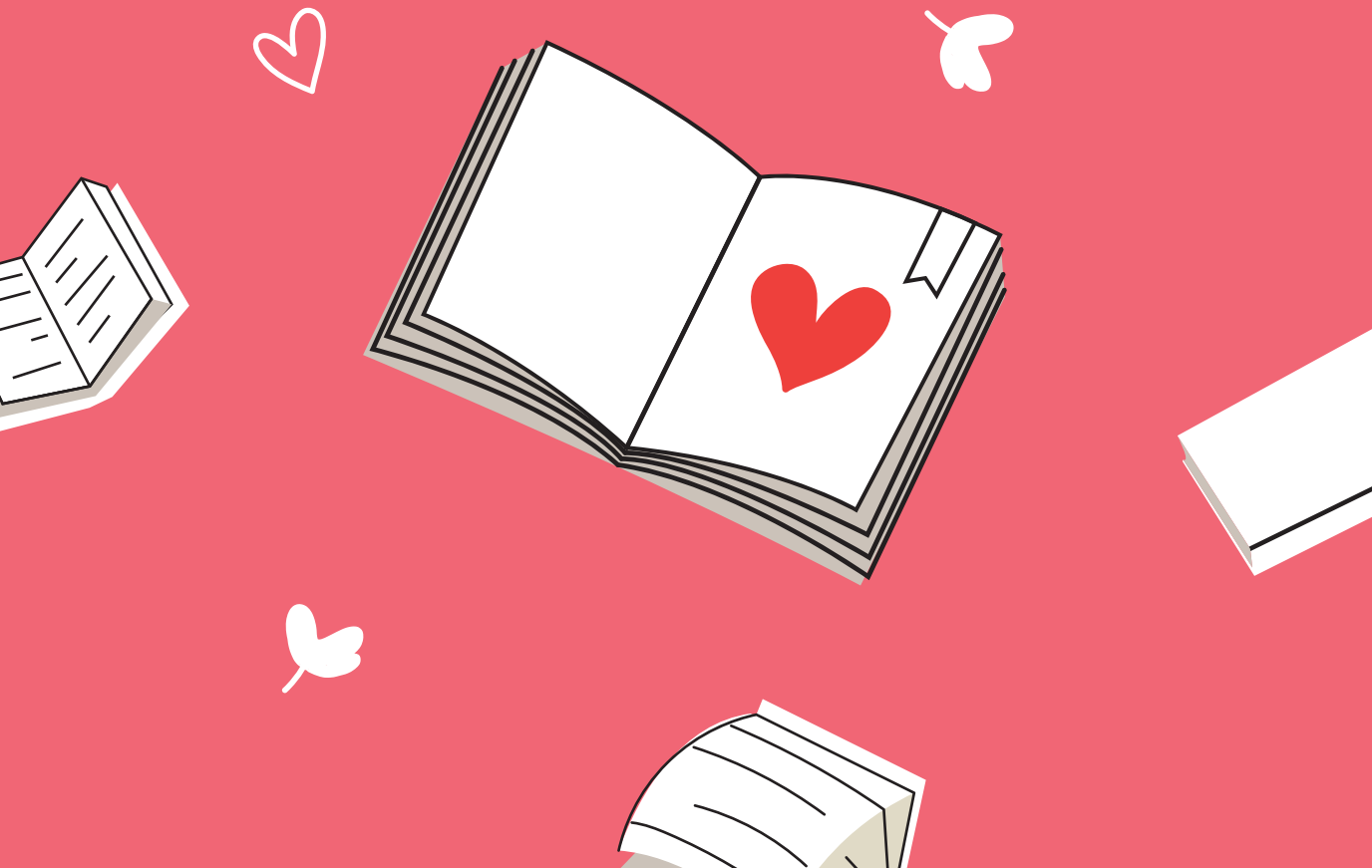
2025 우수에세이 공모전 최종심 결과

수상명	이름	제목	페이지
대상	최혜인	사랑의 무게	11
금상	김혜원	시간의 가격표를 떼다.	17
	김태훈	진압인가, 침해인가 : 시위 현장의 공권력 문제	20
	박채영	가을의 국화도, 나의 꽃이라서	27
	이서연	스스로 연 문	32
	정우석	무뚝뚝한 K-장남	35
은상	강민우	노란봉투법 노동권과 기업 자유의 균형점을 찾아서	39
	도시	나는 가끔 쓰러지지만 무너지지는 않는 사람	45
	김민아	우리의 영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48
	방시은	뒤바뀐 나의 진로	50
	백나라	아빠의 트랙	52
	옥지우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55
	주대규	삶의 멈춤, 그리고 찾은 나의 길	57
동상	국예슬	멈춤의 1년 반, 나를 만드는 시간	61
	김규리	나의 기분조절자, 제과제빵	63
	김도연	어른이 된다는 건	66
	김민영	변하지 않을 마음	69
	김윤성	바퀴 궤적의 끝에서 발견한 새로운 시작	72
	러블린	이방인으로 살아가기	74
	민금홍	가족의 사고를 통한 깨달음	78
	박수빈	무대 위, 나를 발견하다.	80
	신보아	낮선 땅에서 찾은 소중함	83
	우영	내 삶의 작은 스승 돈	87
	임효정	다시 시작할 용기가 불려온 새로운 성장	89
	장은서	롤모델	93
	장진영	그리움을 품고 살아가는 법	96
	조서현	목적지의 부재, 부유(浮遊)의 미학	99
	차민정	오늘을 살아낸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101
	최정민	일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 에버랜드	103
	최지원	사라진 이들과 남겨진 신발들	106
	하지원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무용 프로그램	108
	허세아	소산(消散)	113
	황지원	챗GPT, 단순 도구를 넘어 학습 파트너로...	116

2025 우수에세이 공모전

마음이 문장이 될 때

대상





사랑의 무게

최혜인

사랑을 하는 건 힘든 일이다. 그게 약한 존재라면 더더욱. 나에게는 두 마리의 동물이 있다. 모두 길에서 데려온 애들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는 목포로 봉사활동을 갔다. 동물을 좋아했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학교에서 지정해 준 봉사활동 장소 중에 유일하게 있는 고양이 보호소가 목포에 있었다. 막상 도착하니 일은 거의 시키지 않았다. 나는 고양이를 놀아주기만 하다가 일찍 보호소를 나왔다. 엄마에게 데리러 오라는 전화를 하고, 갈 곳이 없었던 나는 근처를 구경하기로 마음먹었다. 정처 없이 발을 옮기며 걷은 지 얼마 안 돼서 웬 고깃집 근처에 다다랐다. 그런데 가게 근처에 놓여있는 벤치 아래에서 인기척을 느껴졌다. 자세히 다가가 보니 개였다. 점박이 색깔의 성견은 몹시 더웠는지 혀를 쭉 빼고 헉헉했다. 내가 가까이 다가와서 쳐다보는데도 경계하지 않았다. 바로 옆엔 금빛 털을 가진 강아지 한 마리가 더 있었다. 마찬가지로 배를 땅바닥에 대고 완전히 엎드려서 미동도 없을 뿐, 경계하지 않았다.

때는 8월 중순이었고, 근처는 아스팔트 도로뿐이었기 때문에 날은 무척 더웠다. 도로에서는 아지랑이가 올라왔고, 보호소에서 준 아이스크림은 이미 물처럼 녹아 플라스틱 튜브 안에 담겨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점박이 개를 만져보았다. 달궈진 돌덩이를 만지는 것처럼 뜨거웠다. 점박이 개는 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시선이 향하는 곳을 보니 고깃집 입구였다. 그러고 보니 목줄도, 리드줄도 달려있다. 아마 식사를 하러 들어간 주인을 기다리는 모양이었다. 나는 이 폭염에 개를 두고 홀로 시원한 곳에 들어간 주인을 약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옆의 금빛 강아지를 안아 올렸다. 안아 올려서 보니 이미 젖은 땀 것 같았다. 이미 녹은 아이스크림 튜브는 더위를 식혀주기 위해 배에 댔는데, 더위에 탈진해서 그런 건지 안아 올릴 때부터 통 반응이 없었다.

그러다가 아저씨 한 명이 가게 밖으로 나왔고, 나에게 강아지를 데려갈 것이냐고 물었다. 들어보니 점박이 개가 어미인데, 출산한 강아지 중 유일하게 이 녀석만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단다. 데려가고 싶으면 주겠다고 하셨다. 말했지만, 난 동물을 좋아한다. 그중에서도 개, 고양이를 특히 더. 그러므로 당연히 옳다구나! 하고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를 데리러 온 엄마는 키우게 해달라는 내 요구에 난처한 듯 고민하다가 결국 ok 사인을 날렸다. 나는 그대로 강아지를 데리고 차에 탔다. 그 전에 아저씨는 자기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고 키우기 힘들면 다시 연락해 달라고 했다. 땡벌에 개를 내버려둔 걸 보고 내심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걱정하는 걸 보니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리고 차 안에서 가족들에게 개를 키울 거라는 통보 비슷한 전화를 했다. 당시 모든 가족이 개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책임을 혼자서 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그러나 이후 목욕, 산책, 밥 주기, 병원 데려가기를 비롯한 모든 양육은 대부분 나 혼자서 하게 되었다. 그나마 작은 언니가 가장 많이 도와줬지만, 여전히 벅찼다. 아직 어려서 엄마랑 떨어지고 나서도 슬픈 내색도 없이 차 안에서 잠만 자던 강아지는 금세 기운을 차려 사고를 치기 시작했다. 자연히 그전까지 방구석에 박혀서 핸드폰이나 보던 내 일상은 많이 달라졌다. 매일 최소 한 번 이상 산책을 나갔고, 밥을 먹이고 밥그릇을 설거지했고, 똥을 치우고 병원에 데려갔다. 그러다가 같은 해에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났다. 눈이 휘몰아치던 겨울날에 다녔던 중학교 담뿍 앞에서 튀어나온 검은 고양이를. 비쩍 마른 고양이가 내 팔에 얼굴을 비비며 무릎 위에 올라온 순간, 집에 데려오겠다는 충동이 천둥이 번쩍이듯 나를 다시 내리찍었다. 그렇게 나는 무언가에 쫓긴 것처럼 또 동물을 집에 데려왔다. 전과는 달리 허락도 말지 않고 충동적으로 데려온 고양이였기 때문에 고양이는 온전히 내 고양이가 되었다. 부모님은 동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돈을 거의 주지 않으셨다. 나는 대부분의 비용을 내 용돈과 작은 언니의 도움으로 해결했다.

그렇게 기르면서 차차 깨달았던 것 같다. 동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돈과 노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말이다. 그 전의 나는 동물을 내게 옴으로써 행복을 가져다주는 어떤 매개체 정도로 생각했다. 한 마디로 동물을 동물 그대로 바라보지 않았다. 미디어에 나오는 꾸며진 어린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 늙고 병들고 사고 치는 모습은 잘 상상되지 않는다. 그냥 힘들 때 애교를 부리고 위로해 주는 모습만 보이기 마련이고, 사람들도 그런 모습만 보고 싶어 한다. 그러나 동물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가치를 가진 생명이다. 항상 건강하고 귀여운 모습만을 보여주지 않는다. 동물은 삶의 모든 것을 제어한다. 내가 주로 책임져야 하는 동물이 있으면 여행도, 직장 선택도, 이사도 쉽지 않다. 무엇보다 항상 돌봄 노동에 시달려야 한다. 학교나 일이 끝나고 자신에게 쓸 시간을 나눠서 동물에게 써야 한다는 뜻이다. 지쳐도 똥을 치우고, 밥을 주고 물을 갈아야 한다. 그렇게 다 한다고 해도 늘 죄책감에 시달린다. 동물이 아프면 내 탓인 것 같고, 갑자기 사고를 당해도 내 탓인 것 같은, 내가 부족한 보호자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또 내가 동물을 기르면서 괴로운 것 중의 하나는 동물을 너무 사랑하게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너무 사랑하게 되어버린 나머지 동물이 나오는 콘텐츠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조회수를 얻기 위해서 동물에게 이상한 음식을 먹이는 영상이나, 지나친 개량으로 턱이 짧아져 혀가 들어가지 않는 말티즈를 보고 귀엽다고 하는 댓글, 스트레스를 주는 방식으로 동물을 양육하는 모든 콘텐츠가 더 이상 즐겁거나 재밌지 않다. 그전에는 귀엽다며 웃어넘겼을 미디어에 점점 불편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길거리에서 아픈 고양이나 학대당한 동물 얘기를 보면 우리 집에 있는 애들 생각에 우울하다.

이렇듯 동물을 키운다는 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괴롭고, 힘든 일에 가깝다. 그러므로 동물을 키우기로 할 때에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동물이 안겨주는 따스함보다는, 겪게 될 괴로움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내가 신중하지 않았기에 더욱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에게 돈이 없고, 쏟을 노력이 없다면 동물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내 개와 고양이는 내게 넘치는 사랑을 주었지만, 그 사랑의 무게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다.

2025 우수에세이 공모전

마음이 문장이 될 때

금상





시간의 가격표를 떼다.

김혜원

나는 대학에 입학한 이후로 용돈을 받은 적이 없다. 첫 학기 교재비를 제외한 모든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부모님 집에서 통학했기에 필요한 돈은 주로 교통비와 점심값 정도였지만, 점점 씀씀이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해졌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하는 게 재미있었다. 사회 경험도 쌓이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즐거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지쳐갔다. 공부와 일을 병행하다 보니 나는 늘 시간에 쫓겼고,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앞자리 숫자가 줄어든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졌고, 어느새 알바몬을 들여다보며 단기 알바를 찾는 나를 발견하곤 했다.

학비는 대부분 성적 장학금을 받았다. 8학기 동안의 학비가 6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부모님이 등록금을 내주시는 만큼 매 학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에 달하는 큰돈을 부모님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곧장 일하러 갔고, 손님이 없을 때마다 틈틈이 공부했다. 심지어 방학에는 주 7일 일하기도 했다. 쉬는 시간조차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노력이 지금의 나를 경제적 부담에서 조금은 자유롭게 만들어준 것 같다. 덕분에 지금은 하고 싶은 일을 전보다는 비용 걱정 없이 할 수 있다. 하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그때 아르바이트 대신, 동아리나 대외 활동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 질문은 아직도 마음 한편에 남아 있는 응어리다.

3학년이 되자, 나는 주 4회는 기본이고 많을 땐 일주일 내내 아르바이트했다. 그 와중에도 4점 초반대의 학점을 받으면서 토익, 자격증 준비를 동시에 해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일정을 견뎌냈는지 신기할 정도다. 하지만 하고 싶은 것은 모두 해봐야 했기에 무리하게 버텼다.

결국 1년 만에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졌다. 번아웃이 온 것이다. 더 이상 나아가기가 버거워서 결국 나는 한 학기를 휴학하기로 했다. 휴학하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복싱을 배우고 관심 있던 자격증을 취득하며 몸과 마음을 회복했다.

그렇게 나는 ‘열심히’라는 이름으로 하루를 뻘뻘하게 채워 넣던 지난날을 돌아보았다. 내 캘린더는 언제나 알록달록하게 꽉 차 있었고, 그 색깔들이 마치 내가 성실히 살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다. 그 후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아르바이트의 비중을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배우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나는 쉽고 확실한 일만 하려 했다. 조금이라도 낯설거나 어려운 일은 피했다. 하지만 불편함 속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복학 후, 나는 주말 아침에만 일하는 걸로 근무 시간을 줄였다. 대신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다양한 대외 활동에 지원했다. 나는 비로소 ‘돈’이 아닌 ‘나’를 중심에 두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 도전하듯 꽃히는 한마디를 들었다.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르바이트할 시간에 토익 공부를 해라. 그럼, 너의 연봉이 오를 것이다.” 처음엔 불쾌했다. ‘아르바이트를 안 하면 교통비나 식비는 어쩌라는 거지?’ 각자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처럼 들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해온 거지?’ 뭉뚱가 뜨거워졌다. 마치 누군가에게 지금까지의 내 선택과 행동이 틀렸다고 지적받은 기분이었다. 왜 나는 그토록 최저시급에 연연해 왔을까.

일주일을 넘게 고민한 끝에 나는 결국 카페 점장님께 그만두겠다고 했다. 걱정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그 후에는 아르바이트 대신 대외 활동과 교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시험 기간에는 오로지 공부에 집중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처음으로 4.5라는 학점을 받아 과 수석이 되었고 지원했던 대외 활동 중 몇 곳으로부터 합격 문자를 받았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여섯, 일곱 자리 숫자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일이 어쩌면 나의 가능성을 더 분명하게 만드는 일임을.

시간이 흐를수록 통장 잔액은 서서히 바닥을 드러냈다. 나는 아직 4학년 1학기를 보내는 중인데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다시 돈에 허덕일 것을 생각하니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때 마침 근로 장학 신청 공고를 보게 되었다. 그만뒀던 아르바이트보다 근무 시간을 줄인다면 스펙 준비와 병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일을 시작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출근하면서 바쁜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 ‘지금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벌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어느새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최대로 출근 횟수를 늘렸다. 자기 계발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지 다시 그 익숙한 수렁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도착해서 쉬고 있던 중이었다. 엄마의 한마디가 내 귀를 스쳤다. 사춘이 암 4기 진단받았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 아이는 나와 같은 스물네 살이었기 때문이다. 일주일 동안 나는 검은 안개 속에서 헤매듯 멍하게 시간을 보냈다. 시간에 끝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끝이 이렇게 가까울 수도 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다가왔다. 그날 이후로

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내게 만약 남은 시간이 1년이라면?’ 나는 가장 먼저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것이다. 그동안 나는 자기 계발을 자격증이나 어학 공부 정도로만 좁게 정의해왔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스펙을 쌓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조종간을 잡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그 후 나는 늘렸던 출근 횟수를 줄였고, 예전 같았으면 시도하지 않았을 일에도 용기를 내어 도전하고 있다. 요즘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은 비행기 환승은 잘할 수 있을까, 소매치기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지레 겁먹고 늘 미뤘었다. 이제는 그 두려움을 딛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며 시야를 넓히고자 한다.

이제는 나의 시간을 나를 위해 쓰는 시간으로 채워가고 싶다. 당장의 수입보다는 나를 위한 시간 투자의 중요성을 잊지 않으려 한다. 지금 내 시간의 가치는 얼마일까? 언젠가 30대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서도 나의 이 24살의 시간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

돌아보면 나는 오랫동안 내 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하며 살아왔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그럴 때마다 자괴감이 들었다. 마치 나의 시간에 싸구려 가격표를 붙이는 기분이었다. 돌아보면 내가 돈에 집착했던 이유는 단순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부러움이었다. ‘조금만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다면 이렇게까지 일하지 않아도 됐을까?’ 그런 마음은 분노와 우울로 번졌고 그래서 나만 뒤쳐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알게 되었다. 겉으로 행복해 보이던 그들도 각자의 이유로 저마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아차린 순간, 나의 시간이 비로소 나만의 속도로 흐르기 시작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선택에 의한 나의 방향으로.

가끔은 나의 형편이 내가 가야 할 길을 흐릿하게 만든다. 안개 속을 걷듯, 계산과 불안 사이에서 헤맨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나의 시간을 시급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대신,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데 쓸 것이다.

나는 언제나 여러 선택의 갈림길에서 망설이겠지. 시간은 늘 지나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나는 “시간은 금이다”라는 단순한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나의 고달팠던 청춘에게 뒤늦은 사과를 보낸다.



진압인가 침해인가 : 시위 현장의 공권력 문제

김태훈

1. 들어가며

요즘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이슈 속에서 시위가 자주 열리고 있다. 시위는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변화를 요구하기 위한 민주적 수단으로, 헌법에서도 보장된 기본권 중 하나이다.¹⁾ 이러한 시위는 시민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 과정에서 질서유지라는 명목으로 경찰이 투입되면서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경찰의 개입은 사회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진압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과잉진압’으로 이어질 때 생긴다. 실제로 일부 시위 현장에서는 경찰의 강압적 대응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나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보도되기도 한다. 과잉진압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의 역할과는 모순되며,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권력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시위 현장에서의 공권력 문제는 단지 경찰의 행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배경에는 정치적 압력, 사회적 긴장, 그리고 제도적 한계가 함께 작용한다. 경찰은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기관이지만,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도 지닌다.²⁾ 따라서 ‘진압’이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경찰력 행사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혹은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시위 현장에서의 경찰 과잉진압 문제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원인을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사회적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공권력의 정당성과 인권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진압인가, 침해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1)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와 집회 그리고 결사의 자유를 지닌다.”

2) 경찰청, 『경찰윤리현장』, 경찰청 공식 홈페이지, 2022.

II. 진압, 과잉진압 무엇인가?

경찰의 진압은 기본적으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행위이다. 시위나 집회 현장은 많은 인원이 모이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 경찰은 폭력 사태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현장에 투입된다. 즉 진압이란 단순히 ‘힘으로 제압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점에서 그 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³⁾ 이 조항은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 부분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준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진압은 이론처럼 단순하지 않다.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되더라도 일부 참가자가 돌을 던지는 행위를 보이거나, 경찰차를 막는 등 폭력적인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 경찰 입장에서는 이러한 돌발 상황을 즉시 제압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물리적 사용은 피할 수가 없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수준을 넘어 과도한 폭력이나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과잉진압’이라 한다.

과잉진압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첫째로, 현장 통제의 어려움이 있다. 대규모 시위의 경우 경찰 병력이 수백 명 이상으로 투입이 되는데, 모든 대원이 동일한 판단 기준으로 행동하기 어렵다. 현장의 긴장감과 혼란 속에서 일부 경찰이 순간적으로 감정에 휘둘리게 되거나,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폭력이 발생하기도 쉽다.⁴⁾ 둘째로, 경찰의 조직 문화와 인식 문제도 큰 요인으로 꼽힌다. 경찰 조직은 기본적으로 명령 체계가 강한 집단이다 보니, 상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현장 경찰관이 개별적인 판단보다는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그 결과 과도한 진압 명령이 내려왔을 때 이를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⁵⁾ 셋째로는 정치적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위를 사회 혼란으로 간주하거나 여론의 부담을 느끼게 될 때, 경찰에게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이 법적 절차보다는 결과 중심의 진압을 우선시하게 되고, 과잉진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⁶⁾ 넷째로, 훈련 및 장비 사용의 문제도 무시할 수는 없다. 시위 진압 훈련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경찰관들이 인권 감수성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현장에서의 판단 기준이 애매해진다. 예를 들어 방패나 곤봉 같은 장비는 방어용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공격 수단처럼 사용되는 사례도 있다.⁷⁾

3)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4) 경찰청, 「집회 및 시위 관리 매뉴얼」, 2022, p.14.

5) 김태호, 「경찰의 과잉진압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안전학회지』 제18권 2호, 2023, pp.45-46.

6) 홍지훈, “시위 진압과 정치적 압력의 상관성”, 『한국행정연구』, 제31권 제1호, 2022, p.73.

7) 국가인권위원회, 「시위 현장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2021, p.22.

결국 과잉진압은 단순히 경찰 개인의 폭력성 문제로만 볼 수 없다. 그 속에는 조직의 구조적 한계, 사회적 압력, 제도적 미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진압은 그 본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필요 최소한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진압이 정당성을 유지하려면, 그 힘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임을 시민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압은 쉽게 폭력으로 변하고, 경찰에 대한 사회적 불신만 더 커지게 될 것이다.

Ⅲ. 과잉진압 사례 그리고 문제점 분석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는 단순히 한두 번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 시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논란이 되어왔다.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집행이라는 명분 아래 행해진 진압이 때로는 시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물대포 사건(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대표적인 과잉진압 사례로 꼽힌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의 고압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끝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시위대 해산을 위해 연속적으로 물대포를 사용했고, 쓰러진 뒤에도 살수를 멈추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 역시 살수차 운용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경찰의 대응이 과잉이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민에게 공권력의 폭력성에 대한 불신을 남기게 됐고, 진압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되었다.⁸⁾

두 번째로는 2016~2017년 촛불집회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집회는 당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모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시위였다. 집회 참여자들은 대부분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초기 단계에서 차벽을 설치하고 일부 구간에 강한 통제 조치를 취하였다. 다행히 이후 경찰의 태도가 완화되면서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초반의 대응은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억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사례는 경찰이 시위 상황을 통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 표현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⁹⁾

마지막으로 환경시위 사례를 살펴보면 과잉진압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대규모 개발이나 환경파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자, 경찰은 강제 해산 과정에서 노인과 여성에게까지 물리력을 행사한 사례가 있었다, 특히 2023년

8) 매일경제, 「'경찰 물대포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 사망」, 박상언 기자, 2016.09.25, <https://www.mk.co.kr/news/society/7512395>

9) 서울신문, 「이철성 경찰청장 '촛불집회 때 참 잘했다」, 오세진 기자, 2017.05.12,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congress/20170512500077>

환경단체의 도심 집회에서는 평화적인 농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강제로 천막을 철거하며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고 시민들의 비판 여론이 확산되었다, 이는 경찰이 현장의 상황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대응하였기 때문에 생긴 문제로 볼 수 있다. 결국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신중히 사용되어야 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¹⁰⁾

이처럼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는 단순한 현장 판단의 오류가 아니라, 제도적 그리고 조직 문화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다. 진압의 목적이 질서 유지에 있더라도, 그 과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경찰은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집회와 시위 대응 방식을 개선해야 하며, 무엇보다 진압의 수단보다는 대화와 조정의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IV. 과잉진압 문제점 해결방안 제시

앞서 살펴본 사례들은 경찰의 과잉 진압이 단순한 현장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훈련 그리고 문화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앞으로 경찰은 단순히 사건이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물리력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억압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 억압력의 원칙이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그 강도는 상황의 위험성과 저항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¹¹⁾ 이러한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국민은 공권력의 정당성 자체를 의심하게 된다. 실제로 다수의 연구에서는 물리력 행사의 과잉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경찰 전체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¹²⁾ 따라서 경찰 조직은 현장 대응 과정에서 최소한의 제압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워야 한다.

그리고 단순한 법률 교육 중심의 훈련에서 벗어나 상황 기반의 실전유형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경찰 교육 과정은 여전히 교실 강의와 모의 훈련에 치중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의 긴장감과 복잡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다양한 집회나 농성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중심 훈련, 그리고 비폭력적 긴장 완화 기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¹³⁾ 해외 사례에서도 경찰관이 대처 상황에서

10) 김진선 외,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갈등 완화전략 모색: 시위행위, 신뢰 및 이념갈등의 효과」, 『국가정책연구』 제37권 제3호,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23, pp.181-204.

11) 경찰청, 「경찰관 직무집행법 해설」(2021)

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찰 물리력 행사와 인권 보호에 관한 연구」(2020)

13) 한승희, 「집회·시위 현장 경찰 대응 개선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2019)

신체적 제압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긴장 완화를 우선시할 때, 충돌과 피해가 현저히 감소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¹⁴⁾

또한 장비와 무기 사용에 대한 기준 역시 엄격히 정비되어야 한다. 경찰봉, 최루액, 테이저건 등 물리력 수단은 그 사용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사용 시점, 절차, 보고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황에서는 물리적 제압보다는 대체 수단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¹⁵⁾ 장비 사용의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 보존하게 하고,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제도화하면 과잉 진압에 대한 국민 불신을 줄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독립적이고 투명한 사후 조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과거 밀양 송전탑 사건이나 강정마을 사태 등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뒷선의 개입 여부 불명확과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조치의 미흡이었다.¹⁶⁾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련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묻는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장 운영 측면에서도 필요 최소인력 투입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대규모 인원과 장비가 투입될수록 현장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충돌 가능성도 커진다. 따라서 사전에 집회 주최 측과의 협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인력 투입 기준을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내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⁷⁾ 이러한 예방적 접근은 사후 진압보다 훨씬 효율적이며, 공권력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된다.

아울러 현장 기록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중요하다. 바디캠과 CCTV를 통한 영상 기록은 진압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이지만, 이를 편집하거나 일부만 공개하는 경우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 따라서 영상의 편집·삭제를 금지하고,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하는 규칙이 필요하다.¹⁸⁾ 이는 경찰 스스로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인권 감수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문화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물리력 사용을 최소화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평가와 승진 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성과 중심의 강압적 문화를 완화할 수 있다.¹⁹⁾ 단순히 법령을 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

14) UN Human Rights Council, Guidelines on the Use of Force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2020)

15) 박지훈, 「경찰 장비 운용과 과잉진압의 상관관계」, 『공공안전연구』(2021)

16) 경향신문, 「경찰 '밀양 송전탑' 과잉진압 인권침해... '뒷선' 개입 못 밝혀」(2019.06.13)

17) 서울신문, 「집회 현장 경찰 인력운용 개선 필요」(2020.11.05)

18)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바디캠 영상관리 지침 권고안」(2022)

19) 이은정, 「경찰 인권교육과 조직문화 개선방안」, 『경찰학논총』(2023)

개인이 공권력의 본질을 이해하고 시민과의 관계를 신뢰 중심으로 재정립하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

결국 앞으로의 경찰은 '최소한의 억압력, 최대한의 책임성'을 지향해야 한다. 단순한 법집행 기관이 아니라, 시민과 사회를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신뢰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억압적 방식의 공권력 행사는 단기적으로 질서를 회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 반대로, 투명성과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한 경찰은 시민의 협조와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며, 더 건강한 민주적 치안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V. 나가며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사례들은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단순히 법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신뢰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밀양 송전탑 사건이나 여러 집회 현장에서 드러난 과잉진압 논란은, 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던져준다. 경찰의 대응 방식이 한 개인의 신체와 존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권력은 언제나 '필요한 만큼만' 행사되어야 한다. 앞서 제시한 해결방안들은 결국 한 가지 방향으로 귀결된다. 바로 최소한의 억압력과 최대한의 책임성이다. 이는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아무리 훌륭한 장비와 법적 권한을 갖추고 있더라도, 시민의 신뢰가 없다면 그 힘은 공포로 변할 수밖에 없다. 반면, 시민이 믿고 따르는 경찰은 그 존재 자체로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이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찰은 힘의 상징이 아니라, 이해와 소통의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 현장의 혼란을 단순히 제압으로 다스리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협상과 설득, 그리고 공감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물리력 대신 말과 태도로 갈등을 조율하고, 책임 있는 사후 조치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조직이 될 때, 경찰은 진정한 의미의 '국민의 경찰'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을 통해 독자들이 꼭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점은 단 하나다.

경찰의 역할은 국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함께 지켜주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공권력이 언제나 국민의 편에 서 있을 때, 그리고 그 힘이 정의롭고 절제될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경찰 억압성의 전략적 유형에 관한 연구: 시위진압의 사례 검토」/이선엽 / 학국행정사학지/ VOL.17 NO.-[2005]/한국행정사학/ 2005/ 113-125쪽
-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갈등 완화전략 모색: 시위참여, 신뢰 및 이념갈등의 효과」/김진선, 김강민/ 국가정책연구/ VOL.37 No.3[2023]/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2023/ 181-204쪽
- 「한국 집회,시위 문화에 대한 시민과 경찰의 인식분석에 관한 연구」/ 윤보한, 김효진/ 한국치안행정논집/ VOL.22 No.2[2025]/ 한국치안행정학회/2025/165-188쪽
-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소고」/ 문병호/ 강원법학/ VOL.48 No.[2016]/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2016/ 275-306쪽
- 매일경제. 『경찰 물대포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씨 사망』, 박상원 기자. 2016.09.25.
<https://www.mk.co.kr/news/society/7512395?utm>
- 서울신문, 「표창원 이철성 경찰청장 촛불집회 때 참 잘했다」, 기자명 오세진. 2017.05.12
<https://www1.seoul.co.kr/news/politics/congress/2017/05/12/20170512500077?utm>
- 경향신문, 「경찰, '밀양 송전탑' 과잉진압 인권침해.. '윗선' 개입 못 밝혀」. 고희진 기자 김정훈 기자, 2019.06.13. <https://www.khan.co.kr/article/201906132122005#c2b>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
- 경찰청, 『경찰윤리헌장』, 경찰청 공식 홈페이지, 2022.
-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 경찰청, 「집회 및 시위 관리 매뉴얼」, 2022, p.14.
- 김태호, 「경찰의 과잉진압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안전학회지』 제18권 2호, 2023, pp.45-46.
- 홍지훈, “시위 진압과 정치적 압력의 상관성”, 『한국행정연구』, 제31권 제1호, 2022, p.73.
- 국가인권위원회, 「시위 현장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2021, p.22.
- 김진선 외,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갈등 완화전략 모색: 시위행위, 신뢰 및 이념갈등의 효과」, 『국가정책연구』 제37권 제3호,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23, pp.181-204.
- 경찰청, 「경찰관 직무집행법 해설」(2021)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찰 물리력 행사와 인권 보호에 관한 연구」(2020)
- 한승희, 「집회·시위 현장 경찰 대응 개선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2019)
- UN Human Rights Council, Guidelines on the Use of Force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2020)
- 박지훈, 「경찰 장비 운용과 과잉진압의 상관관계」, 『공공안전연구』(2021)
-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바디캠 영상관리 지침 권고안」(2022)
- 이은정, 「경찰 인권교육과 조직문화 개선방안」, 『경찰학논총』(2023)



가을의 국화도, 나의 꽃이라서

박채영

“봄의 매화만 꽃이나, 가을의 국화도 꽃이지요.”

마지막 수업이 끝난 저녁, 일본 이바라키공전의 작은 교실은 좀처럼 식지 않았다. 옆으로 기운 햇빛이 칠판의 먼지를 띄워 올리고 창턱 화분들 사이로 열은 국화 향이 벗겨지듯 번졌다. 노인들이 공책을 덮고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이, 유일하게 남아 있던 한 할머니가 공책을 반듯이 포개어 두고 내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다.

손녀를 닮았다며 수업 내내 내 곁을 오가던 그 손이 그날은 붉은 종이에 접힌 편지와 바랜 국화 압화, 작고 가벼운 씨앗 봉투를 내 손에 쥐어 주었다. 종이가 손끝에서 바스락 울렸다. 깊은 주름 사이로 맑게 빛나는 눈은 세월을 비껴 선 소녀의 눈망울을 닮아 있었다. 과장도 한숨도 없는 그 한마디가, 오래 었나 있던 내 안의 회로 하나를 조용히 갈아 끼우는 듯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꽤 오랫동안 나는 스스로를 ‘봄을 놓친 사람’이라 불러 왔다는 것을.

20살, 마이스터고를 졸업하자마자 이름만 대면 아는 제조 현장에 들어갔다. 방진복, 정해진 동선, 정각마다 울리는 사이렌. 한동안 나는 그것을 ‘안정’이라 불렀다. 그러나 같은 라인에 서 있어도 회익실 문은 늘 나를 비켜갔고, “어디까지가 네 일인지 알지?” 하고 웃으며 던지는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숨어 있었다. 고졸이면 여기까지. 그 문장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공기 속에 희미한 네온처럼 켜져 있었다.

어느 퇴근길, 그 문장이 처음으로 살갗에 닿았다. 회사 정문을 나서는 순간, 버티고 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풀렸다. 눈물이 마구 쏟아졌고 쓰고 있던 마스크 안쪽이 순식간에 젖어 들었다. 데워진 숨과 섞인 물이 천을 눅눅이 적시고 축축해진 마스크가 입술에 달라붙어 숨이 막힐 만큼 답답해졌지만, 나는 오히려 그 답답함에 몸을 기대 더 세게 울었다. 버스 정류장 유리에 겹쳐진 내 얼굴은 엉망으로 번져 있었고, 그 일그러진 모습이 이상하게도 내가 선 자리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요즘은 다 대학 간다더라.”

“여긴 채영 씨가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인 거 알지?”

가볍게 흘리던 말들이 그날만큼은 방향을 가진 전류처럼 찌릿하게 심장을 훑고 지나갔다. 손에 잡히지 않는 말도 제자리에 쌓이면 결국 칼날이 된다는 걸, 젖은 마스크 아래에서 또렷이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방패를 찾았다. 칸막이 하나라도 더 세우기 위해 서점에서 손해평가사 교재를 집어들었다. 새벽 다섯 시, 의자는 벽으로 밀어 두고 서랍 맨 위 칸에 책을 세워 둔 채 서서 읽었다. 형광등 불빛은 새벽 공기와 어울리지 못한 채 차갑게 떠 있었고, 못 마시던 에스프레소의 낯선 쓴맛이 목을 굵고 내려갈 때마다 잠깐 눈을 감았다. 손가락에 닿는 종이의 까끌한 결, 형광펜 냄새, 발바닥으로 전해지던 차가운 바닥. 낮에는 일, 저녁에는 인강, 새벽에는 문제풀이. 그렇게 겹겹이 접힌 하루들이 말없이 몸속에 차곡차곡 들어앉았다.

그리고 마침내 1차 합격 문자가 도착했을 때. 화면은 환했지만 심장은 늦게 반응했다. ‘됐다’는 생각이 한 번 번쩍 올랐다가 곧 묘하게 금세 식었다. 기쁘다고 하기엔 옅고, 안도라고 하기엔 쓸쓸한 감정이 남았다. 환호보다 먼저 마음 깊은 곳에 다른 문장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내가 걷는 이 길은 나의 꿈인가, 아니면 세상의 비웃음을 막기 위한 방패인가.

입술로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문장은 오래 울렸다. 그 메아리를 듣는 순간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지금까지 방패를 고르느라 분주했을 뿐, 정작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끝까지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 문장이 내려앉은 이상, 더는 2차까지 달릴 수 없었다. 누군가는 아깝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 것이 아닌 삶을 조금 더 연장하는 쪽이야말로 나에게서는 더 두려웠다. 그렇다고 드라마 같은 각성이 찾아온 것도 아니다. 나는 여전히 “그래도 요즘은 다 대학 간다”는 말에 끌려갔고, 방패를 버리겠다 다짐하면서도 또 다른 모양의 방패를 찾고 있었다.

계다가 건너갈 다리도 뚜렷하지 않았다. 마이스터고에서 현장을 향해 반듯이 깔린 레일은 애초에 입시와 맞닿아 있지 않았다. 수시는 쓸 수 없었고 어느 입시 전형에도 ‘현장을 한 번 지난 스무 살’을 위한 칸은 없었다. 길이 막히면 사람은 돌아가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나는 그 두 극단 사이에서, 가장 가까운 열길인 전문대를 택했다. ‘그래도 고졸보다 낫겠지’라는 알팍한 계산이 절반, 여기서만은 멈추지 말자는 실낱같은 용기가 절반이었다.

슬프게도 그때의 나는 여전히 내 가슴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덜 뒤쳐져 보이는 쪽’을 먼저 살피고 있었다. 그럼에도 단 하나 분명해진 축이 있었다. 그래도 배우는 쪽으로 가자. 이 말만큼은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처음 건넨 결정이었다.

그렇게 나는 전문대 야간 과정에 이름을 올렸다. 낮에는 알바로 생활을 메우고, 저녁에는 수업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책을 폈다. 마치 늦게 탄 열차 같았다. 창밖 풍경은 같은데 내 자리만 몇 칸 뒤에 있는 느낌. “따라가면 되지”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이미 늦었다’는 문장이 젖은 솜처럼 늘러붙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그 무렵, 학교 게시판에 한 장의 안내문이 붙었다. 일본 이바라키 공업전문학교와 연계한 단기 파견

프로그램, 현지에서 한국어 수업을 돕고 교류 활동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깊게 계산하지 않았다. 잠시 다른 공기 속에 서 있다 오면 늦었다는 감각이 조금은 얼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이다.

이바라키공전 캠퍼스는 소박했다. 낮게 깔린 건물들, 복도 창으로 스며드는 옅은 빛, 계단 칸마다 벗겨진 페인트 자국. 오후가 되면 운동장 너머 하늘이 조금 이른 시각에 색을 거두었고, 강의동 앞 화단에는 물을 준 흔적이 시간표처럼 남았다. 나를 비롯한 학생들이 ‘한국어 기초’ 수업을 맡게 된 교실은 2층 맨 끝에 있었다. 문을 열면 분필가루가 가볍게 떠 있고, 창턱의 작은 화분들 사이로 국화 몇 송이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던 교실.

맨 앞줄에는 늘 같은 자리에 앉는 할머니가 있었다. 키는 작고 주름은 깊었지만, 눈만은 맑았다. 작은 리본 달린 필통, 공책을 반듯이 포개는 손, 질문을 기다리는 공은 자세까지, 도무지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운 소녀 같았다.

쉬는 시간마다 할머니는 의자를 반쯤 내 쪽으로 끌어와 앉았다. 할머니는 내 이름표를 도박도박 읽어 본 뒤, 내 손등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며 말했다.

“우리 손녀랑 참 닮았네. 그래서 더 보고 싶어요.”

말을 마칠 때마다 손을 한 번 더 꼭 눌러 주었다. 이어지는 질문들은 늘 비슷했다.

“한국 젊은 사람들, 요즘 뭐 좋아해요?”

“한국에서는 가족이랑 자주 만나요?”

‘문화’라는 단어보다 ‘어떻게 사느냐’에 가까운 이야기들이었다. 나는 알바 얘기, 야간 수업 얘기를 섞어 대답하다가, 어느 날 농담처럼 덧붙였다. 늦게 출발해서 두 바퀴쯤 뒤에서 뛰는 기분이라고. 말은 가볍게 던졌지만, 끝 음절이 살짝 내려앉았던 걸 애써 못 들은 척했다.

이어진 교류 활동의 날에는 함께 김밥을 말았다. 쌀알 몇 개를 손가락에 붙인 채 진지하게 나를 따라 김밥을 말던 할머니. “이렇게 맞아요?” 고개를 가웃거리던 모습은 놀랍도록 어린아이 같았다. 또 어떤 날은 가까운 미토역 근처까지 나들이를 나갔다. 역 앞 광장에서 바람이 불어오자 할머니는 내 팔을 가볍게 붙들고 말했다.

“채영 씨, 이런 날은 그냥 걷기만 해도 좋지요?”

나는 그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대신 발을 한 번 더 내디뎠다. 함께 찍은 사진 속 우리는 나란히 서 있었다. 나이 차이는 사진의 구도보다 덜 분명했다. 그날들 사이사이, 할머니는 변함없이 내게 말했다.

“오늘도 잘 왔어요.”

마치 늦게 도착한 걸음 위에 조용히 출석 도장을 찍어 주는 사람처럼 말이다.

파견 마지막 날, 교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유난히 늦게 식었다.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남기고 노인들이 익숙한 속도로 가방을 메고 나가자, 의자 접히는 소리도 멎고 분필가루와 저녁빛만 떠다녔다. 할머니는 끝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공책을 덮은 손이 모서리를 한 번 더 쓸어내렸다.

“채영 씨.”

조금 낮아진 목소리.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 쪽으로 반 걸음 옮겼다. 옆에서 스미는 빛이 주름진 뺨을 얇게 감싸고, 눈동자 안쪽에서 작은 빛이 번졌다. 그 눈은 여전히,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의 눈 같았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붉은 종이 봉투 하나를 꺼내 내 손바닥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었다.

“이거, 집에 가져가요.”

안에는 바랜 국화 압화와 작은 씨앗들이 들어 있었다. 손에 올리자 아주 열은 향이 스쳤다. 뜻밖의 선물에 감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내 손등을 한 번 더 덮으며 또박또박 말했다.

“봄의 매화만 꽃이나, 가을의 국화도 꽃이지요.”

미안함도, 과장된 위로도 없는 목소리였다. 대신 오래 품어 온 사실을 이제 당신 차례라고 건네는 사람의 어조. 그 순간, 창턱의 국화와 봉투의 가벼운 무게, 소녀 같은 눈빛이 한 장면으로 포개졌다. 그 한 줄이 내가 ‘두 바퀴 뒤에서 뛰는 사람’이라 부르며 접어 둔 시간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손바닥에 남은 봉투의 감각이 늦게 피는 것에도 분명한 계절이 있음을 처음으로 믿게 했다.

귀국 후, 자취방 창턱에 작은 화분을 올렸다. 봉투를 비워 씨앗을 털어 넣으니 모래 같은 점들이 손가락 사이로 도르르 흘러내렸다. 물 한 번, 햇빛 한 줌. 며칠이고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도 흙은 아주 조금씩 부풀어 올랐다. 씨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날짜로 말했다. ‘아직’이라는 단어의 모양을 조용히 그려 보이는 것처럼 말이다.

나도 내 시간을 그렇게 부르기로 했다. ‘늦었다’ 대신 ‘아직’. 그리고 내 방패의 재질을 바꾸기로 했다. 철이 아니라 철학으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교수실 문을 두드렸다. 교수님께 편입의 경로를 묻고, 필요한 과목과 감당할 분량을 나눴다. 일과 수업을 병행하며 남은 시간마다 전공책과 문제집을 바쁘게 공부했다. 거창한 선언 대신 오늘의 분량만 정했다. 오늘 할 공부, 오늘 풀 문제, 오늘 버틸 시간. 그 ‘오늘’들이 쌓여 어느 날 문이 열렸고, 나는 전기공학과 학생이 되었다.

전기를 배우며 삶의 구조를 다시 읽게 되었다. 전기공학에서 회로가 끊기면 다시 잇고, 저항이 커지면 전압을 높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접지와 절연이다. 전기가 안전하게 빠져나갈 자리와, 불필요한 충격이 스며들지 못하게 막아 주는 층. 그것이 없으면 작은 과부하에도 회로가 타 버린다. 그 원리를 내 삶에도 옮겨 놓았다. 남의 말 한마디에 혹 타버리지 않으려면 스펙 몇 줄을 더 읽는 것보다 먼저 내가 어디에 발을 딛고 설지, 거친 말이 스며들기 전에 무엇으로 나를 감쌀지 정해야 한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어디서 멈출지 그 경계를 내가 정할 때에야 비로소 내 회로도 안전하게 흐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편입 후의 시간은 빠르지 않았지만, 밀도가 있었다. 실험실에서 영긴 회로를 함께 들여다보던 동기의 손, 시험 전날 편의점 커피를 내밀며 “힘내세요” 하고 웃던 후배의 얼굴, 밤늦게까지 리포트에 코멘트를 남겨 주던 선배의 글씨.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들이 내 불빛을 지켰다. 전류는 드러나지 않지만, 커진

등은 분명하다. 창턱의 화분에서도 아주 작은 초록 점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지금 나는 졸업을 석 달 앞두고 있다. 여전히 걱정은 있다. 다만 질문의 방향이 달라졌다.

“잘할 수 있을까?”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로,

“남들처럼 갈 수 있을까?”에서 “내 속도로 갈 수 있을까?”로.

이제 나는 안다. 봄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걸. 빠름은 때로 미덕이지만, 방향 없는 속도는 오래가지 못한다. 내 계절을 알려 준 건 회사도 아니었고 그토록 쫓던 학벌도 아니었다. 이바라키의 저녁빛, 창턱의 작은 화분, 그리고 소녀 같은 눈으로 내 늦은 걸음을 “오늘도 잘 왔어요”라고 맞아 주던 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가끔 노트 첫 장에 끼워둔 국화 압화를 펼쳐 본다. 누렇게 번진 꽃잎 사이로 이바라키 교실의 공기, 칠판의 흰 가루, “아이, 참 애뜻한 나이네”라고 웃던 숨결이 함께 되살아난다. 그 장면들이 내 안에서 한 문장으로 응축된다. 인생에 하나의 속도는 없고, 늦게 피는 꽃에게는 늦게 피는 꽃의 회로와 시간표가 있다는 믿음.

이제 나는 방패 뒤에 숨지 않는다. 늦게 피는 꽃처럼, 다만 내 계절을 향해 서 있을 뿐이다.

언젠가 또 어떤 누군가가 젖은 마스크를 움켜쥔 채 “이미 늦었다”고 말하는 날이 온다면, 나는 그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쥐여 주고 싶다. 바스락거리는 씨앗 몇 알과 함께, 오래 접어 둔 한 줄의 문장을 또박또박 적어 넣어서.

봄의 매화만 꽃이나—가을의 국화도 꽃이다.



스스로 연 문

이서연

차가운 타일 위에 쏘그려 앉는다. 초등학교 화장실에는 밖에서 걸어 잠글 수 있는 청소용 칸이 있다. 그곳에선 무릎을 가슴에 딱 붙여 앉아야 했다. 방과 후 복도엔 사람 발자국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진한 락스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비릿하게 맴돌 뿐이었다. 손등으로 얼굴을 닦는다. 익숙해질 법도 한데 눈물은 눈치없이 계속 흘렀다. 복도 끝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다 내 앞에서 멈췄다. 녹슨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더니 문이 열렸다. 찬 공기가 그 안을 훑고 지나갔다. 고개를 들자 까만 머리통이 여덟 개는 보였다. 일어서자 나를 촬영하고 있던 카메라를 마주한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저 얼굴 근육을 가누는 방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가만히 서 있다.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늘 그렇듯 함께 공원을 가로질러 너희 집으로 향한다. 반달 같은눈매가 휘어져 쏘아보자 숨이 턱 막힌다. “오늘 장난 재밌었어?” 입을 떼기 전에 네가 내 팔에 있는 머리끈을 잡아당겼다. 퍽 하는 소리가 난다. 다음 날 거울을 보면 파란 멍이 들어있었다. 너는 내키지 않는 게 있을 때 혼자만 이기는 게임을 했다. 팔뚝 여린 살을 꼬집으면 멍이 쉽게 들었다. 자잘한 상처들을 보기 싫어 한여름에도 긴팔을 입었다. “친구끼리 게임한거니까 말하지 않기. 내일 아침 여덟 시까지 집에 안 오면 알지?” 식물을 말라 죽이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장 어두운 곳에 두고 잎이 바스라질 때까지 물을 주지 않으면 된다. 너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학교에선 모두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미안하다고 빌 때까지 지속되는 벌이었다. 네 휴대폰 속 나는 이름 석 자 대신 장난감이라고 적혀있었다.

부모님의 슬픈 얼굴은 보기 싫었고, 선생님은 학교의 문제점을 눈감기 일쑤였다. 그게 어린 아이들 눈에도 보였다. 손을 마주잡게 시키곤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꾸짖는 게 그들이 생각해 낸 최선의 방법이었으니까. 그다음 날부터 더 따가운 눈길만 생길 뿐이었다. 어느 날처럼 매끈한 아파트 타일을 발끝으로 톡톡치며 너를 기다렸다. 그렇지만 삼십 분이 지나도 넌 나오지 않았다. 나는 전단지가

다닥다닥 붙은 너희 집 문을 바라보며 입술을 잘근잘근 씹었다. 내 죄의 목록들을 열거하며 무엇이 네 심기를 거슬렀는지, 어떻게 사과해야 하는지 고민했다. 문이 벌컥열렸다. 산발이 된 너는 내 손을 채가듯 잡아 일층으로 내달렸다. 네 어머니는 현관까지 쫓아와서 욕을 했다. 내가 있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 소리쳤다. 네 어머니의 찌렁찌렁한 외침이 메아리처럼 아파트를 울렸다. 그날 저녁밥을 먹으며 연속극을 봤다. 화면 속 악역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남을 괴롭히고 있었다. 그런 악역은 하나도 즐거워 보이지 않았다. 마치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 같았다. 이렇게나 슬퍼 보이는데, 악역이란 납작한 단어 안에 가두면 그걸 알아챌 수 없었다. 악역의 흔들리는 어깨가 그 애와 겹쳐보였다. 과학 시간, 칠판엔 흰 글씨로 '변이'가 적혀있다. 선생님의 목소리를 빌려 찰스 다윈은 이렇게 말했다. "강한 개체는 살아남고, 약한 개체는 도태됩니다." 환경에 적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다. 교실 뒤를 돌아보자 무언갈 쓰고 있는 아이가 보였다. 그 아이는 동네 왕따였다. 쉬는 시간에는 누가 그 애의 책상 위에 쓰레기를 올려놓았다. 개는 아무 말 없이 치웠다.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누군가 그 애 흉내를 내며 비웃었고 나도 따라 웃었다. 그렇지만 그 아이는 달랐다. 수업 중 누가 연필을 떨어뜨리면 주워 주었다. 청소 시간에는 가장 먼저 빗자루를 들었다.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쓰고 나의 지난 행동들을 후회했다. 얼굴이 뜨거웠다. 사과를 해야겠다 결심하고도 몇 주가 흘렀다. 나는 네게 잠깐 화장실로 와 줄 수 있겠느냐 물었다. 마침내 둘만 남았을 때 나는 너에게 정말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 후로도 나는 네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그 눈동자 속에 부끄러운 나 자신이 비쳤다. 악역을 자처한 순간들이 스쳤다.

마침내 올 것 같지 않던 졸업을 했다. 우리는 각자 다른 학교로 배정받았다. 그러자 너와의 관계도 자연스레 끊겼다. 시간이 흘러 중학교 이학년이 되었다. 어느 겨울 날 카페 앞에서 우연히 너를 봤다. 사람들은 인도에 가만히 서 있는 우리가 방해물이라도 된다는 듯이 옆으로 비켜 지나갔다. 이상하게도 다리가 떨리고 숨이 가빠왔다. 너는 그런 나를 보고 미안하다고 했다. 그후 네 표정은 떠오르지 않는다. 도망치듯 걸어가 집에 도착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엉엉 울었다. 아직도 그 화장실 안인 것 같았다. 진한 락스 냄새가 코끝에 맴도는 것 같았다.

학교 상담센터에 문을 두드렸다. 선생님이 의자를 내어주시고, 앉아서 말하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두 시간씩 상담을 받았다. 마음의 감기 같은 것이란 말에, 정신과 약도 꾸준히 챙겨 먹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무의식 속 내재된 사고를 바꾸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럴 때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은 것들부터 실천해보자고 다짐했다. 일찍 일어나는 것, 채소를 많이 먹는 것, 물을 자주 마시는 것, 다정한 말을 건네는 것, 일기를 매일 적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일상의 작은 실천들이 나에게 분명한 힘을 주었다. 나는 점차 강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엔 좋아졌다가, 또 갑자기 나빠지기도 했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중학교 졸업 사진 속엔 사람들 사이 밝게 웃는 내가 있었다. 교문을 나서며 지난 시간을 후회하지 않았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다. 수능을 마치고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던 참이었다. 열아홉 살 마지막 날 학원 복도에 서 있던 네가 나에게 다가왔다. “잘 지냈어?” 나는 흘러내린 가방끈을 고쳐 매고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뛰지 않았다. 다리도 떨리지 않았다. 몇 마디 얘기를 나눈 후 네 옆을 지나쳐 강의실 문을 열었다. 십이월 삼십일 일인데도 날이 맑았다. 손바닥을 펼쳐 올해의 마지막 햇빛을 담았다. 손가락을 움직였다. 따뜻했다.



무뚝뚝한 K-장남

정우석

나는 세 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형이라는 말은 내 이름처럼 따라다녔다. 동생들이 울면 달래야 했고, 싸움이 나면 중재해야 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형이니까라는 이유로 양보해야 할 때가 많았다. 처음엔 그저 태어난 순서의 문제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형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첫째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족의 균형을 잡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주변 어른들은 “첫째가 길을 잘 닦아야 동생들도 그 길을 간다”고 말했다. 그 말은 칭찬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때로는 무겁게 마음을 눌렀다. 나의 행동 하나가 동생들의 본보기가 된다는 사실은 어린 나에게 보이지 않는 책임감이자 압박이었다. 그래서 감정을 드러내는 일에 서툴렀다. 불안하거나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으려 했다. 형이 흔들리면 동생들도 불안해질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단단하게 세우려 노력하던 내게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사건은 큰 충격이었다. 부모님의 이혼이었다. 너무 어린 나이로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세상의 균형이 무너진 듯했다. 동생들이 울 때마다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내가 가장 불안했다. 하지만 울 수 없었다. 형이었으니까. 그때 처음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고, 동시에 마음 한켠이 단단히 굳어졌다.

이혼 이후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다. 늘 일만 하시던 아버지는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아이들을 위해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듣고,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셨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하려 애쓰시는 모습은 어린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나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지를 생각했다. 그런데도 매일 웃으며 식탁에 앉는 그 모습이, 나에게서는 어떤 말보다 큰 위로였다.

그때 깨달았다. 책임이란 무겁게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버텨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혼 후 한동안은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방향이 길어졌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나를 따라 하려는 동생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생각이 바뀌었다. 내가 이렇게 흔들리면, 동생들도 같이 흔들리겠구나. 그때부터 마음을 다잡았다. 학원에 다시 등록하고, 하루 일과를 스스로 계획했다. 작은 성취를 쌓아가며 자신감을 되찾았고, 그 과정에서 관리의 중요함을 몸소 느꼈다.

아버지는 늘 돈은 버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초등학교 시절, 내 이름으로 된 첫 통장을 만들어 주시며 세뱃돈의 절반을 저금하라고 하셨다. 처음엔 이유를 몰랐지만, 통장 속 숫자가 조금씩 늘어날 때마다 뿌듯함이 밀려왔다. 그 경험은 단순히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일이 아니었다. 관리라는 말 속에는 계획을 세우고, 지키고, 돌아보는 삶의 태도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때부터 무언가를 꾸준히 쌓아가는 과정에서 오는 안정감을 배웠다. 그 경험은 자연스럽게 내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주었다. 대학 전공을 결정할 때, 나는 경영학을 택했다. 경영은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조직의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 생각했다. 특히 관리라는 개념을 통해, 아버지에게서 배운 책임감과 삶의 태도를 이론적으로 확장하고 싶었다. 돈을 버는 법보다,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사람의 삶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를 배우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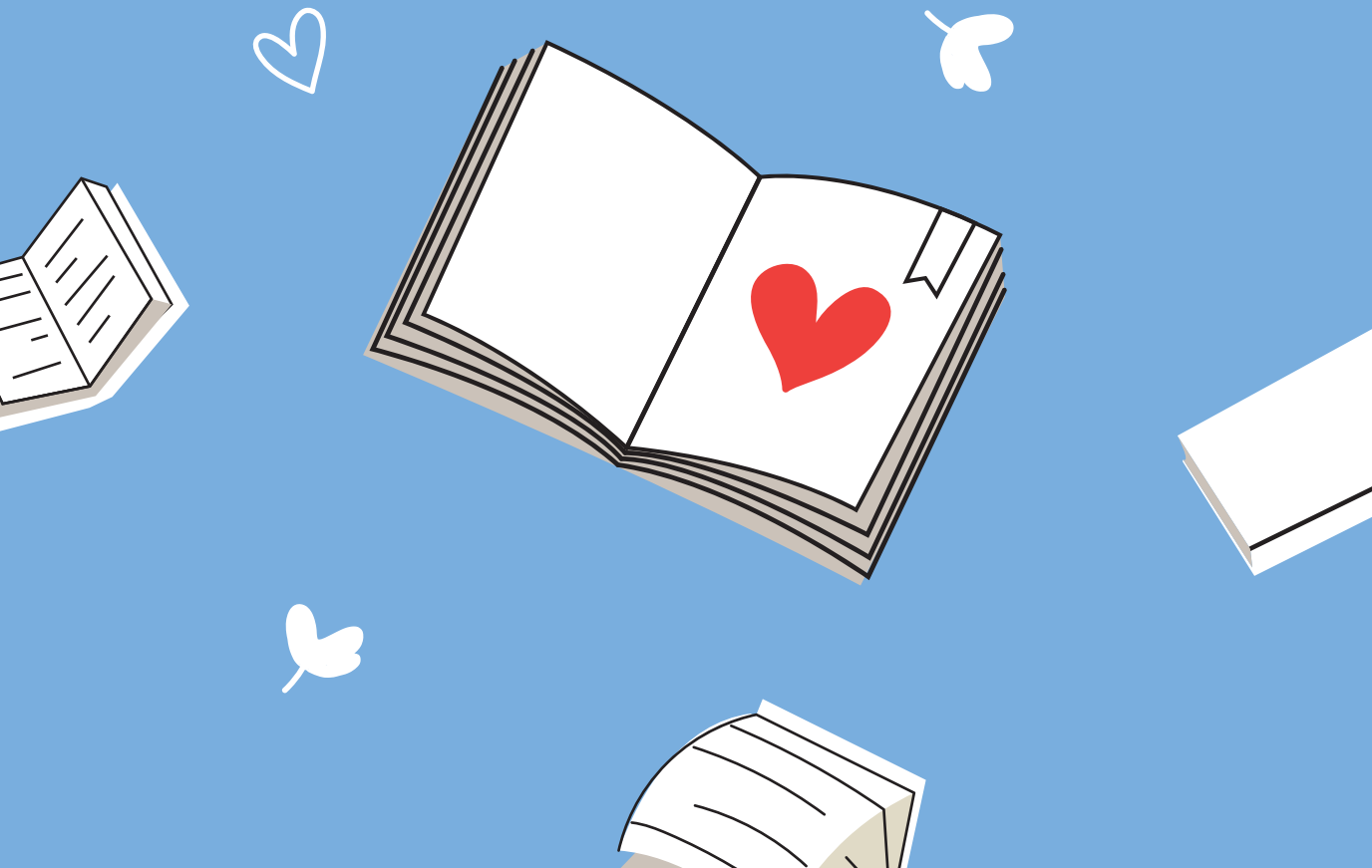
이제 나는 깨달았다. 장남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지나치게 단단하게 만들던 시절이 있었지만, 진짜 단단함은 유연함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완벽하려 애쓰기보다 부족한 자신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꾸준히 나아가려는 태도야말로 진짜 책임감이라는 것을. 형으로서 배운 인내와 책임, 그리고 관계의 무게는 지금의 나를 만든 가장 단단한 기반이다. 아버지의 묵묵한 삶과 동생들과의 조용한 연대는 나를 끊임없이 성장하게 했다.

나는 여전히 배우는 중이다. 경영학을 통해 사회의 구조를 이해하고, 사람과 관계를 배우며, 내 삶을 스스로 경영하려 한다. 무뎠지만 속 깊은 책임감으로 살아가는 K-장남, 그것이 지금의 나를 가장 정확히 설명하는 말이다. 책임은 무게가 아니라 방향임, 그리고 진짜 성장은 조용한 꾸준함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한 걸음 느리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속도로 앞으로 나아간다.

2025 우수에세이 공모전

마음이 문장이 될 때

은상





노란봉투법 노동권과 기업 자유의 균형점을 찾아서

강민우

I. 들어가며

현대 산업 사회에서 노동기본권과 기업의 경영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핵심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 이 두 가치의 충돌은 빈번하게 발생하며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중심에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위치한다.²⁰⁾ 이 법안의 명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 이후,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한 상징적 사건에서 비롯되었다.²¹⁾ 이는 이 법안이 단순한 법 조항의 기술적 개정이 아니라, 기존 사법 시스템이 헌법상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회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음을 시사한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용자’의 정의 확대이다. 기존의 직접 근로계약 당사자 외에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사용자 범위에 포함시킨다. 둘째, ‘노동쟁의’의 대상 확대이다.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 더하여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포함한다.²²⁾ 셋째,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실질적 제한이다. 법원이 손해배상액 산정 시 조합원 개개인의 참여 경위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노조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목적의 손해배상 청구는 금지한다.²³⁾ 이러한 쟁점들은 헌법상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입장과 재산권 및 경영의 자유를 주장하는 경영계의 입장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20) 법무법인 대륜, 「노란봉투법 | 정의, 3가지 쟁점: 사용자 범위, 노동쟁의, 손해배상 청구」, 『대륜 법률정보』, 2024.08.28.

21) 여의도연구원, 「노란봉투법의 쟁점과 과제」, 『YDI 정책리포트』 236호, 2022.11.21.

22) 법무법인 대륜, 앞의 글.

23) 법무법인 케이씨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을 안내」, 『KCL Newsletter』, 2023.12.07.

II. 노동권 보호의 정당성과 손해배상 책임 제한의 필요성

헌법 제33조는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현실의 사법적 관행은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 개인에게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러한 ‘손배 폭탄’은 노조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노동자 개인의 생존 기반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행사 불가능한 권리’로 만들 수 있으며, 노동계는 이러한 ‘헌법에 어긋나는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손해배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²⁴⁾

‘사용자’ 정의를 넓힌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하청·플랫폼 노동처럼 ‘고용이 외주화’된 현대 산업 구조에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없는 형식적 사용자와의 교섭만 가능하면 헌법상 교섭권은 그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힌 것 역시, 정리해고 등 노동자의 고용 안정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교섭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단체행동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 근거한다.²⁵⁾

개정안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정의를 넓힌 것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과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단결권을 꾸준히 권고해 왔으며, 이는 원청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국제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이 노동쟁의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세계적 흐름을 따른 것이기도 하다.²⁶⁾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은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근대 민사법의 대원칙인 ‘자기 책임의 원리’로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법리적 해석이 제기된다. 기존의 ‘연대 책임’ 부과는 사실상 ‘집단 처벌’처럼 작동한 반면, 개정안은 법원이 “개별 근로자의 지위와 역할, 참여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도록 명시했다.²⁷⁾ 이는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을 노동분쟁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협” 할 목적의 청구를 금지한 것은, 소송이 ‘전략적 봉쇄 소송(SLAPP)’의 형태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²⁸⁾하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갖는다.

24) 플랫폼C,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비난론에 대한 7문 7답」, 2025.10.09.

25) 플랫폼C, 앞의 글.

26) 최나실, 「MZ세대 노조도 노란봉투법 찬성 “국제 노동기준 부합”」, 『한국일보』, 2023.07.24.

27) 법무법인 케이씨엘, 앞의 글.

28) 최나실, 앞의 글.

III. 기업 자유의 고려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경영계는 법적 '불확실성'의 증대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다.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나²⁹⁾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같은 정의 규정의 모호함은, 기업이 교섭의 상대방과 대상 범위를 명확히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용자’ 범위 확대로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이나 쟁의행위를 시도할 경우,³⁰⁾³¹⁾ 기존 원·하청 산업 생태계가 교란되고 ‘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³²⁾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경제학적 관점에서도, 사용자의 개념이 모호해짐에 따른 정보 비용, 교섭 대상 확대로 인한 협상 비용, 분쟁 범위 확대로 인한 해결 비용 등이 모두 증가하여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이를 뒷받침한다.

경영계는 또한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불법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행사인데,³³⁾ 이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노동조합’이라는 특정 단체에만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을 감면 해주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점에서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된다.³⁴⁾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과 쟁의행위 증가는 거시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경제 연구기관은 노란봉투법 도입이 실질 GDP, 설비투자, 고용 등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계량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³⁵⁾ 특히 M&A(인수합병)나 외국인 투자와 같은 장기적 결정은 ‘예측 가능성’을 전제로 이루어지는데,³⁶⁾ ‘사용자’와 ‘쟁의 대상’ 범위의 모호성은 노동 리스크를 ‘측정 불가능한 우발 부채’로 만들어 M&A 시장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37) 38)} 노조가 강한 특정 산업에 대한 투자가 기피될 수 있으며, M&A 실사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 작용해 M&A 시장 침체를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 법무법인 대륜, 앞의 글.

30) 위의 글.

31) 여의도연구원, 앞의 글.

32) 박관규, 「“노란봉투법, 헌법 기본권 침해”…전경련, 반대 위해 위헌 카드도 꺼냈다」, 『한국일보』, 2022.11.21.

33) 박관규, 앞의 글.

34) 위의 글.

35) 태평양연구소(PI-TOUCH), 「노란봉투법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PI-TOUCH 정책보고서』, 2024.08.01.

36) 「상법 개정·노란봉투법에 M&A 시장 위축 장기화 우려」, 『인베스트조선』, 2025.09.11.

37) 법무법인 대륜, 앞의 글.

38) 여의도연구원, 앞의 글.

IV. 노동권과 기업 자유의 조화 방안 모색

두 가치의 조화를 위해서는, 우선 '자기 책임 원칙'에 기반한 손해배상 책임의 합리화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³⁹⁾ 다만 '평등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폭력이나 파괴'와 같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 개정법이 '과도한 면책'으로 오용될 소지를 차단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된다.⁴⁰⁾

법안으로 인해 야기될 갈등은 '사법적 판결'이라는 사후적 해결보다 '사전적 조정'을 통한 관리가 필수적이다.⁴¹⁾⁴²⁾⁴³⁾ 법안이 교섭과 분쟁의 '범위'를 확장하는 만큼, 증가한 갈등이 모두 소송이나 파업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막을 제도적 완충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동위원회(중앙/지방)가 '사용자' 범위 확정 등 새로운 유형의 분쟁을 다룰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⁴⁴⁾ 소송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대안적 분쟁 해결(ADR)' 제도를 노동 현장에 적극 도입해야 한다. 특히 독일의 '합의기구' 모델처럼, 특정 분쟁 유형에 대해서는 파업이나 소송 이전에 전문 기구의 조정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강제적 필터'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ADR은 소송 대비 신속성 과 유연성을 가지며, 노사 관계의 파국을 방지하고 실질적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유리하다는 장점이 이미 여러 국가에서 확인된 바 있다.⁴⁵⁾

나아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처럼 전통적인 노사관계의 틀에 속하지 않는 이들의 교섭권 문제는, 개별 기업 단위의 접근이 아닌 '업종별' 또는 '직종별' '초기업 교섭' 모델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단순한 '심판'이 아닌,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등을 활성화하고 업종별 교섭을 지원·조정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39) 법무법인 케이씨엘, 앞의 글.

40) 박관규, 앞의 글.

41)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위원회와 노동분쟁해결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KLI 연구보고서』, 2009.

42) 박노형, 『유럽연합의 대체적분쟁해결 제도에 대한 연구(ADR)』, 법제처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2008.

43) 「대안적 분쟁해결(ADR)의 이론과 모델 : 미국사회의 경험과 한국적 함의」, 『분쟁해결연구』 2(1), 2004.

44) 한국노동연구원, 앞의 글.

45) 「대안적 분쟁해결(ADR)의 이론과 모델...」, 앞의 글.

V. 나가며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의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과 ‘기업의 자유’라는, 두 핵심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헌법상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법안의 정당성과 시대적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동시에 법적 정의의 모호함에서 비롯되는 경영 활동의 위축,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로 인한 투자 감소 등 경영계의 합리적 우려와 잠재적 경제 파급 효과 또한 있게 분석하였다.

노동권이 무시되는 산업 현장은 지속 가능할 수 없으며, 기업의 자유가 질식되는 경제 환경에서는 노동권 또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이러한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갈등 속에서, 본 보고서는 법안의 입법적 선언만으로는 결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합리화하되 ‘폭력’ 등 명백한 불법에 대한 책임은 엄격히 묻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또한,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와 ‘대안적 분쟁 해결(ADR)’시스템을 활성화하여 값비싼 사법적 해결 이전에 갈등을 조정하고, 정부가 ‘초기업 교섭’ 등을 지원하는 적극적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결국, 법의 개정이라는 ‘하드웨어’의 변화는 반드시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현장에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즉 정교한 정책적·제도적 보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법의 선언이 현실의 질서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만이 진정한 산업 안정과 노동권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보고서 및 논문

- 「대안적 분쟁해결(ADR)의 이론과 모델: 미국사회의 경험과 한국적 함의」, 『분쟁해결연구』 2(1), 2004.
- 박노형, 『유럽연합의 대체적분쟁해결 제도에 대한 연구(ADR)』, 법제처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2008.
- 여의도연구원, 「노란봉투법의 쟁점과 과제」, 『YDI 정책리포트』 236호, 2022.11.21.
- 태평양연구소(PI-TOUCH), 「노란봉투법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PI-TOUCH 정책보고서』, 2024.08.01.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위원회와 노동분쟁해결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KLI 연구보고서』, 2009.

기사 및 웹 자료

- 「상법 개정·노란봉투법에 M&A 시장 위축 장기화 우려」, 『인베스트조선』, 2025.09.11.
- 법무법인 대륜, 「노란봉투법 | 정의, 3가지 쟁점: 사용자 범위, 노동쟁의, 손해배상 청구」, 『대륜 법률정보』, 2024.08.28.
- 법무법인 케이씨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 안내」, 『KCL Newsletter』, 2023.12.07.
- 박관규, 「“노란봉투법, 헌법 기본권 침해”…전경련, 반대 위해 위헌 카드도 꺼냈다」, 『한국일보』, 2022.11.21.
- 최나실, 「MZ세대 노조도 노란봉투법 찬성 “국제 노동기준 부합”」, 『한국일보』, 2023.07.24.
- 플랫폼C,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비난론에 대한 7문 7답」, 2025.10.09.



나는 가끔 쓰러지지만 무너지지는 않는 사람

도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참 차분하고 조용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걸을 때도, 말할 때도, 생각할 때도, 사람에게 마음을 열 때도 모든 것이 오래 걸리는 아이였다. 그래서 빨리빨리 좀 하라는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모두가 나를 벌난 사람 취급했다. 세상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았고 나는 늘 하는 것도 없이 바빴다.

나는 내가 언제부터 아팠는지도 몰랐다. 우울한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그 뒷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울증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처음 그 사실을 인지했던 건 초등학교 5학년 때 쓴 일기장에서 죽고 싶다는 말을 발견했을 때부터였다. 나는 무기력했고 별로 살고 싶지 않았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가끔 자해를 했다. 그리고 그것은 나름 초등학교 때 듣던 다독가, 영재 소리가 무색할 만큼 나의 기억력, 어휘력, 인지 능력 등을 철저하게 감퇴시켰다. 어느 순간부터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몇 년을 글과 담쌓고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우울증이 심해지고 나서부터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고 누가 갑자기 말을 시키면 괜히 엉뚱한 말을 하게 됐다. 나에게는 타인의 말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정리해서 입으로 내뱉기까지의 과정이 아직도 너무 어려운 일이다. 타고난 기질과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병은 일종의 저주 같았다. 남들이 보면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대답을 생각하느라 오랜 시간 침묵을 유지하다가 왜 사람 말을 무시하냐는 말을 듣기 일쑤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한없이 미안하고 잘못된 사람이 됐다.

그 상태로 남들 다 가니까 나도 가야 하는 대학에 입학했다.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안 가면 할 게 없으니까 성적 맞춰 온 학교에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더해져 학교에 다닐 이유를 찾기는 더욱더

힘들어졌다. 실시간 줌 수업 시간을 까먹지 않으려고 종이에 써서 벽에 붙여놓은 사실조차 잊어버렸던 날에는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많이 절망했던 것 같다. 배우고 싶었던 학원에 다니고 꾸준히 운동을 해도 여전히 어딘가 한 곳이 텅 빈 느낌이었다. 학점이 곤두박질치고 일상생활마저 어려워질 때쯤이던 1학년이 끝나자마자 도피성 휴학을 했다.

그때부터 글을 썼다. 특별히 글 쓰는 게 좋아서는 아니었다. 글을 쓰는 동안은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마음을 담은 글은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고 생각을 버리는 데도 그만한 것이 없었다. 처음엔 딱히 글이랄 것도 아니었지만, 머릿속이 복잡하면 A4 용지를 꺼내 형식도, 두서도 없는 말을 종이 위에 전부 내뱉었다. 그렇게 감정을 쏟아낸 글은 아무도 보지 못하게 찢어서 버리거나 방 어딘가에 꼭꼭 숨겼다. 그리고 나면 조금은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고 글은 나를 비우거나 채울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

휴학 후 취미로 다니던 도장 관장님의 제안으로 사범 일도 해보았지만, 말로 하는 일은 나의 치부를 드러내기 너무 쉬웠고 내가 주도하지 않으면 굴러가지 않는 상황들이 매번 부담스러웠다. 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항상 부족했으며, 종종 찾아오는 공황 증세와 자기 불신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먹던 약도 마음대로 끊었다. 매일 누군가에게 쫓기는 기분이었고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서도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했다.

누군가를 가르쳐본다는 건 좋은 경험이었지만, 나와는 맞지 않는 길이라는 걸 깨달고 그만두기로 했다. 모순되게도 학교에 다닐 때는 때려치우고 일이나 하고 싶었지만, 막상 일을 해보고 나니 다시 학교에 가보고 싶어졌다. 무엇이든 해봐야 포기할 수도 있는 법이었다. 나는 1년짜리 경력을 손에 쥐고 복학을 결심했다. 복학 후 1년은 학교에 적응하는 데 온 노력을 쏟았다. 22살에서야 처음 제대로 된 대학교 수업을 듣고 떠올린 생각은 '힘들지만 그래도 재밌다.'였다. 아주 약간 성장했다는 기분이 들었고 나를 만족할 만한 성적도 받게 됐다. 하지만 역시 전공 교수님에게서 들었던 말이 지난 5년을 통틀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한 학기 내내 글을 쓰는 수업이었고 학기 초 과제는 그림 하나를 보고 자유 이야기를 창작하는 것이었다. 당시 내 목표는 그저 눈에 띄지 않게 수업을 듣고 암전히 졸업하는 것이었고 말이다. 교수님 연구실에 프린트한 과제물을 두고 나가려는 순간 잠깐 앉아 보라는 교수님의 말이 들렸다.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에 잔뜩 긴장한 나는 어색하게 의자에 앉았고 이어진 말은 더 당황스러웠다.

“글을 잘 써서 너에게 흥미가 생겼다. 원래 글 쓰는 걸 좋아하니?”

마음이 덜거러졌다. 기쁨? 놀람? 부딪힘?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왔지만, 그 기분이 썩 나쁘진 않았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내가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무의식 속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여러 질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너는 재능이 많으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는 말에 눈물이 났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 말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부적처럼 남아 무언가 망설여지는 순간에 힘을 주곤 한다. “글을 참 잘 씁니다. 앞으로도 글을 많이 써 보기 바랍니다. 글 쓰는 재능이 돋보여요!”라는 LMS 속 코멘트와 함께.

그때 과제로 썼던 아주 짧은 이야기에서 마음에 드는 한 구절을 인용한다. ‘각지고 서툴러도 결국 이어져 있다는 게 위로가 됐다. 꼭 동글지 않아도 이렇게 굴러가다 보면 무엇이든 되겠지. 세상에 없는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겠지.’ 주인공이 스스로 하는 독백이자 내가 나에게 하는 선언이었다. 나는 내 방식대로 굴러가 보기로 했다. 나는 나를 ‘가끔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무너지지는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그 둘은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묘하게 다른 점이 있다. 쓰러진 것은 몇 번이고 다시 쌓으면 된다. 나는 이제 나의 심지가 바로 세워져 있다는 걸 안다. 나는 글의 힘을 믿는다. 아주 천천히, 느림의 미학을 맛보며 쌓아 올린 마음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다짐한다. 단순 단어들의 나열일 뿐인 행위에 왜 이리 의미를 두느냐 묻는다면 나에게 글은 말이자 자신감이자 세계이기 때문이다.

약 4개월 남은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학기의 끝자락에서 가장 많이 울고 웃었던 내 대학 생활을 되돌아본다. 날 조각하고 다듬었던 시간을 거쳐 이제 더 이상 죽고 싶지는 않다. 세상은 살 만하다, 그래도 사는 게 낫다 따위를 논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우울증이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행복해지고 세상이 아름다워지지도 않는다. 아직도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날들이 수없이 많다. 그럴 때마다 기댈 수 있는 나만의 돌파구를 하나씩 만들어 가는 중이다. 나는 현재를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하고 싶은 것들이 하나둘 생긴다.

에세이 공모전에 참가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랬던 사람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였다. 내 글이 공개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아주 만약을 염두에 두고 혹시 모를 누군가에게 전한다. 우연히 들은 노래 한 소절이, 어쩌다 보게 된 영화 하나가 살고 싶은 마음을 만들기도 하듯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 중 아주 힘든 겨울을 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언젠가는 꼭 당신의 계절이 돌아온다고 말해주고 싶다. 겨울은 매년 찾아오지만 영원하지 않고, 꽃은 시들지만 언제 졌냐는 듯 기어코 만개한다. 괜한 권유했의 말은 차마 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당신의 내일을 응원한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기까지 아주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당신도 나처럼 결국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의 영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민아

나는 일곱 살 때 처음으로 다른 세상을 마주했다. 지구에 함께 살고 있지만, 내가 직접 볼 수 없던 세상. 현실보다 더 생생하고 감정이 진하게 살아 있는 세계였다. 그것은 바로 영화였다. 두 시간 남짓의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완전히 다른 나라, 다른 인물로 살아보았다. 스크린 속 세상은 마치 나에게만 열린 또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고, 영화가 끝나면 설명할 수 없는 여운과 후유증이 며칠씩이나 마음속을 맴돌았다.

아빠는 거의 매주 나를 영화관에 데려가셨다. 장르에 상관없이 아빠가 고른 영화라면 무엇이든 함께 봤다. 엄마는 영화관만 가면 어두운 분위기와 포근한 좌석 덕분에 곧잘 잠에 들곤 하셨다고 한다. 엄마 아빠가 처음 만날 날에도 <쥬라기 월드>를 함께 보셨다는데, 그날도 엄마는 새근새근 주무셨다고 한다. 그래서였을까, 아빠는 내가 태어난 이후 자신과 함께 영화를 볼 ‘최고의 메이트’를 찾은 것처럼 기뻐하셨다고 한다. 어린 나는 그 사실을 잘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은 아빠에게도 나에게도 특별한 의미였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매일 학교 시간마다 아빠가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기대했다. “오늘 학원 가지 말고 영화 보러 갈까?” 아빠의 그 한마디는 언제나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날의 팝콘과 콜라, 그리고 스크린에 펼쳐지는 화려한 장면들이 내 하루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8천 원짜리 티켓 한 장이 주는 행복은 생각보다 컸다. 엄마가 알면 아빠와 나 둘 다 잔소리를 들을 게 뻔했기에 엄마에게 비밀이었지만, 그 달콤한 일탈은 내 인생의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아빠는 주로 액션이나 히어로물을 좋아하셨다. 하지만 나는 어떤 영화든 다 좋았다. 반짝이는 장면 하나하나가 경이로웠고, 영화가 끝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졌다. 그런데 아빠는 늘 영화가 끝나면 “전개가 조금 아쉽다”, “음악이 잘 어울리네”, “CG는 별로였어”라며 이야기하셨다. 그 대화를

통해 나는 영화를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법’을 배웠다. 장면 속의 감정선, 인물의 선택, 그리고 음악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까지. 스토리를 즐기는 것을 넘어서, 장면과 연출의 의미를 곱씹는 법을 익혔다. 아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도 또 하나의 수업이었다. 그때부터 영화는 나에게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세상을 배우는 창이 되었다.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여전히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평일에는 밤늦게까지 야간 자율 학습을 하고, 주말엔 학원을 전전하느라 영화관에 가는 일은 사치가 되었다. 새로 개봉한 영화의 예고편을 볼 때마다 ‘이 영화, 아빠랑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그 바람은 늘 뒤로 밀렸다. 그리고 마음 한켠엔 늘 그리움이 자리했다. 그래도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시기도 언젠가 지나가겠지.’

그리고 마침내 대학생이 되었다. 자유로운 시간표 속에서 문득 생각났다. ‘아빠와 다시 영화관에 가고 싶다.’ 예고편이 TV에 나오자마자 아빠에게 말했다. “이거 우리 보러 갈래요?” 아빠는 기다렸다는 듯 미소 지으셨다. 그렇게 오랜만에 영화 예매 앱을 켜는데, 나는 눈을 의심했다. 8천 원이던 티켓 값이 어느새 만 오천 원으로 올라 있었다. 그 순간, 숫자보다 세월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티켓 값이 두 배로 오른 만큼, 우리 사이에도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이 실감 났다. 그때의 아빠와 나,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겹쳐 보였다. 그 기억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나는 단순히 영화를 본 게 아니라, 아빠의 사랑과 시간을 선물 받았던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어린 시절에는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영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스크린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늘 나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던 아빠의 이야기였다.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나는 ‘영화’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오락이나 취미가 아니라, 관계를 이어 주는 언어이자 감정의 매개였다.

이제는 예전처럼 매주 영화관에 가지는 못한다. 하지만 영화는 여전히 나에게 세상을 이해하는 창이다. 스크린 속 인물의 선택에서, 대사 한 줄에서, 나는 여전히 삶의 단면을 배우고 느낀다. 그리고 그런 내 안에는 언제나 아빠와 함께한 영화의 기억이 살아 있다. 나는 앞으로도 영화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싶다. 한 편의 영화 속에서 인간의 감정, 관계,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나 자신을 성장시켜 나갈 것이다. 아빠와 함께한 수많은 영화 속 장면들은 이제 내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 덕분에 나는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내게 영화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킨 또 하나의 인생 이야기다.



뒤바뀐 나의 진로

방시은

“너 태권도 해 볼 생각 있니?”

체육 시간에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고등학교 태권도 감독님이 내게 다가와 던진 한마디였다. 그 짧은 질문이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다.

그때의 나는 빅데이터 전문가를 꿈꾸고 있던 코딩을 좋아하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대학에 진학해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싶었다. 그러나 문제는 성적이었다. 원하는 대학의 해당 학과에 진학하려면 등급이 부족한 상태였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날로 심해졌고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가 조금 무거웠다.

그런 내게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진로가 다가왔다. 고등학교 태권도 감독님은 나의 유연성, 체격, 순발력, 달리기 능력을 유심히 보셨다고 했다. 그리고 “너 정도면 체대에 충분히 갈 수 있다.”며 구체적인 조건까지 따져가며 권유하셨다. 감독님은 또 “내가 너 원하는 대학에 보내 줄게. 운동 하자”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 제안은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였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며칠 동안 머릿속이 복잡하면서도, 새로 배우는 태권도가 너무 재밌기도 했다. 하얀 백지에 예쁜 그림을 새로 그리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부모님,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특히 심했었다.

“나는 너를 꽃처럼 예쁘고 곱게 키우고 싶었어. 그래서 힘들고 험한 운동은 시키고 싶지 않아.” 어머니의 말은 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어머니는 예체능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에 걱정과 반대가 컸다. 늦게 시작한 운동, 거친 훈련, 부상 가능성이 높은 투기 종목 등 모든 게 반대할 만한 이유였다. 긴 대화를 거친 끝에 부모님은 결국 내 선택을 존중해주셨고, 나는 태권도의 길로 들어섰다.

시작은 정말 험난했다. 오래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남들보다 두세 배 더 노력해야 했다. 운동량은 상상을 초월했고, 몸은 버티지 못하고 자주 무너졌다. 피로 골절과 발톱 빠짐은 기본이었다. 시합

이틀 전에 발에 금이 가서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고, 그 상태로 시험에 출전한 뒤엔 부상이 더 심해져 휠체어까지 타야 했다. 햄스트링 파열, 인대 손상, 허리 디스크까지 겹치며 나중엔 어디 하나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였다. 몸은 회복될 틈도 없이 혹사당했고, 약으로 버티는 날들이 반복됐다.

몸이 아프니 마음도 지쳤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내가 선택한 길이었으므로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 운동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매일 밤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눈물을 흘렸다. 너무 힘들고 아파서 솔직히 운동을 시작한 걸 후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도 버티고 싶었다. 그건 내가 스스로 내린 선택이었으므로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다시 마음을 다잡았고 고등학교 생활을 즐기며 버텼다.

결국 나는 체육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학에서도 고민은 이어졌다. ‘운동을 접고 다시 공부할까? 아니면 계속 운동을 할까?’ 수많은 질문과 고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특히 대학에 진학 후 재활이 필요한 상태로 운동을 시작하지 못했을 때는 이런 고민이 더 깊어졌다.

허리와 햄스트링 부상으로 총 4개월간 재활 치료만 받아야 했다. 재활 선생님께서 “이 상태면 보통 1년은 넘게 걸리는 케이스인데, 너는 정말 성실하게 잘 따라와 줘서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분명 칭찬인데도 나는 재활 기간이 너무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다. 다른 친구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함과 무력감이 밀려오기도 했다. 주변에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해온 친구들이 많았고 그들에 비해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껴졌다. 처음엔 비교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만의 강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기에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었고, 절박함 덕분에 누구보다 집중해서 훈련에 임할 수 있었다. 그래도 그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더 깊이 돌아보고 다시 단단해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신체적인 성장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다. 나는 아프고, 후회하고, 다시 다짐하는 과정을 통해 선택의 무게를 배웠다. 누구보다 힘들게 걸어왔기에 지금의 나는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더 노력하고 성장할 것이다.

또한 운동뿐만 아니라 수업에도 성실히 참여하며 이전부터 꿈꿔왔던 IT 분야에 대한 관심도 놓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 운동선수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더 넓은 시야를 갖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자 노력 중이다. 뒤바뀐 나의 진로는 나에게 좌절을 가르치고 그 속에서 성장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운동을 통해 끈기와 인내, 협동심을 배웠고, IT 공부를 통해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과 논리적인 사고를 키워가고 있다. 겉보기엔 전혀 다른 길처럼 보여도, 이 두 경험은 나를 더 입체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지금 이 길이 정답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내가 걸어온 길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후회 없이 나아가겠다.



아빠의 트랙

백나라

나는 아빠를 싫어했다. 한 살 터울 동생한테만 쏟아지던 아빠의 관심은 나에게 결핍으로 작용했다. 결국 관심을 추구하는 마음이 증오로 표현되었다. 아빠랑은 대화도 안 나누고 멀리했다. 우리 가족은 거실에서 아빠, 동생, 엄마, 나 순서로 잠을 잔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내 바로 옆에 아빠가 누워있었다. 놀라기도 했지만, 불쾌감에 온몸이 굳었다. 순간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아빠를 밀쳤다. 그렇게 나는 아빠한테 벽을 쌓아 올렸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족사진 촬영이 있었다. 장녀인 나는 아빠 무릎에 앉아야 했다. 정말 앉기 싫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다. 엄마는 날 어르고 달래서 아빠 무릎에 앉혔다. 집에 들어와서 찍은 사진을 보니 나만 울상이었다. 사진을 한참 보던 아빠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딸, 아빠 죽으면 울 거야?” 나는 별생각 없이 대답했다. “안 슬플 거 같은데.” 한없이 어리고 가벼운 말이었다. 아빠는 내 대답에 고개를 푹 숙었다. 이후로도 아빠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했지만 나는 똑같은 대답만 내뱉으며 아빠를 속상하게 만들었다.

부모님의 싸움이 잦아졌고, 결국 이혼을 결정했다. 아빠는 집을 나갔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 말에 동생은 안도했지만 나는 불편했다. 아빠를 보러 가면 엄마가 속상해할 것 같았다. 마냥 좋아하는 동생이 어리석어 보였다. 동생은 아빠랑 자주 연락하며 밥도 먹었지만, 나는 세 달에 한 번꼴로 아빠를 만났다. 나가서도 불편한 티를 숨기지 않았다. 아빠가 건네는 챙김과 다정함을 거절하기에 바빴다.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했다.

나는 아빠를 왜 싫어하는 걸까. 사람을 싫어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누가 나한테 이유를 묻는다면 대답할 수 없었다. 점점 아빠를 싫어하는 이유를 잃어갔다. 그동안 관심을 받고

싶어서 했던 행동들이 나의 결핍과 외로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관계를 회복하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 작은 불씨가 견잡을 수도 없이 커져 버린 채 방황했다. 아버지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냥 그렇게 내 감정을 방치했다.

초등학교 6학년, 어느 때와 다름없이 수업하고 있었다. 문제를 풀고 있으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반 친구들은 너도나도 빨리하려고 집중했다. 조용해진 교실에 전화 소리가 울렸다. 선생님께서는 전화를 받으며 교실 복도로 나가셨다. 전화할 때 목소리가 바뀌는 선생님의 모습에 나와 반 친구들은 킁킁 웃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생님은 나를 부르셨다. 해맑게 전화받은 내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였다. 선생님은 얼른 집에 가보라고 하시고 난 급하게 책상에 걸려있는 가방을 챙겨 5학년 층으로 향했다. 눈앞이 부에서 그런지 동생한테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다. 교실 앞에서 감정을 가다듬고 문을 두드렸다. 내 얼굴을 본 선생님은 어쩔 줄 몰라 하셨다. 그렇게 동생을 데리고 나왔다. 장례식장에 가야 한다는 내 말에 동생은 의아해했다. 아버지를 잘 따랐던 동생이기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동생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면서 아버와의 추억을 회상했다. 나는 할 말이 없어서 동생 얘기만 들었다. 동생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언니 운동장 트랙 아빠가 깎 거 알아? 아빠가 언니 운동하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랬대” 동생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다. 초등학교 3년 동안 육상을 했던 나는 좋은 성과를 내서 군청과 학교 측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았다. 그중 하나가 운동장 트랙 교체였다. 그동안 갖가지 이유를 대며 아버와 만남을 미뤘던 나, 딸을 보기 위해 갖가지 일을 하는 아버. 그 순간 아버한테 했던 모든 행동과 기억들이 스쳐 가기 시작했다. 이제야 아버의 진심과 묵묵한 사랑을 마주하게 됐다. 난 이제 아버가 싫지 않는데 아버는 마지막까지 나를 미워하는 딸로 생각하면 어떡하나 하는 거대한 걱정이 밀려왔다.

장례식장에 가서는 눈물을 꼭 참았다. 아버한테 모질게 굴었던 나는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오랜만에 본 큰아버의 얼굴에는 자글자글한 주름과 약간 탄 피부 희끗희끗한 머리가 눈에 띄었다. 큰아버께서는 아버를 보러 가자고 하셨다. 따라간 곳은 안치실이라고 쓰여 있었다. 들어가 보니 아버가 눈을 감고 누워있었다. 금방이라도 잠에서 깰 것 같았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나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이 눈물은 뒤늦은 사랑 고백이었다.

나는 아버를 좋아한다. 그저 사랑받고 싶었다. 사랑은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나는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렀고, 아버는 아버가 처음이었다. 아버는 공평하게 사랑을 주었고, 사랑을 주는 방식이 조금 달랐을 뿐이다. 돌이켜보면 아버는 항상 뒤에서 날 챙겨주었다. 아버와 둘이 치킨을 먹을 때도 닭다리도 다 내 것이었고, 아버의 사진첩은 나로

가득했다, 진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다를 수 있다. 이제 누군가를 오해하거나 감정이 앞설 때면, 그때의 나를 떠올린다. 내가 보지 못한 아빠의 트랙들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하고 말이다. 쓰라린 깨달음은 나를 성장시켰고 타인의 진심을 들여다볼 줄 알게되었다. 그렇게 아빠의 진심은 영원한 가르침이 되었다.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옥지우

내가 처음 5·18을 알게 된 것은 10살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보여준 영화를 통해서였다. 영화의 제목은 〈화려한 휴가〉였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언급되는 ‘광주’. 내가 살고 있는 광주가 화면에서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어 마음이 아팠다. 이후에 성장하면서 역사 교과서 및 5·18 관련 각종 영화를 접하며 5·18은 광주에서 나고 자란 나에게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로 가슴 한편에 자리를 잡았다.

대학교에 들어와서 수업 시간에 〈김 군〉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다. 비교적 최근의 일을 다루고 있는 이 영화는 다른 의미로 매우 충격이었다. 5·18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 묘사하며, 죄 없는 광주 시민군들의 항거를 거짓으로 더럽히는 명백한 왜곡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마주하였다. 저렇게 말한다 한들 절대 지워지지 않는 피와 분노, 저항과 정의의 민주화 정신이 담겨있는 시민들의 의지를 지울 수 없을 텐데도, 저들은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용서할 수 없었다.

영화에서 5월 광주를 겪으셨던 분 중 한 분은 “기억은 안 해도 되는데, 왜곡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고 가슴 한편에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정작 누군가가 내게 그 이유를 물으면 제대로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떠올랐다. 내가 알고 있는 5·18의 진실은 어디까지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싶어 직접 흔적을 따라가기로 했다.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됐다. 동명동에서 나고 자란 할머니와 엄마가 바로 살아있는 증거였다, 할머니는 그때 시민군들에게 주먹밥이나 사이다를 나눠주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엄마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집에 있었다. 계엄군이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도 총을 겨눴었는지, 혹시라도 집에 있는 엄마가 총을 맞을까 봐 무서워서 창문에 두꺼운 이불을 덧대어 놓았고, 길가에는 차마 어린아이가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더 이상 그 상황을 상상하고 싶지 않아졌다. 겪은 것도 아니지만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해 분노하는 나 자신도 정작 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이 너무 꼴사나워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생각해 보면 나는 광주에 살고 있으면서도 정작 학교나 매체에서 다뤄지는 것만 걸핍기식으로 접하고, 막상 실제로 그 흔적을 찾아 접해본 적은 매우 드물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난 뒤, 대학 동기와 전일빌딩을 방문했다. 전일빌딩 10층은 5·18 관련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시를 보면 나의 마음과 기억을 새롭게 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했다. 더 많은 진실을 직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었다. 이전 그럴 수 있으니까.

전일빌딩에서 직접 본 흔적들은 정말 무서웠다. 헬기 사격으로 인해 우리는 부서지고 기둥과 바닥엔 수많은 구멍이 나 있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전시장 관리하는 분은 ‘헬기로 총을 난사하는 것은 전쟁이 난 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설명해 주셨다. 그렇다면 당시 정부는 전시도 아닌데 군인을 동원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던 것이다. 그들은 ‘폭도 진압’을 그럴듯한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저수지에서 수영하던 학생이나 길 가던 아이에게까지 총부리를 겨눠 무차별로 난사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언론은 정부의 통제 속에서 마치 군대가 광주에게 평화를 안겨주는 것처럼 왜곡했고, 이 모든 일의 주동자인 전두환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죽어버리고 말았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여전히 살아 있음에도, 왜 그들은 아직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전시를 보며 분노가 차올랐다.

‘40년이 넘게 계속되는 왜곡 앞에서 평범한 학생인 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하고 무력감을 느꼈다. 하지만 바로 나 같은 사람이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것 자체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라는 말을 전일빌딩의 상흔 앞에서 마음에 새길 수 있었다. 새하얀 벽에 남은 선명한 자국들은 40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마치 나에게 잊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았다. 앞으로도 5·18을 덮어버리고 더럽히려는 시도는 다양한 형태로 계속될 것이다. 심지어 더 교묘하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현혹할지도 모르지만, 난 그에 대항하여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다. 거짓에 맞서고 싶다. 그렇게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러고 싶다. 분노와 무력감을 극복하고 거짓에 잠식되지 않도록 스스로 깨어 있는 것. 그것이 광주에서 나고 자란 내가 여전히 고통받는 생존자와 오직 정의를 갈망하며 죽음조차 마다하지 않았던 오월 청춘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방식이자 다짐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생각해 본다. 군사독재에 저항하는 광주 시민들의 의지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의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사건을 조롱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가 누구로부터 온 것 같냐고. 그걸 안다면 절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마음이 문장이 될 때



삶의 멈춤, 그리고 찾은 나의 길

주대규

조선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하기 전, 나는 삶의 방향키를 잡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다. 뚜렷한 목표나 치열한 고민 없이 성적에 맞춰 원서를 접수했다. 내 점수에 맞는 학교와 내가 잘하는 분야의 학과인 수학과에 입학했다. 원래부터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좋아했기에 지금까지 배우던 수학을 더 재밌고 더 깊이 배울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했다. 하지만 1년 동안의 대학 생활은 내가 상상하고 기대하던 생활과는 달랐다. 내가 기대했던 것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과 일상생활과 관련한 수학적 지식을 배우는 즐거움이었다. 하지만 강의실에서 마주했던 내용은 추상적인 이론과 증명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대학 생활에 대한 흥미를 잃었고, 점점 강의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하루 종일 재미만을 위해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던 중, 내 삶을 통째로 멈춰 세운 사건이 일어났다.

늦은 밤에 잠을 자던 중 나의 부주의와 2층 침대의 안전 장치의 문제로 사고를 당했다. 그 이후 6개월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빠근하고 걸을 때 허벅지에 거슬리는 통증이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통증의 범위와 강도가 심해졌다. 나중에는 다리가 저려서 걷지 못할 정도가 되면서 내 몸이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없었다. 병원에서는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다리에 힘이 빠져 넘어지기 일 수 있고 누워만 있어도 엄청난 통증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24시간 동안 계속된 통증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잠에 든 순간이 아니면 나는 통증 때문에 누워만 있어야 했다. 잠에서 깬 순간부터 통증이 나에게 찾아왔고 6개월 동안 나는 극심한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통제에만 의존하며 버텼다. 계속 침대에 누워 생활하며 약에만 의존하며 치료했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수술 이후에도 금식한 통증은 죽고 싶다는 생각만 내 머릿속을 채우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나는 점점 절망적인 생각만 하게 되었다. 계속된 힘겨운 시간을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나는 지치고 무너졌다. 그때 나의 미래는 암울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방안 같았다. 계속해서 나는 재활과 치료를 위해 다양한 병원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을 찾아가며 치료를 받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결국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과정조차 순탄하지 못했다. 수술을 위해 입원 날짜를 정하고 검사를 하던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 그로 인해 모든 일정이 미뤄졌다. 희미하게 보이던 출구가 다시 가로막힌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수술을 위해 찾아갔던 병원에서 다시 집으로 향하던 나는 차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우여곡절 끝에 힘겹게 수술을 마치고 병실에 누워있던 나는 기적을 경험했다. 6개월간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나를 괴롭히던 끔찍한 통증이 거짓말처럼 아주 깨끗이 사라졌다. 나는 너무 행복해서 나는 벅차오르는 행복에 눈물이 났다. 하루 종일 입에서 웃음이 멈추지 않았다. 통증이 없이 걸을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행복하고 평범한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기대가 내 마음을 채우면서 벅차올랐다. 수술 후 회복하는 기간 동안 내가 무의미 없이 보냈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값진 시간인지 깨달았다. 그날의 벅찬 행복감은 내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꾸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육체적 고통에서 해방되자 비로소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계속 생각났다. 그때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생각으로 회복 기간을 보냈다. 나는 무의미하게 흘러보내는 시간을 멈추고 삶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목표로 살고자 하는가. 그리고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과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했다. 어린 시절부터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컴퓨터에 대해 배우고 탐구하여 게임을 하며 즐기는 일이었다. 이러한 나의 흥미와 장점의 발견이 지금 현재 내가 조선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다니는 이유이다.

현재 나의 대학 생활은 예전처럼 강의실에 앉아 시간을 때우는 생활이 아니다. 현재의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고, 대학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직접 일을 찾으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내가 목표한 일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찾아보고 노력하는 과정이 재밌고 즐겁다. 이러한 삶에 대한 태도 변화는 단순히 대학 생활 변화에 그치지 않고 평소 일상생활에 변화를 가져왔다. 내 몸을 지키고 다시 다치지 않기 위해 평소에도 조금의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삶을 살아가며 이전의 생활처럼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기 위해 모든 일에 열심히 노력하며 책임감을 보이는 생활을 하고자 한다. 힘든 일이나 위기에 봉착했을 때는 한 번 멈춰 나 자신에 대해 돌아보고 문제점을 찾고, 고치고자 한다. 이러한 다짐을 항상 떠올리며 생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6개월의 시간은 역설적이지만 내 인생에서 의미를 찾게 해주는 인생에서 버릴 수 없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흘러만 가던 삶이 내가 목표와 방향을 잡고 향해하는 삶으로 바뀌는 바람직한 시간이 된 것이다. 그 멈춤은 내 자신에 대해 마주하고 생각하며 내 삶의 의미를 찾는 시간으로써 지금은 그토록 바라던 평범한 일상에서 내 의지대로 힘차게 살아가며 앞으로의 미래의 삶을 꿈꾸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중이다.

2025 우수에세이 공모전

마음이 문장이 될 때

동상



●
멈춤의 1년 반, 나를 만드는 시간

●
나의 기분조절자, 제과제빵

●
어른이 된다는 건

●
변하지 않을 마음

●
바퀴 궤적의 끝에서 발견한 새로운 시작

●
이방인으로 살아가기

●
가족의 사고를 통한 깨달음

●
무대 위, 나를 발견하다.

●
낮선 땅에서 찾은 소중함

●
내 삶의 작은 스승 돈

●
다시 시작할 용기가 불러온 새로운 성장

●
롤모델

●
그리움을 품고 살아가는 법

●
목적지의 부재, 부유(浮遊)의 미학

●
오늘을 살아낸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
일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 에버랜드

●
사라진 이들과 남겨진 신발들

●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무용 프로그램

●
소산(消散)

●
챗GPT, 단순 도구를 넘어 학습 파트너로...

마음이 문장이 될 때



멈춤의 1년 반, 나를 만드는 시간

국예슬

나는 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며 북적이는 공간에서 에너지를 얻는 성향이였다. 이런 나를 변하게 한 것은 코로나였다. 고등학교에서 대학 시기로 넘어가는 해에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시되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식마저 반에서 조용히 치러야 했다. 코로나로 바깥 생활이 어려워지자,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했던 나는 깊은 무기력에 빠졌다.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더는 이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에 휴학을 결심했다.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싶었고, 무작정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렇게 나는 짐을 꾸려 큰엄마가 계신 시골로 향했다.

곡성에 있는 큰엄마 댁 주변에 도착해서 주위를 둘러보니 온통 산뿐이고, 마트도 하나 없었다. 어릴 때 시골에 살았었지만, 그때는 시골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어디 가고 흙냄새와 풀 냄새, 드넓은 산에 매료되었다. 밤에는 우리 집에서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을 바라보며 나를 옥죄었던 것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 마침 내가 그곳에 도착한 날은 마침 큰엄마가 집 짓기를 시작한 때였다.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나는 자연스럽게 그 일을 돕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처음으로 집 짓는 일을 도왔고, 그 경험은 걸만 치장하기 바빴던 나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집의 뼈대만 있는 곳의 땅 밑 벽에 방수 페인트 칠하는 일을 했다. '어차피 흙으로 덮으면 보이지 않는 곳인데 왜 페인트를 칠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습기와 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다. 이 작업을 하면서 내면의 단단함이 건강한 사람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초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나보다 남을 더 챙기고,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지냈던 지난날들을 돌이켜 보니 내 마음이 단단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물론 일은 고되고 몸도 힘들었지만, 열심히 몸을 움직이는 동안 복잡했던 생각들은 신기하게도 사라졌다.

철근을 나르고 주변 청소를 하는 일도 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힘이 세다고 생각했고, 나 역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무리해서 일을 했다. 결국 과하게 철근을 들다가 손목 힘줄이 늘어나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 일로 나는 집이 거의 완성될 때까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집에 있기 싫어 무작정 내려왔지만, 결국 힘들어서 도망쳤던 환경과 비슷한 상황으로 돌아간 셈이었다. 마치 성장에 도달할 때까지 누군가 의도적으로 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주는 듯한 기분이었다. 고등학생 때도 비슷했다. 주변 사람들은 변하는데 매 학년 나에게는 똑같은 힘든 상황이 찾아왔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힘들지 않았고, 마음이 평온했다.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던 마음이 오히려 나를 다치게 했다. 그렇게 며칠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교훈을 얻었다.

집이 거의 다 완성되고 이제는 집 외벽을 페인트칠했다. 한번 해봤다고 이제는 옷에 덜 묻히는 나를 보며 좀 웃기기도 했다. 높은 곳은 지게차를 타고 올라가 칠했는데, 언제 내가 지게차를 타고 올라가 페인트를 칠하겠는가. 외벽 페인트는 보이는 곳이기에 더 꼼꼼하게 칠해야 해 총 두 번 칠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순서가 있다. 집을 지을 때도 내부를 끝내고 외부를 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똑같다고 생각한다. 먼저 내면이 단단해져야 외적인 모습을 가꾸어도 자신감이 생긴다. 많은 일을 겪고 지나간 내 마음속에 상처가 남지만, 그 상처가 치료되면서 같은 상황의 어려움이 줄었다. 이 모든 과정은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했음을 느끼게 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한다. 나 역시 예전에는 그 말에 동의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하나같이 내가 많이 달라졌다고 말하고, 나 역시 스스로 변했다고 느낀다.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불편하게 자리 잡은 감정들이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예전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혼자 밥 먹는 것조차 어려웠다. 하지만 내면이 단단해지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나는, 더 이상 혼자 식당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막이 감도는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진다. 1년 반의 시간이 내게 가르쳐준 것은,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상황이 결국 나를 단련시키는 소중한 경험이라는 깨달음이었다. 이제는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이 나를 성장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제 알게 되었다. 나 자신이 단단해야 다른 사람도 더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그 변화는 나를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힘이 된다고 믿는다. 이제 학교로 돌아와 대인관계를 맺을 때에도, 타인의 기대나 시선에 얽매이기보다 내면의 기준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군가 나에게 25살이 되도록 대학 졸업도 안 하고 뭐 했냐는 질문을 해도 주눅이 들지 않는다. 그 1년 반의 시간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값진 경험이 되어 나를 성장시켰으니 말이다.



나의 기분 조절자, 제과제빵

김규리

나의 기분 조절 어려움은 고2 때 시작되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낳았던 불안감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졌다. 어느 날 기분이 끝없이 우울해져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수업 시간에 소리 없이 우는 날이 있었다. 또 어느 날은 기분이 한없이 올라간 상태가 되어 교실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돌아다녔다. 그렇게 기분이 올라간 날에는 교무실을 배회하면서 안면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고, 평소엔 하지 않는 과소비를 하기도 했다. 이런 증세들을 아신 부모님은 병원의 도움을 받게 하였고 치료는 고3까지 계속되었다. 담당의와 여러 상담을 통해 ‘기분을 컨트롤 하는 방법론 약물치료의 영향이 크지만, 기분을 안정시키는 활동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후 나는 기분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제과제빵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본 한 애니메이션 덕분이었다. 밀가루, 설탕, 계란, 버터와 같은 단순한 재료들로 케이크, 쿠키를 멋있게 만들어내는 모습이 무언가 만드는 것을 좋아했던 나의 욕구를 자극했다. 어느 날 유튜브라는 동영상 플랫폼이 급 떠오른 후 제과제빵을 하는 홈베이커들이 레시피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나는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제과 품목들을 검색해 레시피 영상들을 찾아보았다. 그 후 하나씩 재료를 구매 만들어 보았다. 제빵에 대해서는 아직 무지했지만 쿠키류들과 조금 더 나아가 슈크림과 같은 제과류들을 만들 수 있었다. 12살의 어린 나에게는 낯선 재료들과 공정들이었지만 재료와 만드는 방법과 순서를 지키며 하나씩 따라하다보면 얼렁뚱땅 완성이 만들어 지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또, 흥미로웠다. 제법 괜찮은 모양과 맛이 나올 때면 주변 친구들에게 선물해주기도 했었다. 맛있다고 좋아하는 친구들의 반응을 보는 게 좋았다. 제과제빵을 통해 누군가에게 나의 노력을 인정받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았다.

제과제빵은 중학교 때까지 나의 취미였다. 하지만 글루텐을 활성화시켜 풍미와 식감을 완성하는 제빵은 중학생 때까지도 제대로 해내기 어려웠다. 그래서 당시에는 마카롱과 같은 고난도 제과류를

주로 만들곤 하였다. 제과제빵 용어와 공정 하나하나에 익숙해졌고 실력이 아주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제과제빵에 투자할만한 시간이 자연스레 부족해졌고 제과제빵을 할 기회와 멀어졌다. 그래서 아주 가끔 마카롱을 다시 만들며 따분함을 달래곤 했다. 그렇지만 제한된 시간과 얼마 남지 않았던 재료들로 나의 기분을 달래기엔 충분하지 않았나보다. 결국 고2 때 기분 조절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렇게 기분 조절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조증 삽화를 겪을 때, 다시 말해 기분이 올라갔을 때, 학교만이 아니라 집 밖도 배회하며 여러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 시기에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무상으로 진행했던 케이크 아이싱 원데이 클래스를 해보게 된다. 오랜만에 해보는 제과제빵에 나는 큰 흥미를 느끼며 참여했고 클래스를 진행하던 선생님들은 나의 실력을 보며 크게 감탄하면서 직업학교 위탁교육을 권해주셨다. 당시에는 그 말이 크게 와닿진 않았지만 고2 말이 되고 점점 떨어지는 성적과 앞으로 고3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싶은 불안한 감정들이 다시 나를 괴롭혔다. 그때 다시 떠오르게 직업학교 위탁교육이었다. 뒤늦게 내가 클래스를 받았던 학교의 모집 요강을 찾아봤지만 이미 마감된 후였다. 나는 다른 직업학교를 찾아보았고 마침 한 직업학교의 제과제빵 과정 여석이 남아있었다. 필요한 절차를 밟고 고3 새학기부터 직업학교로 등교를 하게 되었다.

직업학교 위탁교육은 고용노동부가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 직업 전문 교육이다. 나는 직업학교 교육생 신분으로 학교가 아닌 직업학교로 등교해 실무 수업을 들었다. 그 과정을 통해 오랫동안 막연하게 꿈꿔왔던 빵도 만들어 보게 되었다. 강력분, 소금, 설탕, 이스트, 물과 같은 재료들을 넣고 글루텐이 잡힐 때 까지 반죽기로 치댄다. 발효를 통해 풍미와 식감을 증가시키고 다시 분할, 성형, 발효, 굽기로 마무리한다. 이처럼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하나씩 빵을 완성시키는 과정이 즐거웠다. 위탁교육을 하면 할수록 나의 기분 역시 점차 안정되었다.

위탁교육을 통해 여러 품목을 만들면서 친척들에게도 종종 빵을 선물했다. 처음에는 남은 빵들을 자연스럽게 가져다 드리는 정도였지만, “규리야 정말 맛있어. 고마워!”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오랜만에 반가운 부딪힘을 느꼈다. 나누는 것에 대한 기쁨이 커지면서, 점차 시간을 내어 쿠키나 빵을 따로 만들어 나눠드리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나중에는 재료비에 보태라며 용돈을 주시기도 하여 더 즐겁게 제과제빵을 하게 되었다. 직업학교 교육은 자격증 취득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필기시험을 위한 짧은 공부는 물론, 제과제빵 각각 20개에 육박하는 실무 품목의 레시피를 모두 숙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과정들조차 큰 스트레스 없이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바라왔던 제과기능사와 제빵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성인이 된 후에는 제과류나 제빵류를 만들어 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제과제빵에 관심이 많던 이모는 직접 펜션에 전용 공간을 만들고 나에게 제과제빵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셨다. 나는 직업학교

레시피와 나만의 레시피를 알려드리며 함께 만드는 수업을 진행해보기도 했다. 이모는 굉장히 좋아하셨고 지금도 여러 품목들을 더 배우고 싶어 하신다. 나 역시 이모네 제과제빵 공간을 좋아한다. 집에서 또한 제과제빵을 계속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비와 용돈을 모아서 작은 반죽기와 오븐을 장만해 집에서도 즐겁게 제과제빵을 하고 있다.

대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제과제빵은 내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대학생인 나에게 제과제빵이 갖고 있는 식품적 요소와 생물적 요소들은 생물 전공수업과 식품 관련 교양수업을 들을 때에도 많은 도움과 학습을 위한 동기부여가 됐다. 그리고 ‘매체와 의사소통’ 수업에서 제과제빵을 주제로 글을 쓴 것이 바로 이 에세이다. 또, 제과제빵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사는데 필요한 재료비는 생산적 활동인 아르바이트를 지속하는 원동력이 되어 7개월째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다. 나에게 있어 제과제빵은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존재지만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고 나의 기분 조절자로서 나의 기분을 안정시키고 좋은 상태로 유지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고마운 존재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앞으로도 제과제빵을 통해 나의 내면과 삶을 더 같고 닮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어른이 된다는 건

김도연

누구는 그냥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 때가 있다. 그럴 때 나는 새벽에 나가 걸으며 노래를 듣는다. 그 노래는 바로 〈어른이 되는 중〉이다. 이 노래의 가사는 내가 차마 입 밖으로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정확히 대신해 주고 있다. “버릇처럼 슬퍼요. 울고 싶나봐. 어떡하면 괜찮을까요.” 노래 속 목소리는 너무도 담담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마음을 무겁게 한다. 노래의 제목처럼 우리는 어른이 되는 중인가 보다. 이제는 소리 내어 우는 방법도 잊어버렸으니 말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고통을 더 깊은 곳에 숨기게 된다. 우리는 어쩌면 바다와 닮았다. 겉으로 보기엔 잔잔하고 아름다워 보이더라도, 그 깊은 곳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어둠과 소용돌이가 있다. 모두가 그런 심연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참 슬프면서도 아프다.

나의 아버지는 가부장적이었고, 나는 그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향과 욕설, 그리고 손찌검을 견뎌야 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 들어가는 일이 늘 두려웠다. 가로등 하나 없는 골목을 지나 도착한 곳은, 돌아가고 싶지 않은 집이었다. 그 시절의 집안 공기는 늘 차가웠다. 조그마한 소리에도 금방 터질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나는 조용히 숨을 죽이며 지냈다. 아버지가 화가 난 날이면 거친 말이 쏟아졌고, 끝내 감정은 손찌검으로 끝났다. 집은 편안하고 따뜻한 곳이 아니라, 버텨내야 하는 곳이었다. 나는 그렇게 나 자신을 잃어갔고, 어느새 깊은 바다 아래로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다.

결국 나는 도망쳤다. 중학생이 되었을 때, 기숙사가 있는 체육중학교로 진학했다. 가족에게서 멀어지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 하지만 그곳도 다르지 않았다. 다른 친구들이 6교시, 7교시를 보내는 동안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운동을 했다. 감독님과 코치님의 비교와 질책, 때로는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그 모든 앞에 붙는 말은 항상 같았다.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 견뎌야 해.” 하지만 노력은 언제나 상처보다 늦게 온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노력으로도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

일찍 알아버렸다. 운동선수로 생활하다 보면, 아무리 뼈가 부서지도록 연습한다고 한들 타고난 이들을 이기지 못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는 미웠다. 그 말은 언제나 노력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노력한 사람의 마음을 더 다치게 한다.

그렇게 나는 버티고 버티다 2019년도 6월 11일, 17살의 나이에 고등학교를 자퇴했다. 그저 또 한번 도망쳤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다시 한번 달아나고 있는 나를 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다. “나는 어디까지 도망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디쯤에서야 멈출 수 있을까.” 이후로 나는 6개월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낮에는 침대 위에서 휴대폰을 붙잡고, 새벽에는 아무도 없는 거리를 걸었다. 세상과 나 사이에 커다란 벽이 생긴 듯했다. 누구에게도 손을 뻗을 수 없었고, 누구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 곳에 숨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따라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고, 온 세상이 어둠으로 내려앉은 듯 고요했다. 새까만 밤하늘에서 나는 우연히 별 하나를 보았다. 깜깜한 하늘 한가운데, 조용히 홀로 있는 작은 별이었다. 그냥 저 별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도, 여전히 빛나며 버티고 있는 모습이 나와 닮았다고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주 조금씩, 다시 움직여보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찾아, 거기서 다시 시작해 보기로 했다. 선생님들은 내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고, 내가 나아가고 싶은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셨다. 선생님들의 따뜻한 지원 속에서 나는 검정고시를 치르고, 다시 대학 입시를 준비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나는 졸업을 앞두고 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대학 졸업을 앞두기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도망치기도 하고, 버티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다. 그렇게 누군가의 손을 잡고 여기까지 걸어온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을 먼저 잡아주고자 한다. 돌아보면, 나는 나를 자주 닮았다. 왜 그때는 조금 더 버티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도망치듯 선택했을까.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때의 나는, 그 시절의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이미 선택하고 있었다. 그 선택이 서툴렀든, 미숙했든, 결국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러니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말하지 못한 날들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나 자신에게 조용히 말해줘도 되지 않을까. 정말 잘 버텼다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이제는 세상보다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란다.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을 앞둔 지금의 나는, 예전처럼 무작정 도망치지 않는다. 과거의 도망은 나를 약하게 만든 선택이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을 지나오며, 나는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배웠다. 그 경험은 지금의 나에게 작은 목표라도 끝까지 ‘버텨내는 태도’를 가르쳤다.

지금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감정이 생겨도, 나는 예전처럼 도망치기보다 하루만 더, 한 걸음만 더 남아 있으려 애쓴다.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버티는 일은 도망치는 일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여기까지 걸어온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을 먼저 잡아주고자 한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를 완전히 구해내지 못하더라도, 더 깊이 가라앉지 않도록 잠시 붙잡을 수 있는 작은 부표가 되기를 바란다.

결국 어른이 된다는 건, 과거의 상처를 부정하지 않고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며, 그 경험으로 타인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용기를 갖는 일이다. 나는 아직 완전한 어른은 아니지만,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변하지 않을 마음

김민영

상담심리사는 나의 오랜 꿈이었다. 한때 깊은 우울감을 경험했던 시기가 있었고, 학교 프로그램 참여로 우연히 받게 된 위클래스 상담이 나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 뒤로 이어진 몇 차례의 상담을 통해서 비록 당장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나의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며 위로가 된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다. 나의 힘들을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외로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마음으로 중학교 '또래 상담부' 동아리 부원으로도 활동하면서 점차 상담심리사의 꿈을 키워나갔다.

자연스럽게 심리학과로의 진학까지 생각하며 별다른 진로 고민 없이 평탄한 고등학교 생활을 하던 중 3학년에 올라가기 전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입원 치료를 하게 되었다. 열흘간 격리병동에서 생활하면서 갑갑한 방호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도 항상 친절하고 꼼꼼하게 환자들을 살펴주시는 간호사분들께 깊은 존경심이 들었고, 이곳에서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퇴원 후 진로 변경에 대한 신중한 고민 끝에 간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고, 나의 바람대로 간호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다.

간호학과 3학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간호학 과목들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중 내가 가장 흥미를 느꼈던 과목은 정신 간호학이었다. 오랜 꿈이 상담심리사였던 만큼 심리학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관련 책도 많이 읽어왔던 터라, 배경지식을 가지고 수업을 들으니 더욱 이해가 쉬웠고 복습하는 시간도 즐거웠다. 수업 내용이 심화 과정으로 들어갈수록 정신 간호학 과목이 나와 잘 맞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그럴 때마다 자연스럽게 예전 꿈이 생각나기도 했다. 이론 학습을 하면서 실습 활동에 대한 기대도 하게 되었고,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하는 마음 반 설레는 마음 반으로 실습을 준비했다.

처음 정신과 폐쇄병동으로 실습을 나가는 날, 솔직히 무서웠다. 폐쇄병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으스스함도 있었거니와, 실습생이 환자에게 맞았다더라. 퇴원한 환자가 실습생을 찾아갔다더라. 하는 소문 때문에 겁이 나기도 했었다. 하지만 환자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라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내가 필요 이상으로 그들을 경계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름 정신질환에 대해서 배우고 온 학생 간호사인 나조차도 적잖은 편견이 내재해 있었던 것 같아 부끄러웠고, 이후로 환자들을 조금 더 수용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병동 환경에 적응을 마치고 나서는 환자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며 라포를 형성했다. 환자들과 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더 편해졌고, 내 가족들과 비슷한 나이 또는 성격의 환자를 보면서 환자에 대한 치료자의 무의식적 감정 반응인 ‘역전이’ 현상을 경험하기도 했다. 동생과 비슷한 또래의 환자에게 자연스럽게 반말이 나오고 더 잘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거나, 지역 사투리를 많이 쓰는 환자에게서 할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여 실습을 끝내고 귀가한 뒤에도 환자가 생각나기도 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문득 내가 치료자로서 부적절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자각했고, 환자와의 적절한 심리적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환자와 간호사 모두를 위해서 중요한 일임을 체감했다.

실습 과정에서 내게 감정적으로 가장 큰 울림이 있었던 사건은 두말 할 것 없이 중재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었다. 나와 조원들은 정신 간호학 실습을 나온 학생 간호사로서 병동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정신 간호 중재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프로그램 제목은 ‘나의 마음 트리 만들기’로, 먼저 나무를 그리고 나뭇가지에 나를 표현하는 단어 또는 나의 현재 마음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적은 다음, 색연필과 스티커를 사용해서 트리를 꾸며보는 활동이었다. 폐쇄병동에서 생활하느라 답답함을 많이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조금이나마 계절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형형색색의 낙엽도 준비해서 트리를 꾸미는 데 사용하실 수 있게끔 했다. 환자분들이 나뭇가지에 적은 단어들을 바탕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마음 트리를 만든 후 기분이나 감정에 변화가 있었는지도 여쭙보았다. 환자분들께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다행이었다. 트리를 꾸미면서 묘하게 들뜬 말투와 미소 짓는 얼굴을 발견할 때마다 나도 덩달아 기뻛고 부듯했다. 활동이 끝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씀해 주실 때는 정말이지 행복했다.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친 뒤에도 계속 여운이 남아 조원들과 한참을 이야기했다. 즐거워하시던 환자분 표정이 떠오르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고 마음이 몽글몽글해졌다.

사실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진급을 목전에 두고 진로 방향을 튼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었다. 간호사도 진심으로 되고 싶은 직업임에는 분명하지만, 과연 내가 선택한 길이 맞을까, 가지 않았던 길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이따금 했었다. 하지만 간호학과에 진학해서 정신 간호학을 공부하고 실습까지 마친 지금은 어쩌면 나는 나만의 길을 잘 찾아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아직 내게는 실컷 헤매어도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정신병동 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부서 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 다시 돌아서 상담심리사에 도전할 수도 있다. 물론 아예 생뚱맞은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크게 바꾸어 놓기도 하니까. 열세 살부터 품어왔던 상담심리사의 꿈을 내려놓고 간호사가 되기로 결정했던 열아홉의 나처럼 말이다. 그럼에도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변하지 않는 마음속 본질을 확인했으니, 앞으로 내가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더라도 이전처럼 선택을 후회할까 봐 걱정하지는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외로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또래 상담부원으로 활동하던 중학생이 전인적인 돌봄의 가치를 실천하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함양하는 대학생이 되기까지. 끝없는 걱정 속에 많이 헤매었고 또 많이 헤맬 예정이지만 이제는 변하지 않을 마음을 가지고 나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바퀴 궤적의 끝에서 발견한 새로운 시작

김윤성

어린 시절, 제게 장난감 자동차는 단순한 놀잇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굴러가는 바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잡한 회로와 수많은 부품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런 순수한 호기심은 자연스럽게 자동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이어졌고, 언젠가 저의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 꿈을 향한 첫걸음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운 좋게도 졸업 전 저는 자동차 전장 부품 분야의 선도적인 기술 기업에 2년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안정적인 정규직이 아니라는 주변의 우려도 있었지만, 제게는 그것이 한계가 아니라 오히려 성장만을 위해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2년이라는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저의 잠재력과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입사 후 1년 동안, 저는 전자 시스템 팀에서 카티아(CATIA)를 활용한 금형 설계 보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컴퓨터 화면 가득 채운 수많은 선과 숫자를 보며 저는 매일 정밀함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단 0.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완벽함이 곧 최종 제품의 완성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작은 실수 하나가 생산설비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저를 극도로 꼼꼼하고 논리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복잡한 도면을 완벽하게 완성했을 때,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를 통해 완벽을 추구하는 시간이야말로 저의 꿈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길임을 직감했습니다. 이 시간은 제게 이론적 전문성을 선물했고, 저는 꿈에 그리던 자동차 전문가가 되어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직 중요한 경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금형 설계 보조를 하던 저는 연구소와 생산 공장 현장, 해외 생산 공장에서 실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A/S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현장은 완벽했던 설계 도면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정돈된 사무실을 벗어나, 거대한 기계음이 울리는 공장 바닥을 걸을 때면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도면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했고, 저는 직접 장비를 들고 다니며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기술 매뉴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서 좌절하기도 했지만, 저는 현장 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이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동시에, 현장의 소통과 실무적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설계실에서 배운 정밀함에 현장의 유연함을 더할 때 비로소 진정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흥미로운 현장 경험과 함께, 저는 직장 내에서 예상치 못한 시련에도 부딪혔습니다. 팀 내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작은 실수에도 과도한 질책을 받는 등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좌절하기도 했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무너지기보다 저에게 주어진 임무만큼은 완수하겠다는 오기를 부렸습니다. 그 시간은 제게 끈기와 인내심을 가르쳐주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회복탄력성을 키워주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으며 저는 기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끝났을 때, 저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현장에서의 값진 경험을 쌓았지만, 더 넓고 깊은 지식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더 높은 단계의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실무 경험을 넘어, 체계적인 기반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의 2년은 저에게 그 어떤 학교보다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실무에서 정밀함을 배웠고, 현장에서 유연함을 익혔으며, 시련을 통해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은 제가 무엇을 배우고 싶고, 왜 배워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조선대학교로 왔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발판 삼아, 저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동차를 향한 한 소년의 열정은 2년의 여정을 거쳐 이제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단단한 열정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으로 살아가기

러블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이었다. 내가 태어난 1998년 대한민국에서의 외국인은 대부분 '타국에서 태어나 국내에 입국해 거주하는 경우'였다. 대학병원 신생아실에는 검은 머리에 하얗거나 붉은 피부를 가진 한국 아기들이 나란히 누워 있었고, 나는 그 사이에서 어두운 피부에 검은 곱슬머리를 가진 작은 팔삭둥이였다. 순수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아기를 낳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정보를 구하기 어려웠던 당시, 부모님은 아이가 국내에서 출생했기에 한국 국적이 부여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나는 한국 국적을 받지 못했다. 다만 굳이 필요하지 않았기에 그 문제는 뒤로 미뤄졌다.

나는 작게 태어났지만 부모님의 사랑과 유전적인 이유인지 또래보다 머리 하나는 컸고, 성숙한 외모를 가졌다. 어학연수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개인사업을 하던 아버지는 자녀들이 언어 때문에 고생하지 않길 바랐다. 그래서 나는 돌이 지나자마자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다. 다행히 말을 배우는 시기에 한국인들 사이에서 지냈기에 한국어를 문제없이 익히고 구사할 수 있었다. 내가 문제없이 다니는 모습을 보고 연년생인 남동생도 어린이집에 오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한국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순조롭게 입학한 줄 알았지만 큰 문제가 있었다. 나와 동생은 한국어를 잘 구사하고 알아들었지만 읽고 쓸 줄 몰랐다. 일반적인 한국 가정에서는 읽기·쓰기 교육을 미리 하지만, 사업을 하던 아버지와 한국어를 전혀 모르던 어머니, 그리고 우리가 다녔던 어린이집·유치원·주변 어른들 모두 그 부분을 놓친 것이다. 결국 동생까지 입학하고 난 뒤에서야, 교내에 외국인 학생들을 모아 한국어반이 개설되었고 우리는 뒤늦게 한국어와 학교 공부를 시작했다. 이 무렵 외국인 학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일이 많아졌고, 이후 시에서 각 학교 외국인 학생들을 모아 한국문화 교육과 체험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부끄럽지만 금슬이 좋았던 부모님은 동생을 계속 가지셨고, 또 한 명, 또 한 명 동생이 태어났다. 부모님은 사업을 열었다 정리했다를 반복하며, 여유롭진 않지만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사업까지 하던 아버지는 자신보다 한국어를 잘하는 나에게 최선을 다해 지원해주려고 노력하셨다. 하지만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이 명확히 잡히기 전이라, 나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아버지는 점점 소극적으로 변한 나를 위해 옆 동네 학교로 전학을 보내주었지만, 3년 동안 위축되어 살아왔기에 나는 또래보다 키가 크고 외모가 성숙했음에도 당당하지 못했다. 전학을 가도 학원에서 퍼진 나에 대한 소문이 그대로 따라왔고, 결국 또 따돌림을 겪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일이 생겼다. 지금도 눈에 선한 기억이다. 한국어를 전혀 못 하던 어머니께서 어린 동생을 안고 학교로 오셨고, 담임 선생님과 대화를 나눈 뒤 나를 데려가셨다. 당시 임신 중이셨기에 집에만 계셔야 했던 어머니가 다급하게 움직이셔서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이유를 물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영어를 완전히 잊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어를 빨리 배우기 위해 영어 사용을 극단적으로 줄였고, 긴 학교생활과 방과 후 활동 속에서 하루 종일 한국어만 쓰며 지냈기에 어느 순간 동생과 나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를 통해 가정통신문을 전달해야 했고, 학교 관련 일들은 대개 아버지가 맡으셨다.

어머니가 11살이던 나를 데려간 곳은 출입국사무소였다. 처음 가는 곳이었다.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모른 채 따라갔고, 한국어로 상담과 대화를 나눴다. 분명 내가 아는 한국어였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한참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내가 이해한 것은 “아버지가 해외로 추방된다”는 말이었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상냥한 아버지와 다르게 엄했던 어머니가 계속 울고 계셨다. 모두가 울고 있었기에 나는 오히려 덤덤해졌다. 어린 나이였지만 상담사에게 가족 상황을 설명했고, 아버지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어머니께 더듬거리며 이렇게 말했던 것 같다. “이렇게 울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어떻게 영어로 이 말을 전했는지 지금도 모르겠다. 하지만 어머니는 알아들으셨고, 우리는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아버지는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어머니는 임신 중이라 일을 할 수 없었고, 설상가상 아버지가 무리해서 집을 마련했던 탓에 잔금을 준비해야 했다. 국내 체류 신분이 바뀌면서 우리 형제의 학교 재학 또한 불분명해졌다. 다행히 초등학교는 그대로 다닐 수 있었지만, 동생들이 다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모두 퇴소해야 했다. 한국어를 하지 못하던 어머니는 갈 곳을 몰랐고, 다행히 다니던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 동생들은 사설 외국인 돌봄을 받을 수 있었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그해, 어머니는 혼자 가방을 챙겨 막내동생을 출산하고 돌아오셨다. 작은 반지하 원룸에 여섯 명이 살아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옛말처럼 어떻게든 살아졌다. 주변 어른들의 도움 속에 어린 동생은 건강하게 자랐다. 그 무렵 나는 외국인 아역단역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공부에 뜻이 없던 나와 남동생은 자주 방송국을 드나들었고, 이 경험은 아직도 즐거운 추억이다. 이 때의 경험은 어렸던 나를 급격하게 성숙하게 만드는 사건이었다. 이 기점으로 가족과 한국 사이의 연결점이 되어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고 표현하게 되었다. 모든 순간이 문제였기에 항상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고 해결책을 바로 찾는 행동을 가지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법적 문제가 조금씩 완화되었고, 어머니도 한국어를 공부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처럼, 어머니는 옷을 만들고 음식을 팔며 생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진 않았다. 해외로 간 아버지와 연락이 끊기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등 어머니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다. 그럼에도 다섯 남매의 엄마는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어두운 일이 또 찾아왔다. 성숙한 외모를 가진 큰딸이었던 나에게 불편한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13살이었지만 운동을 좋아했고 키도 크고 날씬해서 성인으로 오해받기 일쑤였다. 그래서 어머니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애쓰셨지만, 생계를 위해 타지로 나가야 했고 나는 동생들과 남아 있어야 했기에 어머니는 불안해하셨다. 결국 높은 물가와 우리의 안전 문제로 살던 곳을 떠나야 했다. 우리는 서울을 벗어나는 데 반대했지만, 힘이 없었고 어머니의 결단으로 이사를 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우리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되었다.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이사한 도시는 아이들을 위한 복지와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었고, 외국인이 거의 없었기에 오히려 모두의 관심과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어느 정도였냐면, 막냇동생이 어머니가 보고 싶다며 말도 없이 사라졌을 때, 두 시간 동안 찾아 헤맨 끝에 우리를 건너 건너 알던 사람이 지인에게 연락해 동생을 찾아줄 정도였다. 모두의 보호 속에서 미래는 여전히 불분명했지만, 우리는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나 또한 또래 친구들처럼 미래를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지나 어머니의 일 때문에 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시골이었다. 도시에서만 자라온 우리에게 운동장에서 바로 보이는 밭, 코골을 스치는 거름 냄새는 큰 충격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순한 사람들, 낮은 물가,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이 익숙해졌고, 결국 그곳은 우리 가족의 두 번째 고향이 되었다. 정착했던 이 도시는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즈음 개발이 시작되었고, 예전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변화했다. 사람들의 지원과 응원을 받으며 나는 어느새 어른이 되었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안은 채 사회로 나가 취업을 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졸업 전, 현장실습을 통해 조기 취업을 했다. 특성화고에서 상위 3% 안에 들었고, 삶이 평탄하지 않았기에 사회생활도 큰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사회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따뜻했지만,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나는 일머리가 전혀 없었고, 구성원의 90%가 여성이었던 회사는 불필요한 기 싸움도 빈번했다. 그럼에도 쉽게 그만둘 수 없었다. 어머니가 혼자 짊어지고 있던 짐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버티다 보니 어느새 7년이 흘렀다. 이 시간은 허점을 메울 경험을 하기엔 충분한 시간이었다. 열심히 보단 잘 하는 법을 배우고 고민했으며, 무엇보다 실수에 대한 마음가짐을 정립할 수 있었다.

직급은 변하지 않았지만, 월급과 업무의 비중은 조금씩 달라졌다. 어느 순간 신입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고, 어느 순간 다양한 업무를 맡아 올라온다가 되어 있었다.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일을 해내기 위해 하나씩 배워 가는 과정이 나를 바꾸었다. 실수와 부족함으로 혼날 때마다 내가 지나온

시간을 떠올리며 버텼다. “예전보다는 괜찮다.”, “할 수 있는 게 어디냐.” 이런 생각을 하며 견디다 보니, 질책은 점차 칭찬으로 바뀌었고, 사장님께 혼나던 내가 어느새 사장님을 다그칠 만큼 성장해 있었다. 힘들었던 직장이었지만, 퇴사 후 만난 새로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고, 그 과정 속에서 미성숙했던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러던 중,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대학에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준비 과정은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는 두려움과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지만, “무엇이 나와 맞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시간이었다.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전문대학교에 진학했고, 전공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학회장을 맡는 경험도 했다. 공부는 재미있었고, 더 큰 도전을 꿈꾸게 되었다. 그런 나를 지켜본 교수님들이 편입을 추천해 주셨고, 그렇게 새로운 환경에 들어오게 되었다.

편입 후의 삶은 치열했다. 외국인이라는 한계, 늦은 나이, 비전공자라는 꼬리표가 나를 따라다녔지만, 7년간의 사회생활로 다져진 끈기와 이방인으로서 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던 생존 본능은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도 빛을 발했다. 낯선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습관은 공간과 사물을 다각도로 해석하는 나만의 무기가 되었다. 학회장을 맡아 리더십을 발휘하고, 며칠 밤을 새워가며 졸업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는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주눅 든 이방인이 아니었다. 과거의 내가 살아남기 위해 환경에 나를 맞췄다면, 지금의 나는 주체적으로 공간을 설계하고 내 삶을 디자인하고 있다. ‘이방인’이라는 정체성은 이제 나를 설명하는 수많은 배경 중 하나일 뿐, 결코 한계가 될 수 없었다. 졸업전시를 마친 지금, 나는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다. 어두운 피부와 곱슬머리의 이방인이 아닌, 단단한 내면과 실력을 갖춘 사회인으로서 당당하게 내 몫을 해나갈 것이다.



가족의 사고를 통한 깨달음

민금홍

대학교에 들어가고 난 후 여름방학,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내용은 다름 아닌 큰누나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다. 우리 집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군가 사고가 난 적이 없어 처음에는 그 전화를 받고 많이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나중에 병원에 갔을 때, 누나는 크게 다쳐있었다. 직장에서 일하던 큰누나가 오랜만에 집에 들렀다가 택시를 타고 광주 송정역에 가던 중에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것이었다. 그렇게 큰누나는 목뼈가 2개 부러지는 중상을 겪게 되었고, 의사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운이 나빴다면 평생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었다고 한다. 큰누나는 2달 정도 입원을 해야 했고, 다행히 병원이 집이랑 가까이 있어 어머니가 출근하는 시간대인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내가 누나를 간병하였고, 오후부터 오전까지는 어머니께서 간병하셨다. 어머니는 잠, 출퇴근까지 모두 병원에서 하셨다.

처음 간병을 할 때는 처음이어서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들었지만, 생각보다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주로 내가 했던 일들은 혼자 눕고 일어나지 못하는 누나를 일으켜주거나 눕혀주는 일, 그리고 누나의 심부름을 주로 했었다. 솔직히 말해서 간병 자체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오전 11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보내는 지루함과, 누나를 걱정하며 병원에서 주무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 11시부터 6시까지 내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게임하기, 책 읽기, 공부하기 정도밖에 없었고, 어딘가를 갈 수도 없었고, 심지어 침대도 딱딱해 누워 있는 것도 불편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침대에서 주무시며 밤낮으로 누나를 간병하셨다. 사실 나는 누나보다 어머니가 더 걱정되었다. 맑은 날 간단하게 드셨고, 그 딱딱하고 좁은 침대에서 주무신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 주말이라도 집에 가서 쉬시라고 하며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내가 밤새 있으려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혹시라도 누나가 잘못될까 봐 걱정된다며 어머니께서 있겠다고 하셨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행히 누나는 많이 회복하였고, 더 이상 간병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다. 누나의 퇴원까지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나는 개강을 하여 더 이상 간병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퇴원할 때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누나를 간병하셨다. 누나가 입원해 있는 동안 다니던 회사는 누나의 퇴원을 기다려주겠다 했지만 누나가 없는 동안 회사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더 바빠지고 일이 많아지는 것이 미안하고 완치 후에도 남을 후유증 걱정 때문에 결국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처음에는 택시기사님이 너무나도 미웠다. 누나를 다치게 한 것도 모자라서 어머니까지 힘들게 하였다. 나는 방학 동안 주말에는 아르바이트, 평일에는 간병을 하며 쉴 시간을 뺏겼고, 아버지도 맨날 어머니의 출퇴근을 도와주시고 주말에 같이 간병하셨다. 고작 한 명의 실수로 우리 가족은 큰 피해를 보았으며,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택시기사님을 원망하고 있었지만, 일상으로 돌아간 가족을 보고 약간 생각이 달라졌다.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던 일상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처음에는 왜 우리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간병을 하기 싫은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일어나버린 일이고, 이번 사건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는 최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한 그저 평소에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일상에 너무나도 소중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번 사건이 아니었으면 나는 또 평소와 똑같이 살아갔겠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꼈으니 택시기사님도 어느 정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아무리 힘든 일과 안 좋은 일을 겪어도, 각자의 마음가짐에 따라 생각과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작은 것에도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어머니 아버지와 떨어져 살다 보니 방학 동안 병원에서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남들에게는 평범한 방학처럼 보여도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방학이었다.



무대 위, 나를 발견하다.

박수빈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나는 나를 발견했다. 이전에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싫고 부담스러운 마음이었다.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바라볼까 두려웠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연극배우로 참여한 학교 연극에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그들에게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행복했다. 특히 연극의 마지막 부분인 커튼콜 장면이 떠오른다. 밝고 벅찬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 무대를 보면서 열정적으로 손바닥을 부딪쳐 손벽 치던 모습과, 초롱초롱 별같이 빛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그 순간 나는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보며 웃고 있다는 사실이 벅차게 좋았다. 이날 이후로 나는 달라졌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학교 연극부에서 연극배우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았다. 이 글을 보자마자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연기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잘하지 못했다. 항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그렇게 도망치듯 오디션 지원을 미뤘다. 내가 그 당시 즐겨보던 "환혼"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그 드라마에서의 대사가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극배우 지원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부끄러운 건 참으면 계속할 수 있지만, 후회는 마지막 순간에 하는 거라 돌이킬 수 없잖아. 스승님 부끄러운 건 꼭 참고 솔직해져 봐.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 후회를 안 할 거야." (드라마 <환혼>, 18회) 난 이 대사를 보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후회란 마지막 순간에 하는 것이고,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그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겠지'하며 미루고 후회하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다. 이번에도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머리를 맴돌았지만 눈 딱 감고 떨리는 마음으로 연극배우 오디션에 지원했다.

운 좋게 연극배우 오디션에 붙었다. 본격적으로 연기 연습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 연습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내 볼품없는 연기실력이 들통날까 봐 두렵고 불안했다. 내가 공연할 무대에는 마이크가 없었다. 온전한 나의 목소리로 공연장을 채워야 했다. 하지만 항상 선배들께 목소리가 작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소한 부분에서도 지적받다 보니 잘 해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위축되어 갔다. 괜히 지원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못할망정 짐이 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나를 원망했다. 그 모습을 본 동아리 선배는 내 발성 연습을 도와주겠다고 나를 따로 불렀다. 선배와 나는 아무도 없는 고요한 강당에서 플라스틱 의자에 기대며 플랭크 자세를 시도했다. 손은 의자를 잡고 발은 바닥에 곳곳이 세워 배에 힘을 힘껏 주었다. 그리고 “아!”하고 크게 소리를 내뿔었다. 내 목소리는 어느새 강당을 다 채웠다. 선배는 놀란 목소리로 “방금 그게 복식호흡이야. 이대로만 하면 돼.”라며 나를 칭찬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남한테 관심 별로 없다고, 틀려도 괜찮다고 말해주는데 내 고민들이 위로 받는 느낌이 들었다. 다시 연극을 잘 해낼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

연극 당일, 마지막 리허설을 시작했다. 모두 진지한 모습으로 리허설에 임했고 편하게 놀던 무대에는 어느새 긴장감이 가득했다. 연극 본무대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두렵고 불안했다. 아직도 나는 내가 만족할 만큼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이런 나를 보고 실망하진 않을까...?’ 내가 이 무대를 망칠까 봐 무서웠다. 하지만 ‘이미 앞질러진 물이다’라고 생각하며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다. 공연 30분 전, 사람들이 무대 객석을 채우기 시작했다. 스태프 팀에서 현재 객석 사진을 보여줄 때마다 심장이 멈췄다. 너무 많은 사람이 객석을 채우고 있었다. 점점 몰려오는 부담감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공연이 시작되고, 걱정과 달리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하는 것이 재밌었다. 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반응을 얻으며 이 무대를 즐기기 시작했다. 긴장감 속에서 즐기는 내 모습이 신기했다.

공연이 끝난 후, 그동안의 부담감과 걱정이 사라져 후련하고 뿌듯했다. 그 뿌듯함은 그동안 힘들게 고생한 것들이 추억으로 미화되어 남겨질 정도로 좋았다. 그리고 나는 달라졌다. 나는 사람들의 초롱초롱한 눈을 본 순간 정했다. 이전에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도전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보니, 그 뿌듯한 느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좋긴 하지만 아직 두려운 것도 맞다. 나는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반장, 부반장, 동아리 회장, 학생회 부장, 장기자랑 같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들을 하며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아직 현재에도 처음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남아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이 내가 성장하는 데 양분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더 이상 실패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나는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나는 앞에 나서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었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감동을 주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연극을 통해 내가 행복감을 얻는 본질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발전시키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도 나는 나를 발전시킨다. 소극적이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전의 나는 마음속에 깊이 접어두었다. 이제는 내가 행복해지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앞으로 도전적으로 발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서로가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퍼즐처럼 나도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낯선 땅에서 찾은 소중함

신보아

설렘을 안고 찾아간 곳에서 마주한 잊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

고등학생 시절부터 내 꿈은 대한민국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자율적으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밤 10시까지 남아 공부해야 하는 학교생활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진도에 주말에도 다녀야 했던 학원 생활은 공부와는 거리가 멀었던 나와 너무 맞지 않았다. 한 번 선생님께서 “너희들은 집에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기니까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우리에게 하고 ‘안녕히 계세요’는 부모님께”라는 농담을 하신 적이 있다. 나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 웃는 친구들과 사이에서 그만큼 학교에만 있어야 하는 우리에게 대한 묘사가 썩 재밌지 않아 웃음이 나지 않았다. 대학교에 가면 다 할 수 있다는 말도 싫었다. 그 말은 해결 방안도, 위로도 아닌 그저 지금을 참고 견디라는 강요처럼 들렸다. 그렇게 진학하게 된 외국어 관련 학과에서의 생활은 기대와 달랐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기존에 있었던 교환학생 기회들이 전부 사라진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스무 살에 무작정 열흘 정도 일본 여행을 떠났다.

특히 일본을 좋아해서 고른 여행지는 아니었지만, 일본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너무 좋았다. 도쿄에서의 생활은 경적 소리 없는 거리, 조금만 걸으면 보이는 도쿄타워, 친절함 사람들 등 여유로운 삶 그 자체였다. 그곳에서 나는 어떤 걱정을 할 필요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도 느낄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지 너무 자유롭고 편안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기가 싫었다. 돌아오기 마지막 날에 한국인 두 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나의 상황과 닫혀버린 해외의 길 등의 고민을 꺼내놓았다. 나는 아직 너무 젊고 이 나이에 혼자서 해외여행을 오는 게 너무 대단하다는 격려를 해주셨다. 또, 본인도 대학 졸업하고 방향하다 지금의 직업을 갖게 되었는데 남들과 늦게 시작했음에도 그 분야에서 꽤 높은 자리까지 오게 되었으니 절대 조급해하지 말라는 조언도 해주셨다. 일본에서의 기억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온 나는 다시 한번 해외 생활에 대한 꿈을 키웠다.

그러면서 열리게 된 교환학생 모집. 무려 1년이나 독일에 다녀올 기회였다. 몇 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에 망설임 없이 신청했다. 선발되고 난 후, 가기 전까지 독일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았다. 당연히 거기에 가서 생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많이 늘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출국 준비와 소핑 목록에 사로잡혀 언어 공부를 충분히 마치지 못한 채 독일에 도착했다. 그럼에도 당시의 나에게는 두려움 대신 기대와 설렘만이 가득했다. 그토록 바라왔던 순간에 도달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무런 연고지도 없는 곳에서 나만의 공간을 갖춰나가기 위해 사려는 물건들은 어디서 사야 하는지, 어떤 걸 사야 하는지 휴대전화로 검색해 보는 데에만 항상 한 시간은 넘게 걸렸고, 시내까지 버스를 타고 나가 침구며, 청소용품, 식품 등을 모두 사서 손으로 쥔 채 버스를 타야 했다. 심지어 방은 4층인데 엘리베이터도 없었다.

생활이 조금 자리를 잡은 뒤에는 서류 처리의 연속이었다. 학생증, 휴대폰 개통, 비자 발급, 은행 계좌 개설, 보험 가입까지. 하나를 처리해야 차례로 나머지도 처리할 수 있었다. 학생증을 만들어야 시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개통해야 은행 계좌를 만드는데 은행 계좌를 만들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독일은 한국만큼 일 처리가 빠르지 않다는 것이었다. 학생증 발급 기간이 꽤 걸려 없는 동안 입학 허가서라도 대신해서 보여주고 버스를 타고자 했는데, 기사님들 개인에 따라 달라 받아주지 않는 기사님도 있었다. 한 소리 듣는 건 물론, 한국 돈으로 약 3,000원을 내고 타야 했다. 물론 현금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환승을 하려면 돈을 한 번 더 내야 한다.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어 어쩔 수 없었다.

휴대폰 개통은 우리나라처럼 휴대폰 대리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마트에서 구매한 유심에서 QR를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때 이메일을 잘못 입력했는지 아무리 기다려도 개통을 할 수 있는 메일이 오지 않았다. 문의를 남겨봤지만 돌아오는 답장은 없었고, 개통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도 나는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도 없었다. 어렵게 룸메이트인 독일 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친구가 대신 전화를 해줘서야 휴대폰 개통을 마칠 수 있었다. 독일에 카카오톡과 같은 인터넷 은행이 있어 온라인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신권은 인식이 잘 안 되어 계속해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직원들이 많았다. 그러다 가능하신 직원분을 만나 겨우 다음 단계로 넘어간 화상 인터뷰에서는 인터넷 연결이 안 좋다고 인터뷰를 그냥 끊어버렸다. 이런 상황이 여러 번 생기니, 그냥 오프라인 은행에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어떤 은행이 괜찮은지 찾아보고, 예약한 뒤 은행에 방문해 계좌를 개설했다. 계좌를 만든 뒤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자꾸만 이미 독일에 있으면 보험 가입이 힘들다는 말만 돌아왔다. 이것도 내가 독일어가 유창하지 않으니 계속해서 메일을 보냈는데 메일을 받으려면 적어도 3~5일은 기다려야 하고, 당연히 주말에는 아무런 메일을 받을 수 없었다. 세상에서 메일을 그렇게까지 기다려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다. 이걸 정말 빨리 해결해야 했는데 연락할 수단이 메일밖에 없으니, 자다가도 메일 오는 소리에 새벽 5시에도 바로 일어날 정도였으니 말이다.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봐도 나오지 않은 나와 같은 사례는 나오지

않았고,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지’하는 고민이 깊어졌다. 결국, 나는 독일에 온 지 한 달 만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졌다. 그러던 와중 보증을 가입시켜주는 중계 회사에 한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직원분이 있으셔서 상황을 설명한 뒤 겨우 해결할 수 있었다.

이 이후에 독일 생활도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다. 어디를 가더라도 “니하오”, “곤니찌와”같은 인종 차별성 발언은 일상이었다. 한 번은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는데 꼬마들이 내 쪽으로 쓰레기를 던지는 일도 있었다. 레스토랑에 가면 서버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문해야 하는데 은근히 일부러 우리 쪽은 쳐다도 안 보는 것 같은 느낌과 기차에 타서 우리끼리 하는 말을 따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이 너무 싫어졌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나도 너무 싫었다. 한 번은 인종차별 당하면 한마디 하려고 유튜브를 보는데 다들 하나같이 무시가 답이라고 하였다.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 그 곳에서 싸움이 나면 내가 불리할 것이 당연하기에 다들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슬프고 분했다.

오래 기다리고 바라왔던 기회였던 만큼 소중한 인연들과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었지만 확실히 그곳에서 나는 정말 이방인이었다.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경찰이 나보다 자국민의 편을 들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저녁 6~8시면 문을 닫는 가게들과 일요일에는 영업하지 않는 마트들, 연착이 일상인 기차들 모두 적응하기 너무 힘들었다. 한국에서 내가 해외 생활을 가장 꿈꿨던 이유 중 하나는 “워라밸”이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본인의 개인 시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야근은 있을 수 없고 회식도 거의 없으며 긴 휴가동안 일 관련 업무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하지만, 야근하지 않으니 늦어지는 일 처리들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파업들은 그대로 소비자들의 불편으로 돌아왔다.

한편, 환경을 중시하는 독일의 정책 또한 낮은 불편함으로 다가왔다. 마트에 비닐봉투가 없고 장바구니만 살 수 있어 장바구니를 안 가지고 오면 손으로 들고 가거나, 갈 때마다 3유로씩 내고 장바구니를 사서 담아가야 한다. 케이크를 포장하면 추가금을 내고 다회용기를 사서 거기에 포장하거나 아니면 그냥 종이 받침에만 올려놓은 채로 손으로 들고 가야 한다. 페트병을 마트에 가져가면 0.25유로씩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물을 다 먹고 페트병을 그냥 버리지도 못한채, 꼭 챙겼었다.

워라밸이 좋고 환경을 생각하는 좋은 나라라고 긍정적으로만 바라봤던 시선들이 불편함도 있다는 점을 알아차린 순간이었다. 내가 하는 이 이야기들은 독일 생활이 안 좋았다고 불평하는 것도, 한국의 삶을 대충 만족하고 타협하면서 살라는 것도 아니다. 그저 한때 한국에서의 생활과 방식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었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나 삶이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는 여전히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며 취업 준비와 물가 상승 등 수많은 고민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 있을 때는 인종차별을 당할지 두려워 어디를 가는 것이 무서웠고, 문의할 일이 생기면 전화로 설명을 못 해 번역기를 돌려보낸 이메일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다. 택배를 받으려면 온종일 집에서 기다려야 하는 날도 있었다. 그때는 내가 한국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독일에서 나는 늘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야 했고, 해야 할 일들은 많았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나에게서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본인이 지내던 곳과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의 생활이란, 때로는 두려움도, 기대도, 설렘도 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바라던 순간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바라지 않았던 선택일 수도 있다. 그러한 곳에서, 낯선 상황에 부딪친 것을 불평하거나 혹은 새로운 곳이 너무 좋아 전에 있었던 곳에 불만을 느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곳이 더 나은지가 아닌, 다름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분명 있다”라는 것이다. 나 또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완전하고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2년 전 독일에서의 경험을 기점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순간들 속에서 나는 ‘벗어남’이 단순한 탈출이 아닌 성장의 과정임을 느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깨달았다.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살아보면서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의 가치가 다시 보였다. 비록 낯선 곳에서의 생활이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불편함 속에서도 대안을 찾고, 사소했던 일상에서 감사함을 느낀다. 낯선 곳에서 얻은 깨달음은 나에게 그 어떤 안정된 익숙함보다 더 값진 자산이 되었고, 앞으로도 나를 성장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다.



내 삶의 작은 스승, 돈

우영

아직도 기억난다. 초등학교 4학년, 열한 살 때였다. 내 손에 처음으로 나만의 돈, 만 원이 쥐어졌던 날이었다. 그때 만 원이면 피시방에서 하루 종일 놀 수도 있고, 문구점에 가면 불량식품을 하나씩 전부 골라 살 수도 있었다. 어린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나는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심사숙고 끝에 그 시절 가장 유행하던 피켓 스피너를 샀다. 처음에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못했다. 정확히 세 시간 만에 질려버린 것이다. 그 순간, '이 돈으로 다른 걸 할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스치며 깊은 후회가 밀려왔다. 그때부터 나는 어차피 뭘 사도 후회하게 되리라 생각하며, 사고 싶은 게 있어도 꼭 참는 습관이 생겼다.

그렇게 중학생이 되었다. 그 시절 나는 공부도 하지 않고, 심지어 학교도 잘 나가지 않은 채 농구만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두려움이 밀려왔다. 나는 막연히 농구선수가 되고 싶다고만 생각했지,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솔직히 말해 내 실력은 선수로 나설 정도가 아니었다. 학교에서나 조금 잘하는 수준이었고, 시청 대회만 나가도 나보다 뛰어난 선수들이 수도룩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친 건 경제적인 문제였다. 실패하더라도 아무 타격이 없을 만큼 넉넉한 환경이 아니었기에, 나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좋아하는 일을 돈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좌절로 다가왔다. 나는 냉정한 현실 앞에서, 내가 가진 경제적 배경이 꿈을 향한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만약 농구선수가 되는 데 실패한다면, 그 이후의 삶을 지탱할 안전망이 필요했다. 좋아하는 일에 계속 도전하려면 그만큼의 경제적 자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좌절을 경험한 뒤, 나는 더 이상 좋아하는 일을 '돈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결심을 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는 생각 하나로 아예 학교를 그만두었다. 돈을 벌기로 결심한 것이다. 하지만 처음 사회에 나온 나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고등학교 1학년, 경력 하나 없는 나를 받아줄 리 없었다. 하루에도 수십 통 전화를 했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서야 간신히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처음 해본 육체노동은 정말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좋았다. 내가 흘린 땀과 시간이 그대로 돈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월급날마다 통장을 확인할 때면 목표에 한 발 다가간다는 뿌듯함이 몰려왔다. 나는 월급을 받는 대로 허투루 쓰지 않고 악착같이 모았다. 결국, 천만 원을 처음 손에 쥐게 되었다. 그 숫자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그 돈으로 부모님께 처음 선물을 드렸을 때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다. 중학교 시절의 방황과 고등학교 자퇴로 늘 속상해하시던 부모님이었다. 하지만 선물을 받으신 두 분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으셨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도 진심으로 행복했다. 초등학교 때 피켓 스피너를 사놓고 느꼈던 허무한 후회와는 전혀 달랐다. 이번에는 후회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만족과 뿌듯함이 오래도록 남았다.

지금도 나는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모으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돈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 내 미래를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 돈을 쓸 때도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사는 것을 넘어, 타인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예를 들어, 오래된 물건을 바꾸고 싶을 때도 나를 위한 물건 대신, 부모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가전제품을 먼저 사드리는 데 돈을 썼다. 내가 땀 흘려 번 돈이 나를 넘어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그 돈은 비로소 단순한 종잇조각 이상의 가치와 힘을 갖게 되었다. 돈은 때로는 나를 불안하게 했고, 집착하게도 했다. 하지만 결국 돈의 진짜 가치를 알려준 건 바로 남을 위하는 마음이었다. 돈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작은 스승이다.

마음이 문장이 될 때



다시 시작할 용기가 불려온 새로운 성장

임효정

전공을 정하던 순간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고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여기가 내 자리일까?” 그 질문은 입학 첫날부터 마음 한편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실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다. 단지 성적에 맞춰 지원했을 뿐이었다. 학과명에 ‘생명’이 들어가 있으니, 내가 오래 꿈꿔왔던 바이오의약품 연구와 비슷한 분야일 것이라고 막연히 짐작했다. 중학생 때부터 생명과학과 질병 연구에 관심이 있었고, 언젠가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원이 되고 싶다는 진로는 흔들린 적이 없었다. 그래서 큰 고민 없이 “이 정도면 나와 맞겠지”라는 마음으로 전공을 선택했다. 그러나 막상 강의를 듣기 시작하자 그 생각이 점점 흔들렸다.

생명화학공학과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은 내가 기대했던 ‘의약품 연구’와는 거리가 있었다. 실제로 배우는 내용은 화장품 공정, 공업적 화학 공정, 제조공학에 가까웠고, 내가 상상했던 생명과학 기반의 치료제 연구와는 결이 달랐다.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있으면 설명은 이해되는데 좀처럼 흥미를 느낄 수 없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연구는 이런 게 아닌데...”라는 의문이 매시간 스멀스멀 올라왔다. 어느 순간부터는 강의에 몰입하지 못한 채, 이 길이 정말 내 진로와 맞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방향이 시작됐다.

그런 나를 바꾼 계기는 우연이었다. 2학년 때 의생명과학과 교수님이 진행하는 교양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고, 그 수업에서 처음으로 내가 정말 배우고 싶던 분야를 만났다. 세포의 분자적 신호전달, 질병의 기전, 유전자 손상과 복구 과정 등 생명현상의 원리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내용은 내가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의약품 연구’의 세계와 정확히 맞닿아 있었다. 강의가 끝나면 더 알고 싶어져 스스로 자료를 찾아 읽었고, 그 과정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호기심이 다시 살아났다. ‘이걸 배우면 내가 꿈꾸던 연구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긴 순간부터 나는 전과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2학년 여름방학, 더는 미루지 않고 의생명과학과로 전과를 결심했다. 이 결정은 도망이 아니라, 내가 오래 바라온 진짜 목표를 향한 첫 걸음이었다.

그러나 전과 후의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벅찼다. 새 전공의 기본 개념조차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었고, 이미 여러 생명과학 수업을 경험한 학우들 사이에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었다. 세포 내 신호전달 체계, 유전자 조절, 분자 상호작용 같은 기본 개념이 머릿속에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강의시간에는 교수님의 속도를 따라잡기 바빴고, 집으로 돌아오면 모르는 내용을 다시 찾아 공부하는 시간이 끝없이 이어졌다. 어느 순간에는 “지금 시작해서 남들처럼 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전과를 후회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면 기꺼이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버텼다. 비록 속도는 더뎠지만, 이 시기는 애가 단단하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어 주었다.

전과 후 나를 단단하게 지탱해 준 것은 학과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였다. 거의 1년간 혼자 학과 생활을 하다 보니 힘든 점이 많았다. 새로운 소식이나 커뮤니티에서 단절된 채로 학교생활을 하러니 막막하고 힘이 들었다. 우연한 기회로 오픈랩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같은 관심사를 가진 동기들이 생겼고, 학과 동아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아졌다. 스터디에서 처음 모였을 때, 주변 사람들은 논문에 있는 전문 용어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단어 몇 개조차 이해하지 못해 입을 열지 못했다. 머리가 하얘지고, 뒤쳐지는 기분에 마음이 조금해졌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동기 한 명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차근차근 개념을 설명해줬다. 그 작은 배려는 단지 어려운 개념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새 전공 생활 속에서 느끼던 외로움을 덜어주는 순간이었다. 그 이후로 나는 모르는 것이 생기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질문할 수 있게 되었고,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공동체 속에서 배우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혔다.

동아리 활동과 학과 프로그램들은 이런 배움의 확장을 더 크게 도와주었다. 선배들은 자신의 연구 경험, 실험실 문화, 전공 공부의 방향성을 아낌없이 공유해주었다. 후배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질문하며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는 법을 보여주었다. 내가 알고 있던 개념을 후배에게 설명하기 위해 다시 정리하다 보면,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빈틈을 발견할 때도 많았다. “함께 배우는 힘”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순간들이 늘어날수록, 나는 점점 더 학과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있었다.

이후 학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GMP·GLP 교육과 오픈랩 실습으로 실제 연구에 가까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처음 실험을 배우던 날, pipette로 단 몇 마이크로리터를 옮기는 과정이 실험의 전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배양 환경의 작은 차이, 배지 성분의 변화, 세포 상태의 미세한 흔들림이 모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생명과학을 책으로만 배웠다면 결코 알 수 없는 현실이었다.

GMP·GLP 교육에서는 연구 신뢰성과 재현성이 왜 중요한지 반복해서 배웠고, 실험자의 태도가 데이터의 신뢰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이때부터 나는 단순히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연구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자격증 시험에도 도전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과락은 없었지만, 평균 점수 기준을 넘지 못해 아쉽게 불합격했다. 무엇보다 아쉬웠던 점은 조금 더 철저히 공부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다는 뒤늦은 깨달음이었다. 크게 좌절했다기보다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감정이 남았다. 하지만, 이 경험은 학습 방식을 다시 돌아보게 해준 중요한 계기였다. 단순 암기가 아니라 구조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 곁핍기식 공부는 절대로 깊은 지식을 만들지 못한다는 점을 이때 깨달았다.

학술제에 참여하면서 진행한 HS68 세포 노화 모델링 실험에서는 또 다른 배움이 이어졌다. Control 군에서도 파란 염색이 나타나 처음에는 실험 실패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교수님, 동기들과 함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높은 세포의 passage와 배지 속 성장·분비 인자가 결과를 왜곡했음을 파악한 것이다. ROS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실험을 진행한 점도 문제였다. 이 경험은 나에게 실험의 어려움뿐 아니라, 실패를 통해 문제를 정의하고 협력하며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몸으로 배울 수 있게 해주었다. 이는 내가 연구자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나는 더 이상 모르는 개념을 무시하거나 넘어가지 않게 되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논문이나 최신 리뷰를 찾아보고, 필요하면 교수님께 질문하며 학습을 확장했다. 공동체 속에서 배우는 힘이 나를 더 멀리 데려다준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나는 이 분야에서 계속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을 확실하게 갖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노인성 신경질환 분야에서 줄기세포 기반 치료 전략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다. 줄기세포가 세포 간 신호전달을 조절하고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돕는다는 사실은 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중요한 이슈이다. 교수님의 학생 모집글을 통해 인턴활동을 하면서 많은 정보와 기술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 한 획을 그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신경계는 회복이 어렵고 복잡하지만, 이 분야에서 나의 연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

연구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 때문이 아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줄이고, 잃어버린 기능을 회복시키며, 노인성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줄기세포 기반 신약 개발이나 혁신적 치료 방법이 현실화한다면, 환자 수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나는 그 과정을 직접 만들어가고 싶다.

얼마 전, 실험실에서 배양 중인 세포를 들여다보다가 문득 3년 전 생명화학공학과에서 다니고 있던 나를 떠올렸다. 의사결정 앞에서 방황하던 과거의 자신과 지금 새로운 치료법을 만들고 싶어 하는 나 사이에는 수많은 실패와 배움, 그리고 공동체가 있었다. 전과라는 용기 있는 선택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이제 그 경험들은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었다. 언젠가 내가 만든 연구 성과가 누군가의 삶을 바꾼다면, 그 순간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증명해 줄 것이라 믿는다. 전과라는 작은 선택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처럼, 앞으로도 나는 한 걸음씩 새로운 치료 전략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롤모델

장은서

다들 초등학교 시절 한 번쯤은 이런 질문 들어봤을 것이다. “각자의 롤모델은 누구인가요?” 당연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우린 롤모델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 “닳고 싶은 인물이나 존경하는 인물을 말해요. 이순신 장군님이나 세종대왕, 부모님도 좋아요. 각자 발표해 볼까요?”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반이 소란스러워졌다. “저는 에디슨이요!” “저는 설록 흠스요!” 나는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며 찬찬히 고민해 보았다. 에디슨이라, 업적이 대단하긴 했다. 하지만 과학을 잘하는 건 별로 부럽지 않았다. 설록 흠스도 마찬가지다. 명석한 두뇌로 어떤 사건이든 풀어내는 게 정말 멋있었다. 하지만 소설이라서 멋진 거지 실제로 저런 사람 만나면 별로일 것 같았다. 그렇게 되긴 싫은데, 결국, 손을 들지 못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꽤 끈질겼다. 다들 약속이라도 한 건지 매년 물어보셨다. 정해야 하는 이유를 묻자, 위인들을 롤모델로 삼고 살다 보면 너희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면 웃으셨다. 그 말에 더 무서워졌다. 세상에 멋지고 대단한 위인들이나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참 많았지만, 누구와도 같아지고 싶진 않았다. 그들을 닮는 것이 나를 잃는 것처럼 느껴졌다.

중학교에 입학하고도 롤모델은 나를 괴롭혔다. 이젠 모두가 무조건 발표까지 해야 했다. 그래도 정하고 싶지 않았다. 닳고 싶은 점을 본받으려는 태도가 싫은 건 아니었다. 나도 배우고 싶은 것들은 많았다. 그렇지만 닳고 싶은 사람은 없었다. 부분과 사람의 차이는 꽤 컸다. ‘왜 이런 걸 물으시는 거야, 이게 도움이 되는 질문은 맞아?’ 오히려 획일화되는 것 같아 못마땅했다. 하지만 사춘기의 변덕이었을까, 나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왜 사람들이 이토록 누군가를 닳고자 할까 궁금해졌다. 처음엔 ‘모 연예인처럼 되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그저 신기했다. 나도 그런 감정을 느껴 보고 싶었다. 하지만 존경심이라는 것은 곰디고운 모래처럼 잡힐 듯 잡히지 않고 흘러내리기 일쑤였고, 수개월간의 시도 끝에 손에 잡힌 것은 좌절감뿐이었다. 그런 나와는 다르게 친구들은 너무나 쉽게 누군가를 존경했다. 소설 속 기사들은 존경하는 왕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가볍게 여기었다. 모두가 당연하듯 느끼는 감정을 나만 느끼지 못한다니 질투심이 차올랐다. 이때부터 친구들이 롤모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괜히 투덜거렸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에게 끌린다던가? 질투심에 모른 척 무시하던 친구들의 존경할 줄 아는 능력을 어느 순간 인정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들을 멋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도 롤모델은 나를 따라다녔다. 확실히 고등학교답게 PPT와 3분 이상의 발표도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엔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주인공은 생명 선생님, 때는 학기 초이다. 나는 여느 때처럼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고민에 빠져 있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자 할 일이 너무 많았다. 방과 후 수업은 유료 서비스임에도 선택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학원 숙제는 중학교 때의 배가 되었다. 수행평가나 모의고사 준비, 학교 과제까지 다 하는 건 몸이 두 개라도 불가능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 한 가지 묘책을 떠올렸다. 방과 후 수업 시간에 몰래 숙제하는 것이다. 정규수업 시간엔 다른 책을 꺼내두기만 해도 꾸지람을 듣지만, 방과 후 수업은 다를지도 모른다. 1교시부터 학생들이 자건 말건 신경도 안 쓰는 생명 선생님이라면 무조건일 거다. 예상은 적중했고, 방과 후 수업의 뒷자리는 언제나 내 몫이었다.

그런 나라도 하루쯤은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날이 있는 법이다. 순간의 변덕으로 졸지 않고 들은 수업은 충격적일 정도로 재밌었다.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생명이 좋아졌다. 공부하는 시키는 것도 겨우 하던 내가 스스로 논문을 찾아볼 정도였다. 선생님은 교과서와 관련 없는 궁금증도 척척 해결해 주셨고, 더불어 선생님에 관한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수업 시간 자게 두는 것은 학생들을 배려한 것이고, 사실, 모두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 생명이 좋아 선생이 되었고, 아직도 매일 공부한다는 것.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며 즐겁게 수업하는 선생님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순간부터 멋있다는 감정을 넘어 존경심이 들었고, 자연스레 학업에 열중하며 전체적인 성적이 크게 올랐다. 이때 처음으로 롤모델의 힘을 실감했다.

2학년으로 올라가고 선생님은 정년퇴직하셨다. 새로운 생명 선생님도 좋은 분이셨지만 수업은 지루했다. 공부에 흥미가 식으며 작년에 올려둔 성적은 다시 떨어졌다. 기말고사 성적표 속 학년 평균보다 낮은 생명 점수를 보고 있자니 작년의 일은 머나먼 과거처럼 느껴졌다.

그때였다. 베실베실 웃고 있는 지수의 표정을 보게 된 것은. 원래도 공부를 잘하던 친구였는데 이번엔 더 잘 보았나 보다. 웃는 얼굴을 보니 우울하던 감정이 건히며 덩달아 따스해졌다. 다가가 축하한다는 말이라도 건네려 했지만, 내심 무언가 걸렸다. '지수가 잘 볼수록 내 등급도 떨어질 텐데.' 경쟁자를 축하해주는 게 맞는 걸까 고민되었다. 그때 갑자기 작년 기억이 떠올랐다. "다른 애들이 무슨 상관이야. 이전보다 잘 봤으면 된 거지. 너에게만 집중해." 작년 모의고사 성적 발표 날, 온 힘을 다했는데도 반 친구들보다 못 봐 창피하다고 친구와 대화하던 걸 들으신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어쩐지 마음이 가벼워지며 나는 지수를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었다.

나는 선생님을 보며 용기를 얻었고, 그에게 감화되어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언젠가 방황하게 될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정년퇴직하셨다던 선생님은 시골에 지어두신 주택이 아닌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나를 인도하고 있었다. 선생님의 가르침이 아닌, 나도 모르던 내 의지를 이끌어냈다. 안개가 걷히고 길이 드러나듯이 내 취향조차 확실히 모르던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 자각하게 해주셨다. 이 과정에서 선생님은 교과서가 아닌 등불이었다. 어쩌면 선생님께서 롤모델을 물은 것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는 의미 아니었을까?



그리움을 품고 살아가는 법

장진영

“아니다 싶으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올해 3월 방영되어 큰 인기를 끈 드라마 ‘꼭꼭 속았수다’에서 아버지 양관식이 딸에게 던진 이 대사에 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막내딸인 나를 “이쁜이”라 부르며 꼼짝이도 아끼셨던 우리 아버지. 그 드라마를 보며, 나는 9년 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떠올렸다.

드라마를 흘린 듯이 하루 만에 다 보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이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나는 이 질문 앞에서 늘 멈칫한다. 그날,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용돈 주세요”였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 아버지는 출장으로 5년째 제주에서 지내셨고, 나는 친구들과 놀기에 바빴다. 걸려 오는 전화는 귀찮았고, 사랑한다는 말엔 장난처럼 웃어넘겼다. 그날 이후, 아버지의 전화는 다시 울리지 않았다.

장례식장에서도, 발인 날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사람들이 울고, 조문객이 오가고, 향냄새가 진동했지만, 나는 그 모든 장면이 마치 연극처럼 느껴졌다. 그 죽음이 현실로 다가온 건, 매일 울리던 카카오톡 알림과 전화벨이 멈췄다는 걸 깨달았을 때였다. 그제야 나는 아버지가 정말 떠났다는 걸 받아들였다.

그때 나는 중학생이었으며 어머니는 슬퍼할 틈도 없이 생계를 책임지시느라 집에 거의 계시질 않았고, 언니들은 대학 생활로 바빠 서울에서 지내는 탓에 가끔 집에 왔다. 나는 밥도 잘 챙겨 먹지 않고 많이 울었다. 동생은 방에 틀어박혀 컴퓨터에 빠졌다. 집 안은 조용했고, 마음은 더 조용했다.

아버지가 계시던 자리는 너무 컸고, 그 빈자리는 집 안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었다. 다음에 오면 고쳐주시겠하던 현관문 외시경, 항상 누워계시던 소파, 신발장 앞 아버지의 실내화 한 켤레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를 말하고 있었지만, 정작 아버지는 없었다.

나는 2년 넘게 심리 상담을 받았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이겨내고자 했지만, 상담은 큰 위로가 되지 못했다. 상담실에서 위로의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오히려 더 울고 싶어졌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멜론맛 아이스크림은 쳐다보지도 못했고, 아버지가 타고 다니던 차가 지나갈 때면 터져 나오는 눈물을 삼켜야 했다. 그렇게 나는 사춘기를 지나, 아픔을 덮어둔 채 어른이 되었다. 내 일상은 이불 속에서 눈물로 호수를 만들어 그 위를 떠다녔었다.

대학생이 된 나는 우울함을 떨쳐내려고 일부러 바쁘게 지내려 했다.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병행했고, 수업과 과제를 빼곡히 채워 넣었다. 그렇게 1년을 보냈고,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면 마음이 덜 아플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몸은 지쳐도 마음은 여전히 허전했고, 밤이 되면 더 깊은 고요 속으로 가라앉았다. 마치 체질에 맞지 않는 한약을 억지로 먹은 사람처럼, 내 마음은 점점 허약해졌다. 웃는 얼굴 뒤로는 무기력과 불면이 쌓여갔고, 결국 나는 정신의학과를 찾았다. 처음 병원 문을 열던 날, 나는 자신을 실패한 사람처럼 느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을 들었다.

6개월 동안 꾸준히 병원에 다녔고 불면증 약을 먹고 하루 종일 비몽사몽인 상태로 지내던 어느 날부터, 아버지의 꿈을 자주 꾸기 시작했다. 꿈속의 아버지는 늘 나를 안아주셨다. 말없이 등을 토닥이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하루는 아버지가 꿈에서 나를 끌어안고 우셨다.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이쁜아, 이제 그만 힘들어해.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 꿈에서 깨어난 나는,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고, 새벽 내 평평 울었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달라졌다. 더 이상 아버지의 죽음을 핑계로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 결심은 내 삶의 방향을 바꿨다. 힘든 일이 있어도 눈물을 덜 흘릴 수 있었고, 과거의 나에게는 짧은 위로를 건네며, 현재의 나에게 집중했다. 나는 나를 돌보는 법을 배워야 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 하루에 한 끼라도 따뜻한 밥을 차려 먹기,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산책하기, 일기를 쓰며 감정을 정리하기. 그렇게 아주 천천히, 나는 나를 회복시켜 나갔다. 이제는 멜론맛 아이스크림도 웃으며 먹을 수 있고, 아버지 생신이 다가와도 울지 않고 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아버지를 잊은 것이 아니라, 그리움을 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베란다 정리를 하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사무적인 느낌의 다이어리 한 권, 그 안에는 아버지가 제주에서 홀로 지내며 써 내려간 글들이 담겨 있었다. 한 장 한 장 아버지의 외로움과 삶의 고단함이 진득하게 느껴졌다. 그 일기장을 다 읽은 순간, 나는 주저앉아 울고 말았다. 그토록 외로웠을 아버지를, 나는 왜 그리도 외면했을까. 방학 때마다 약속이 있다며 제주에 가지 않으려 했던 내가 또 한 번 원망스러웠다. 아버지의 그리움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나와 우리 남매를 향해 있었는데, 나는 그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아차렸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짧은 글을 쓰기 시작했다. 시를 적고, 짧은 글을 지으며 내 마음을 기록했다. 언젠가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당신을 그리워했고, 미안했어요.” 그 말을 꼭 전하고 싶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나는 나를 돌보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건 나를 사랑하는 법이기도 했다.

지금의 나는,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기 위해 달리는 중이다. 더 이상 이불 속 눈물로 고인 호수 위를 떠다니지 않는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내 삶을 단단히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이불 속 호수 위를 떠다니고 있다면, 그 마음을 안다고 말해주고 싶다. 누군가를 잃고, 그리움에 잠겨,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던 날들이 나에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호수에서 천천히 나왔다.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당신도 언젠가, 그 호수 밖에서 햇살을 마주하길 바란다.

그 햇살이 당신의 등을 따뜻하게 감싸주기를,

그리고 당신이 다시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마음이 문장이 될 때



목적지의 부재, 부유(浮遊)의 미학

조서현

나는 징크스, 소문, 속설 따위를 잘 믿지 않는다. 그렇기에 선배들 혹은 주변 사람들이 4학년이 겪게 되는 공통적인 고민에 대해 말할 때 딱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그런 고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주했던 것 같다. 그러나 선배들의 말이 마치 마법의 주문이 되어 작용하듯 4학년이 되자마자 나에게 현실적인 고민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애석하게도 고민은 해결하려 애쓸수록 끊어지지 않는 치즈처럼 길게 늘어지지만 할 뿐이었다. 이 치즈를 끊기 위해서는 중간을 뚫 절단해 줄 가위의 존재가 절실했다.

그러던 중 은행이 발에 차이기 시작하는 가을 무렵이 되었고, 그날도 어김없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이었다. 4학년이라는 시기가 고민이 넘쳐나는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4학년은 수업이 적어 시간이 넉넉하다는 장점이 있다. 수업이 일찍 끝나 여유롭게 버스를 타러 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예상 시간보다 더 일찍 정류장을 지나가 버려 버스를 놓치고 말았다. 나는 큰 상심에 빠졌다. 내가 타는 버스의 배차간격은 50분이나 되기 때문이다.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정류장에 앉아 있었는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내가 예전부터 버스를 기다리면서 늘 하던 상상 중 하나였다. 지금 정류장으로 들어오는 아무 버스를 올라타서 5~10정거장 정도 가 낮은 동네를 돌아다녀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늘 집이라는 목적지가 있었으므로 이 계획은 상상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날은 내가 좋아하는 '가을'이라는 계절의 표본 같은 날씨였고, 타야 할 버스는 50분 뒤에나 오고, 수업이 일찍 끝나 시간은 많은 이런 여러 이유가 나의 상상을 실현해 보라고 재촉하고 있었다. 나는 바로 정류장으로 들어오는 '진월 17'이라는 버스를 올라탔다. 묘한 두근거림이 내 안에서 진동하기 시작했다. 버스를 타고 5~7정거장 정도 간 후에 처음 보는 동네에 내렸다. 일단 주변을 둘러볼 겸 걷기 시작했다. 처음 가보는 곳이었기에 새로운 것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눈에 담았다. 그날은 유독 눈이 바쁜 날이기도 했다. 새로운 동네를 구경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바닥의 장애물들을 수시로 살펴야 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을 밟지 않기 위해

피하다 보니 한 카페가 눈에 띄었다. 은행들을 마치 이정표 삼아 이 카페에 도착한 것 같아 뭔가 특별하게 느껴졌다. 가을 오후의 시간이라 조용하고 선선하던 그 동네를 더욱 온전히 감상하고 싶어 빨간 벽이 인상 깊은 그 카페로 들어갔다. 낮이라 그런지 카페에 손님이 많지 않았고 잔잔한 재즈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밖에 보이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오로지 이 생경한 풍경에 집중했다. 그 순간만큼은 나를 짓누르던 많은 고민이 내가 있는 새로운 장소까진 쫓아오지 못하는 듯 평화롭고 평온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뒤 신발에 질게 묻어있던 가을의 향이 없어질 때까지 그날을 자주 추억했다.

이후에도 문득 기분 좋게 떠오르는 날 중 하나인 이 하루가 나에게 평온했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다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다. 그것은 이날 정해진 목적지가 없었다는 점이다. 새로운 동네에 발을 디디는 것부터 인상 깊은 카페를 발견하는 것까지 모두 정해진 것이 아닌 흘러가는 대로, 내 발이 나가는 대로 따라간 것뿐이었다. 나는 이날 '부유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떠돌아다니며 느끼는 자유로움이 얼마나 큰지, 또한 부유하면서 만나는 새로운 자극들은 나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새삼 깨달았다. 우리는 항상 목적지, 목표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무엇을 하든 목표를 먼저 세우고 그 목표만을 향해 달려간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 중간에 어떤 힘든 과정이라도 묵묵히 버텨낸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 과정을 아름다움으로 둔갑시킨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많이 지치고 쇠약해져 간다. 목표가 있는 것은 때론 동기가 되고,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다고 불안해할 일은 아니다. 정해진 목적지가 없다면 그것은 해매는 것이 아니라 '모험'이라고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 우리는 어디든 달을 수 있고, 머무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이다.

마음이 문장이 될 때



오늘을 살아낸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차민정

1971년 쌀쌀한 가을, 한 시골 마을에서 한 소녀가 태어났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집에서 자란 그 소녀는 호기심 많고 씩씩했다.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참 많았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반에서 늘 손꼽히는 우등생이었고, 명랑하고 씩씩하게 친구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곤 했다. 그 소녀가 바로 나의 어머니이다.

나는 가끔씩 하늘에 소원을 빈다. 어머니가 아픈 곳 하나 없이 어린 시절 그토록 바라던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어머니는 내가 어릴 때 부터 삼차신경통이라는 병을 안고 살아오셨다. 치과에서의 진행한 시술이 잘못되어 시작된 고통은 평생을 따라다녔다. 언어를 배우는 것, 웃으며 대화하는 것처럼 사소한 일조차도 병은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다. 영어도, 중국어도, 새로운 언어의 발음을 내뱉는 순간마다 얼굴 근육이 뻣뻣하게 굳었지만 어머니는 늘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 자유롭게 외국어로 여행하며 소통하리라는 꿈을 버리지 않으셨다.

운동 또한 어머니의 큰 즐거움이었다. 어느 날은 킥복싱을 배우겠다며 체육관에 등록을 하고는 집에 오셨다. 그날 저녁, 배운 동작을 하나하나 집 안에서 보여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얼굴 가득 번지는 웃음에 나는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의 순수한 즐거움을 보는 듯했다. 여행도 어머니의 삶을 환하게 밝혀주었다. 혼자서 제주도의 올레길을 걷고, 바닷바람에 머리를 흔들며 자유를 만끽하던 어머니. 나중에는 배낭 하나 메고 전국을 일주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하지만 병은 늘 행복을 빼앗듯이 어머니의 곁을 맴돌았다.

수차례의 뇌수술 끝에 결국 어머니는 23년간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야 했다. 사람들과 나누는 짧은 잡담조차 힘들어졌고, 세수를 하는 평범한 순간조차 고통이 따랐다. 물 묻힌 수건으로 얼굴을 살살 닦아내는 것이 어머니의 일상이 되었다. 어느 정도 호전된 것 같아 친구들을 만나 웃으며 돌아오셨던 날도 있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 가지 못했다. 다시 통증이 몰려왔고 몸은 점점 더 지쳐갔다.

그리고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엄마의 흉통이 점점 심해지면서 병원을 전전한 끝에 병명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 나는 엄마가 유방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순간 오히려 안도했다.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걱정할까 걱정되어 둘러댄 것으로, 최종적으로 밝혀진 것은 '악성종괴 4기'였다. 병명을 듣는 순간, 나의 심장은 아래로 꺼져 내리는 듯했다. 왜 하필 우리 엄마여야 했을까.

엄마가 암과 싸우기 시작하면서 집안의 풍경도 변했다. 식탁에는 더 이상 밀가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이 올라오지 않았다. 나는 그 후 엄마 앞에서 아프단 소리는 하지 않게 되었다. 내가 아프면 다 자기 탓이라고, 아픔을 물려준 것이라고 자책하는 엄마의 눈빛이 너무나도 아팠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나는 다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엄마 앞에서 건강하게 서 있는 것뿐이라고.

엄마는 딱 두 달 안에 병을 잡아내자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 두 달은 세 달이 되고, 네 달이 되고, 결국 여덟 달을 넘어섰다. 매번 희망과 좌절이 반복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믿고 싶다. 오늘이 가장 힘든 날이고,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주말이면 나는 엄마가 있는 본가로 향한다. 함께 TV를 보며 웃고 떠드는 사소한 하루가 이제는 세상 그 무엇보다 바랄 수 없는 행복이다. 요즘 엄마는 아빠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있다. 영 소질이 없는 아빠는 냉장고 속 모든 재료를 한데 섞어 요리를 만들어내곤 한다. “왜 이렇게 요리를 알려주고 있냐”고 물으면 엄마는 대답한다. “혼자서도 해 먹을 수 있어야 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처음에는 차도가 있는 것 같더니, 지금은 눈에 띄게 쇠약해져 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인생의 한 고비이길. 언젠가 엄마가 나에게 했던 약속, “다 나오면 생맥주 한 잔 같이 하자”는 그 말을 지킬 날이 오기를. 세상에서 가장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엄마, 아프지만 앓았다면 얼마나 훨훨 날아다니셨을까.

사람들은 돈이 좋다, 명예가 최고다 말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건강이야말로 삶의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을. 건강만 있다면 못 해볼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깨달음은 나의 몸에서도 찾아왔다. 어느 날 허리를 굽히던 순간 느껴진 찌릿한 통증이 일 년 반을 넘기며 나를 괴롭혔다. 허리디스크라는 진단을 받고 난 후, 나는 필라테스도 해보고, 요가도 해보고, 좋다는 치료를 다 찾아다녔다. 하지만 결국은 통증에 익숙해지며 살아야 했다. 취미로 하던 태권도도, 킥복싱도 모두 내려놓아야 했고, 서 있어도 앓아 있어도, 심지어 누워 있어도 아팠다. 그러나 그 고통은 내게 또 다른 성찰을 남겼다. 건강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몸으로 배우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엄마가 다시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언젠가 함께 마시는 그 한 잔의 맥주가, 우리 모녀의 가장 달콤한 승리의 순간이 되기를.

마음이 문장이 될 때



일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 에버랜드

최정민

당시 나의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나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상당히 과격하고, 개구쟁이였다. 놀반에서는 일명 '개그맨'이라는 칭호를 얻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해 주었다. 늘 선생님들에게는 깽뚝이 하며 매일 아침 당시 5학년 4반 이승하 선생님께 나의 단짝이었던 친구와 함께 교탁에서 업무 중인 선생님에게 다가가 사단장님 충성! 다른 날에는 황제님 충성!, 대통령님께 충성! 등 당시 알고 있는 다양한 높은 직종을 붙여 경례와 함께 충성을 하며 선생님 친구들과 매우 잘 지내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일까? 늘 나의 꿈은 선생님이었고 가르치실 때, 혼내실 때, 아이들과 어울리시는 모습들이 너무 멋있었다. 엄마는 내가 완전 애기때부터 선생님 놀이를 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도 당시 담임이신 강혜진 선생님을 따라 하며 동생을 가르쳤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이후 나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13년 꿈'을 바꾸게 된다.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이사로 첫 전학을 하게 된다. 새로운 곳을 접한다는 것은 너무 신기하고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으나 나는 어찌어찌 잘 지냈다. 그러다 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을 가게 된 것이다. 에버랜드라는 곳을 1박 2일로 간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에버랜드가 어딘지도 몰랐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전혀 몰랐다. 그러다 랜드라고 하길래 아! 패밀리랜드랑 같은 곳인가 보다. 근데 왜 패밀리랜드 같은 곳을 1박 2일로 가지? 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렇다 나는 가본 놀이공원이 광주에 있는 조그마한 패밀리랜드가 전부였다. 그래서 그런지 놀이공원은 그냥 놀이기구만 타는 곳이고 그냥 일종의 놀이기구가 있는 공원 같은 느낌밖에 안 들었다. 그렇지만 처음으로 엄마·아빠와 가는 게 아닌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로 놀러 간다는 생각에 잔뜩 기대하였다. 나의 캐리어도 사고 친구들과 싱글벙글 기대하며 그날만을 기다렸다.

어느덧 수학여행 첫날, 새벽 6시까지 학교 운동장으로 모이라 하셨다. 나는 학교가 집 앞이라 5시 20분쯤에 기상하였다. 12월 겨울이라 그런지 밖은 캄캄하였고 그 새벽공기가 너무나도 달콤하였다.

설렘을 안고 나는 다시 한번 짐을 싸고 학교로 출발하였다. 학교 운동장에는 아이들로 금세 북적였고 나는 기대하며 버스에 탔다. 신나게 친구들과 장난치며 노니 금세 도착해있었다. 버스에 내려 에버랜드 숙소인 캐빈호텔 입구에 모였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친구들이랑 장난치며 노는 게 제일 즐거웠었다. 하지만 파크에 입장하니 나의 입은 딱 벌어졌다. 지금까지 본 적 없던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들과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다양한 조형물 또 그에 어울리는 신나는 주제가와 클래식들, 그때 당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마치 크리스마스 당일에 온 것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파크 전체가 알록달록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다. 나는 그러한 모습이 충격적이었다. 그럴 법도 하다 나는 가본 곳이 패밀리랜드 뿐이라 그저 놀이기구들만 존재할 것으로 생각하고 갔기 때문이다. 친구들과 함께 걸으며 나 혼자 우와를 연발하며 거리를 활 보했다. 놀라움도 잠시 나는 친구들과 함께 놀이기구를 타러 갔다. 패밀리랜드에 넓고 재미없는 놀이기구만 보다가 새롭고 다양한 테마로 꾸며진 놀이기구들을 보니 벌써 신이 났다. 놀이기구를 타다 지쳐 밥을 먹으러 가기 위해 카니발 광장이라는 에버랜드 중심지와 락스빌 거리라는 곳을 잇는 짙라인을 탑승하여 올라가다 보니 광장 쪽으로 오고 있는 다양한 캐릭터들과 거대한 차들이 오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며 별다른 생각 없이 쳐다보며 올라갔다. 친구가 말하길 저게 퍼레이드라는 것이라는 거였다. 하지만 그저 놀이기구 탈 생각에 별다른 생각 없이 올라갔다. 점심을 먹고 또다시 한참을 놀다 보니 어느덧 저녁이 되었다. 안내방송으로 앞으로 5분 뒤에 야간 퍼레이드가 시작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 공언이 나의 꿈을 전환해주는 변환점이었던 것이다.

저녁 퍼레이드가 시작한다는 방송과 함께 파크 주변이 모두 소등되었다. 주변에서 터져 나오는 환호성과 함께 신나는 반주가 흘러나오며 퍼레이드가 시작되었다. 나는 오늘 봤던 모습 중 가장 충격적이었다. 형형색색 다양한 테마로 꾸며진 조명들과 미소와 함께 춤을 추는 안무가들이 나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아직 끝나지 않은 동심이 다시금 불타게 된 것이다. 안무가들에게 손을 흔들며 퍼레이드를 한참 즐기게 되었다. 그러다 어느덧 마지막 차량이 지나가 퍼레이드가 끝이 나자 나는 “우와와와와!!! 저게 뭐야!!!”라는 반응이 연발하며 아쉬움과 함께 여운이 남아돌았다. 나는 퍼레이드가 끝나고 불꽃놀이를 한다고 하여 불꽃놀이 감상을 하고 다음 날 박물관을 방문하며 수학여행이 끝이 났다. 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에버랜드를 폭풍 검색하며 퍼레이드에 대해 알아보고 이런 게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다 “공연기획자”라는 직업을 알게 된 것이다.

공연기획자는 이름 그대로 공연을 기획하는 사람이다. 그동안 나는 영화감독 정도나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직업을 알게 된 것이다. 이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해보며 다른 테마파크의 공연기획자들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보고 공부해보며 말이다. 이 직업에 대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직업에 대한 여러 장점과 매력에 푹 빠져 원래 꿈이었던 “선생님”이라는 꿈이 사그라들고 그 자리를 “공연기획자”가 자리매김 한 것이다. 나는 매일매일 에버랜드 퍼레이드나 공연영상들을 찾아보며 어떤 식으로 기획했는지 파악해보고 매년 같은 퍼레이드지만 의상이나 안무, 음악, 퍼레이드카 장식 등이

어떤 게 바뀌었는지 찾아보며 나의 꿈을 키워나갔다. 저렇게 영상을 볼 때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왜 이렇게 바꾸었을까?’ 하는 의도를 생각해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 뒤 나는 엄마 아빠를 졸라 중1 때 에버랜드를 두 번째로 방문하였다. 하지만 퍼레이드나 다른 공연들을 볼 수 없었다. 퍼레이드 시작 30분 전에 아빠가 피곤하다고 나가자고 했기 때문이다. 나는 계속해서 보자 했지만, 아빠는 뜻을 굽히지 않으셨다. 하는 수 없이 보지 못하고 나가게 되었다. 너무나도 미웠었다. 너무 미워 나가는 길에 지금은 없어진 매직트리 앞에서 엄마-아빠가 사진 찍자고 하였지만 나는 찍지 않았다. 지금은 후회되기도 하지만 다시 생각해도 밍다. 그게 한이 되었을까?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나는 친구들이랑 자주 에버랜드에 갔다. 1년에 9번이나 간 적도 있다. 주로 방학 때 몰아서 가버리는 거다. 자주 가는 이유는 갈 때마다 새롭고 환상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기분 이 너무나도 좋았다. 일상에 스트레스나 많은 걱정이 이곳 에버랜드만 가면 모든 것이 잊히고 웃으면서 걸을 수 있고 또 에버랜드 마스코트나 연기자들의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귀여운 연기를 보고 있으면 해맑게 웃는 나의 모습이 뭐랄까 아름다워 보이면서 애기 때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어느덧 대학교 원서 접수를 할 때 나는 엄마 아빠에게 나의 진로가 공연기획자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엄마는 못마땅해하셨다. 지금도 엄마는 못마땅해하신다. 그래도 나는 보란 듯이 성공할 것이고 꼭 에버랜드에 들어갈 것이다. 에버랜드에서 내가 만든 공연을 엄마 아빠에게 보여주는 것이 나의 꿈이다.

20살이 된 지금도 나는 그 꿈을 향해 달려 나가고 있다. 현재 나는 k컬처공연 기획학과에 다니고 있다. 지금은 에버랜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테마파크들을 가보며 시각을 더욱 넓히고 있다. 학교에서는 ‘무대감독 수업’, ‘대중문화 수업’, ‘매체와의 의사소통 수업’ 등 다양한 수업을 들으며 이론과 실습 활동 등 다양하게 공부 중이다. 학교에서는 이론을 배운다면 직접 발로 뛰어 현장에 가봐 몸소 느껴보았다.

최근 9월 해남에서 ‘명량 대첩 축제’를 진행하였다. 학과에 연락이 와 ‘조선수군’ 역할로 공고를 하자 나는 바로 신청하고 합격하게 되었다. 감독님과 만나 여러 이야기를 해 보고 현장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도 들어보았다. 또 무엇보다 현장에 쓰이는 도구나 무대 장치들도 두 눈으로 직접 보며 공부해 볼 수 있었고, 관객의 반응과 관객들이 선호하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니 이론에서 배운 것과 다소 다른 느낌이었다. 가장 궁금했던 것은 무대 백스테이지였는데, 직접 그곳에 대기하고 준비해 보니 백스테이지는 관객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분주한 그곳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때 이후 감독님에게 다시 연락이 와 이번에는 11월 15일 ‘무안 YD페스티벌’ 기획팀으로 활동하게 된다. 나에게 가장 해보고 싶었던 일이자, 꿈에 그리던 일을 드디어 직접 해보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번 열심히 해볼 생각이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다양한 콘텐츠를 접해보며 배울 것이다. 이렇게 배우, 스태프, 기획자로 일해보며 현장감 과 나름의 숙련도를 채워 언젠간 꼭 에버랜드가 아니어도 테마파크에 들어가 나와 같은 아이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어른들을 위해 모두가 함께 어울려 즐기고 행복해지는 공연을 만드는 그날까지 나는 노력하고 나갈 것이다.



사라진 이들과 남겨진 신발들

최지원

내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것은 택시운전사라는 영화를 통해서였다. 택시운전사는 평범한 택시 운전사와 독일에서 광주를 취재하러 온 독일기자 힌츠 페터가 광주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광주로 들어가 참혹한 상황들을 보며 취재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택시운전사를 보면서 느낀 5.18 운동은 어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잠을 자던 사람이 오늘 싸늘해진 시체가 되어 돌아오는 상황이 꼭 전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저항하기 위해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용기를 낸다는 점이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또한 영화 엔딩 크레딧에는 민주화운동 사진들이 담겨있었는데 이 사진들 속 상황이 너무 참혹해서 그 당시 나는 이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었다. 이것이 내가 기억하는 5.18 민주화운동의 첫 기억이다.

오늘 함께 밥을 먹고 잠들었던 사람이 다음날에는 참혹한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어떨까? 내가 직접 이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면 제대로 된 정신을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 같다. 만약 이들이 내 가족이거나 친구라면? 그건 더 상상하기도 싫다. 누군가가 다치는 것을 보는 것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죽어서 돌아오면 차라리 다쳐서라도 집에 돌아왔다는 점이 하느님께 감사할 정도였을 것 같다. 나였더라면 내 주변 사람들이 어디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만 지냈으면 했을 텐데. 물론 이렇게 되었다면 민주화운동이 성공하는 것도 상상하기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다. 대의를 위해 나서는 사람들이 존재하기에 함께 나서서 윤희게 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을 쓰는 사람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젠가 거리를 걸으며 본 민주화 운동 사진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내 머릿속에 깊게 각인 되었는데 텅 빈 거리에 남겨진 주인 없는 신발들이었다. 이 신발이 거리에 남아있다는 것은 이 주인은 미처 신발을 신지 못한 채 끌려갔거나 죽을힘을 다해 도망쳤다는 것일텐데 그래서 그런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공허한 기분이 든다. 남겨진 사람들은 주인 없이 홀로 남겨진 신발들을 보며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를 생각하면 그 시기에 살고 있지 않았던 내가 다 고통스럽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평범한 나날들을 보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시간을 돌려서 모든 이들을 구해주고 싶다는 상상을 한다. 이처럼 학교에서 계속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알려 주다 보니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5.18에 대해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의무교육의 이점이 아닐까 싶다.

기숙사에서 학교에 다닐 때는 밖으로 나가지 않아서 몰랐지만 자취하며 밖을 돌아다니게 되면서 아직 주변에는 민주화운동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계속 배우다 보니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던 곳도 눈을 돌려 한 번 더 보게 되었다. 먼저 이곳에 살면서 가장 신기했던 점이 버스였다. 내가 살던 곳은 버스가 번호로만 구분되어 있어서 처음 왔을 때 신기해했는데 이곳에 운영하고 있는 518번 버스가 5.18민주화운동 주요지를 가는 노선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또한 5.18기간에는 민주화운동 요충지나 묘지에 방문하기 쉽게 버스 요금을 무료로 한다거나. 충장로와 금남로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5.18과 관련된 건물, 행사 등 이러한 포인트들이 사람들에게 있어 5.18민주화운동을 잊지 않게 하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운동에 대해 알게 되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누군가는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것이 후대에도 계속 이어줄 수 있는 그들을 기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 그날의 기억을 지닌 사람들의 슬픔을 모두 감싸주는 힘들 테지만 그들이 겪은 일들을 부정하지 않고 후대에도 계속 알려주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지역에 5.18과 관련된 요소들이 조금 묻혀져 있는 것이 광주에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었지, 하고 그날을 떠올리게 되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만약 5월 18일에 광주에 오게 된다면 한번쯤 518번 버스를 타고 5.18의 흔적을 따라가 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무용 프로그램

하지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65세 이상 노인의 대부분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노인의 질환관리와 독립적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건강증진행위가 적극 필요하다. 건강증진행위 중에서 신체활동은 건강 수명을 연장하여 건강한 노후 및 독립적인 삶을 위한 유용한 방법이다. 즉, 신체활동은 노화과정에서 오는 신체적 기능변화를 줄일 수 있고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독립성을 증대시키며, 우울을 완화시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 준다. 이러한 신체활동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 중 41.9%는 신체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활동 참여가 점점 더 감소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신체활동 부족이 전 세계적으로 4번째 사망 요인임을 제시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신체활동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⁴⁶⁾ 그래서 생각해 낸 대책이 바로 무용 프로그램이다. 무용이라 하면 껌껌하고 수줍고 다 같이 하는 활동이여도 보는 눈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 수 있다. 그래서 바로 동기가 생기지는 않지만 단순 신체활동이 아닌 무용을 선택한 이유는 무용교육은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우울감과 고립감 등 부정적 감정을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소하고, 공동체적 활동을 통해 사회참여 의식 형성과 더불어 활동성 향상, 인지기능 향상 등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⁴⁷⁾

46) 김영미, 서순림, 「재가노인의 신체활동 관련요인」, 노인간호학회지 19(2), 한국노인간호학회, 2017, 1-2쪽.

47) 윤혜선, 이연정, 「노인무용지도자의 교육목적과 역할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무용과학회지 40(3), 한국무용과학회, 2023, 2쪽.

2. 연구 목적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 정의는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를 넘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게 됨에 따라 여러 학문분야에서는 성공적인 노화의 구성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노년사회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성공적인 노화를 성공적인 적응이라는 견지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노령에 따른 노인들의 사회적 역할, 수입, 가족, 친구, 건강의 상실은 노인들의 전반적인 기능 수준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러한 상실에 대해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노화라는 것이다. 즉 주변 환경변화에 심리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역할의 상실을 통해 고독감이나 소외감 등으로 체험될 수 있다. 때문에 드러난 심리 현상적 결과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노인문제를 야기하는 환경요소를 살펴보고 문제해결을 위한 환경요인이 되어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⁴⁸⁾ 이 연구는 무용 프로그램이 노인의 신체기능 향상과 정서적 안정, 사회적 교류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본문

1. 이론적 배경

신체적 노인성 질환으로는 근골격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내분비계, 비뇨기계, 감각기계 질환들이 있고, 정신적·인지적 노인성 질환에는 치매,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무용 프로그램이 치매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침체된 자아의 표현, 인지기능 촉발, 정서,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결과들에 의해 그 효과가 뒷받침되고 있다. 무산소 움직임(nonaerobic movement)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으며, 그 결과 통제집단 대비 참여집단에서의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지속적 주의력, 시각기억 및 작업기억의 유의미한 증진이 나타났다고 보고함으로써 무산소 움직임이 인지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인지력에 관하여 무용움직임 치료(Dance/movement therapy)가 치매환자의 감각을 자극하여 인지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무용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환자의 사회성 개선과 치매환자의 돌봄자, 스태프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어 치매환자 개인뿐만 아니라 치매환자를 돌보는 대상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48) 윤혜선, 「노인의 자아통합감 증진을 위한 무용/동작치료의 효과」,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논문집 5(1),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2004, 5쪽.

2. 무용치료의 동작별 효과

먼저 팔·다리뻗기, 몸통 비틀기 같은 스트레칭 동작은 퇴행성 관절염 완화와 근육·인대 경직을 예방에 효과가 있다. 상지 움직임으로는 팔 돌리거나 어깨돌리기, 손뼉치기는 상지근감소와 상체관절염을 완화시켜주고 하지 움직임으로는 무릎 굽히거나 다리돌리기, 발끝치기는 무릎관절염이나 낙상·보행장애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 협동 동작은 서로 마주보며 음악의 리듬을 타며 스텝 발기와 같은 동작은 근력 협응력이 향상되고 반응조절능력강화로 운동조절장애를 완화시킬수 있고 마지막으로 창작·표현 동작은 감정에 따른 움직임으로 음악을 표현하는 자유로운 동작은 전신근력을 활성화하고 유연한 움직임 조절을 할 수 있다.⁴⁹⁾

Sandel(1980)은 무용/동작 치료를 통한 상호간의 신체적 접촉은 새로운 활력을 주고 외로움과 고립감을 완화하는 것을 도우며 나이드은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감각상의 둔화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즉 이는 무용/동작 치료의 움직임의 경험, 신체적 접촉 등의 자극들은 후기고령자들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언어적 반응속도의 감소 등의 행동둔화(behavioral slowing)를 완화하고 타인과의 원활한 소통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Irwin와 Gamet(1974)은 신체적 접근(somatic approach) 통한 이완기법으로 근육강도, 자세, 유연성, 관절가동력, 움직임 범위 등이 유지 또는 증진되며 동시에 심리적 긴장도 완화되어 노인들이 직면한 신체적 노화와 이로 인한 심리적 문제들은 신체적 접근을 통한 치료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무용/동작 치료 과정안에서의 규칙적인 움직임은 관절과 근육의 내구력과 유연성이 증대되어 부상당할 가능성을 줄이며, 관절염 증상과 허리통증을 가라앉히거나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집중력과 인지적 수행능력이 향상되며, 불안과 우울증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한다.

3. 치료적 가치

무용은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생리적 변화를 유도할 뿐 아니다 음악·리듬·표현활동을 결합하여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촉진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노인의 전반적인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료적 접근을 하였다. 이와 같은 통합적 평가체계는 무용 프로그램이 노인의 신체기능 향상에서 정서 안정 다음으로 사회적 관계 강화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과정 다차원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따라서 신체적 재활과 정서적 회복,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이끌어 내는 포괄적 치료프로그램으로서의 가능성을 지닌다.⁵⁰⁾

49) 공정원, 김지안, 「치매노인 대상 무용 프로그램 개입의 효과성 평가: 체계적 문헌고찰」, 한국무용과학회지 36(4), 한국무용과학회, 2019, 3쪽.

50) 이승희, 「후기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무용/동작 치료의 효과」,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논문집 8(1),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2007, 8쪽.

III 결론 및 요약

1. 실천적 의의

무용 프로그램은 단순한 예술활동을 넘어서 노인의 신체기능 회복·유지, 정신적 안정, 사회적 교류 촉진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통합적 재활·건강증진 수단과 비약물적 치료 접근법으로 실질적인 가치가 있다. 강도 높은 노동과 반복적인 농업 동작 등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으로 근골격계증상 호소율이 높다. 노령화에 따른 근력의 감소는 노쇠, 낙상, 장애, 골절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약력, 보행속도, 균형 잡기 등과 같은 신체수행력의 감소는 골절, 심혈관계 질환, 인지 능력 감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노인들이 생각하는 건강증진행위는 운동기구 사용보다는 나에게 알맞은 운동을 하고 주변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율이 더 높았다. 따라서 농촌노인들의 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고, 농촌노인의 신체 및 환경의 특이성을 고려해야 하며, 신체 기능의 향상은 물론이고 사회적, 정서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활동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구에 적합한 중재활동으로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어디에서든 활동이 가능한 새로운 신체활동으로 무용이 주목받고 있다.⁵¹⁾ 첫 번째로 신체적 건강증진 측면으로 다양한 동작을 통해 근력, 균형감, 관절 가동성, 심폐기능 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낙상·관절염·근감소증 등 노인성 신체 질환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이다. 두 번째로 정신적 건강증진 측면으로 음악과 움직임의 결합으로 우울감, 불안, 스트레스 완화가 되고 인지 자극과 창작활동에 효과적이다. 세 번째로 사회적 건강증진 측면으로 집단 무용 활동은 사회적 관계 형성과 소속감, 고립감 완화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복지관, 요양시설, 실버센터 등에서 사회참여의 통로로 기능할 수 있다.

2. 논의 및 제언

무용 프로그램은 노인에게 단순한 취미나 여가활동을 넘어 노인의 신체기능 유지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지에 대한 추적연구가 필요하고 단순한 설문중심이 아닌 근전도(EMG), 심박수, 균형측정기기 등을 활용한 객관적 지표와 수치적 변화(체력,기능)뿐 아니라 참여자의 정서적·사회적 경험을 질적으로 탐색하는 혼합연구와 관절염형, 근감소증형, 심혈관질환형 등 질환별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무용 프로그램 개발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인 건강증진 사업에 건강보험·복지서비스 내 무용 프로그램 지원제도를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수립이 가능한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51) 정희정, 김수경, 김영신, 노웅래, 이용호, 「농촌 여성노인의 신체수행력, 근력, 균형능력 향상을 위한 창작무용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5(4), 한국특수체육학회, 2017, 3쪽.

〈참고 문헌〉

논문

- 김영미, 서순림, 「재가노인의 신체활동 관련요인」, 노인간호학회지 19(2), 한국노인간호학회, 2017, 154-163쪽.
- 공정원, 김지안, 「치매노인 대상 무용 프로그램 개입의 효과성 평가: 체계적 문헌고찰」, 한국무용과학회지 36(4), 한국무용과학회, 2019, 53-66쪽.
- 정희정, 김수경, 김영신, 노웅래, 이용호, 「농촌 여성노인의 신체수행력, 근력, 균형능력 향상을 위한 창작무용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5(4), 한국특수체육학회, 2017, 109-131쪽.
- 윤혜선, 「노인의 자아통합감 증진을 위한 무용/동작치료의 효과」,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논문집 5(1),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2004, 1-16쪽.
- 윤혜선, 이연정, 「노인무용지도자의 교육목적과 역할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무용과학회지 40(3), 한국무용과학회, 2023, 31-50쪽.
- 이승희, 「후기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무용/동작 치료의 효과」,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논문집 8(1),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2007, 53-94쪽.



소산 (消散)

허세아

2009년 겨울. 나는 암 판정을 받았다.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에게 꽃은 첫 비수였을 것이다.

수개월이 넘는 투병과 9시간의 대수술을 2차례, 어린 나는 꽤나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나의 부모님이 더욱 힘들었으리라고 감히 짐작해본다.

당시 택배기사 일을 하던 아버지는 하루에 10시간을 운전을 하며 택배를 나르고, 두 시간을 더 운전하여 나를 보러 왔었고, 꾸미는 걸 좋아하던 긴 머리칼을 가진 나의 어린 엄마는 수술로 머리를 밀기 싫어 울던 나를 위해 8년을 기른 머리를 뽁뽁 밀었다.

애석하게도 나는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고통 또한 알지 못한다.

가끔씩 아빠가 사오던 장난감과 하루 종일 엄마와 함께 보내던 시간이 마냥 좋았던 기억이 난다.

그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어린 딸의 작은 팔에 난 수십 개의 주사 자국과 위생을 위해 뽁뽁 깎은 머리, 움직이지 않아 통통 부은 얼굴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그 마음은 감히 상상조차 가지 않는다.

불행 중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빠르게 호전되었다.

하지만 수술이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다.

긴 입원 생활과 큰 수술로 몸에 근육이 빠져 걷기는 커녕 눈을 뜨는 것조차도 힘들었다.

병원생활이 어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따금 붉게 물든 눈시울로 웃던 엄마와 아빠의 얼굴, 깎은 머리를 가리기 위해 비니를 쓰고 부모님과 함께 가던 동네의 문방구가 기억이 난다.

재활은 꽤나 어렵고 할 것이 많다.

일상생활은 고사하고 손가락과 젓가락을 쥐는 것조차 어렵다.

나는 이 기본적인 걸 6살때 모두 다시 시작하였다.

내가 아프기 전 부모님은 식사 예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젓가락질을 바르게 하라고 이야기 하였지만, 모든 게 다시 시작되었고 부끄럽게도 나는 아직까지 바른 젓가락질을 하지 못하며, 나의 왼손은 아직도 떨리고 손에 힘이 빠져 휴대폰을 깨먹는 일도 부기지수이다.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는 완치가 되지 않았다.

나의 병에는 완치가 없다.

단지 호전과 재발만이 존재한다.

10살, 처음으로 나의 병이 부끄러웠다.

학교에 새로 오신 선생님이 나를 보고는 장애인 같이라며 아이들의 조롱거리로 삼은 것이 이유였다.

부모님은 항상 나에게 흉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셨다.

병을 이겨낸 것에 대한 트로피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귀에 딱지가 앉도록 이야기 하였지만, 나의 마음은 타인의 말 한마디에 깨져버렸다.

잘 보이지도 않는 구석에 난 이마의 흉터가, 미숙한 땀박질과 균형을 잡지 못해 똑바로 걷는 것조차 못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

흉터를 가리기 위해 유행이 다 지난 촌스러운 풀뱅을 하고, 같이 놀자는 친구들에게 나의 땀박질이 우스워 보일까 놀이터 벤치에 앉아 멍청하게 친구들을 바라만 보았다.

어릴 적 들었던, 나를 고작 일주일 남짓 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나는 지금까지도 그때의 기억을 품고 살아간다.

나에게는 아직도 흉터가 남아있다.

하지만, 더 이상 답답해 보이는 풀뱅의 앞머리를 하지 않고, 나의 시간을 낭비하며 땀박질을 기피하지 않는다.

그때의 기억이 아무렇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사람으로 인해 낭비되는 나의 감정과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소중한 것을 알기에 받아드릴 수 있게 되었다.

나의 건강과 자신들의 젊음을 등가교환한 어렸던 부모와, 놀림거리이던 나의 편에 서주던 친구와 나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아파해주는 친구.

이들의 소중함으로 나는 평범함을 얻게 된 것이다.

시련은 안개와도 같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산은 한걸음 한걸음이 위험하다.

앞이 보이지 않아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벼랑 끝으로 떨어질까 조심히 걸어야 하지만 나의 앞에 다녀간 이들의 발길이 닿는 곳은 이정표가 되어주고, 나와 함께 앞을 나아가는 사람들이 떨어지기 전에 나를 잡아 줄 것이다.

자신이 겪은 시련의 깊이와 고통은 자신만이 느낄 수 있다.

나의 산길 속 안개의 이정표가 되어준 이들은 나의 어렸던 부모님이다.

아직 정상이 아닐지도 모르고, 언제 또 안개가 드러워져 시야를 가로 막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푸른 하늘을 보았고, 이정표가 되어주는 이들 또한 존재한다.

20대는 어리다.

그렇기에 미끄러지는 것도, 잠시 쉬어가는 것 도 괜찮다.

굳이 안개 낀 산을 급히 해쳐 나가지 않아도 된다.

안개는 소산되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 볼 준비를 하면 된다.



챗GPT, 단순 도구를 넘어 학습 파트너로...

황지원

I. 들어가며

오픈 AI 기업의 인공지능인 '챗GPT'가 2022년 11월 세상에 등장하며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을 바꾸어 놓았다. 챗GPT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AI로 직장인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디자이너나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한다. 또, 고민을 나누며 공감할 수 있는 친구의 역할도 한다. 나는 대학생이 되어 처음으로 챗GPT를 접했는데, 이제는 챗GPT가 완전히 내 생활 속에 들어왔음을 느낀다. 특히 과제를 제출하거나 모르는 문제가 생겼을 때 챗GPT를 사용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술이 발달하고 시대가 변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바뀌는 흐름 속에 맞추어 가야지 발전할 수 있다. 우리가 현재 고민해야 할 것은 챗GPT 사용을 막는 것이 아니라 '챗GPT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나의 글은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II. 인공지능과 챗GPT의 개념

1. 인공지능의 정의와 특징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가 모방하거나 구현하도록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인공지능은 4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단계는 에어컨, 전자레인지, 세탁기에 들어가는 단순한 제어 프로그램 수준의 인공지능을 말한다. 두 번째 단계는 입력과 출력의 수가 극단적으로 많은 경우의 인공지능이다. 간단한 퍼즐을 해결하는 것이나 진단 프로그램 등이 이 단계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의 인공지능은 추론이나 예측까지 할 수 있다. 알고리즘이 이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요즘 학생들은 거의 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많은 영상들을 보는데 바로 이 유튜브가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이다. 내가 일본 여행에 대해 검색하고 찾아봤다면 계속해서 추천

영상으로 일본 여행에 관한 영상들이 뜬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단계 수준의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단계는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스스로 학습을 하는 수준에 이른 단계로, 자연어 처리나 딥러닝 기술 등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⁵²⁾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챗GPT라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곧 챗GPT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틀린 말이다. 인공지능이 큰 범위이고 그 안에 포함된 인공지능 모델 중 하나가 챗GPT인 것이다.

2. 챗GPT의 작동 원리와 기능

챗GPT는 인공지능의 한 종류로, 그중에서도 대화형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화형 인공지능에는 자연어 처리와 딥러닝 기술이 들어가는데, 이는 언어를 이해하고 새 문장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로 인해 챗GPT는 사람과 쉽게 대화가 가능한 것이다. 또한 챗GPT가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사전에 막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넣어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용자의 물음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논리적인 답을 찾아서 내주는 것이다. 쉽게 말해, 챗GPT의 작동 원리는 데이터를 입력받고 분석하고 학습한 다음 사용자의 물음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 판단을 통해 조언이나 해결책,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챗GPT는 대화/질문 답변 기능이 있다. 내가 챗GPT에게 올해 경제성장률을 예측해달라고 물었을 때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예측해서 알려주고, 그 밑에 질문으로 “조금 더 알기 쉽게 얘기해줄래?”라는 물음에는 쉬운 단어로 바꾸어 설명해 준다. 이런 점에서 챗GPT는 다양한 분야의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며 복잡한 개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글쓰기 기능이 있는데, 몇 가지 단어만 주어도 한 편의 글을 막힘없이 써주며, 글의 유형이 에세이인지, 논문인지, 과제인지 등에 따라 다르게 써주기도 한다. 또한 내 글을 보고 문장을 자연스럽게 바꿔주거나 요약하고 맞춤법을 고쳐주기도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손쉽게, 어쩌면 큰 노력 없이 한편의 글을 완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편리성이 교육 현장의 문제점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다음으로는 학습 기능이 있다. 수학이나 과학 등 복잡한 문제도 풀 수 있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지까지 알려준다. 또한, 아이디어나 디자인을 먼저 제안해 주기도 한다. 이제는 사람이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또 언어 번역도 가능한데, 사람이 번역하는 것보다 완벽하게 번역하기도 한다. 언어 부분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확률이 높다. 아직까지 다른 분야는 챗GPT가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우리에게 제공하기도

52) 김주은, 「인공지능이 인간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문화기술의 융합』 5(2),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19, 178쪽.

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공부를 해야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언어 부분은 사실 뜻이 명확하고, 영어사전과 같은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챗GPT가 더 빠르고 정확한 번역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챗GPT는 그림이나 그래프를 손쉽게 가져올 수 있다. 195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표로 가져와달라는 물음에 몇 초안에 내가 원하는 그래프를 제공한다. 이처럼 우리가 직접 찾아보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 소통 기능이 있다. 사람과 가벼운 농담도 할 수 있고, 힘든 일이 있다는 나의 말에 위로를 해주기도 한다. 옛날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로봇은 인간과 달리 감정이 없어. 사람은 서로 감정을 공유하고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서 절대 로봇이 이 부분을 대체하지는 못할 거야.”라고 했지만, 지금의 인공지능을 보면 인간보다 더 예쁜 말로 사람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수준이다.

III. 챗GPT가 가져온 교육 현장의 변화

1. 챗GPT의 장점과 단점

그렇다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챗GPT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겠다. 장점은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1대 1로 수업하는 개인 과외가 있기는 하나 이것은 막대한 돈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챗GPT를 통하면 누구나 쉽게 적은 돈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모르는 것도 바로 답을 얻을 수 있으며 더 편한 환경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나도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우리가 막연하고 바보 같은 질문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더 확장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여러 분야의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우리가 흔히 그 분야에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있다. 하지만 경제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은 경제학에 대해서는 정말 빠삭하신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아닐 수 있다. 심지어는 자신의 전공과목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꾸준히 공부해야만 학생의 질문에 바로 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챗GPT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그 답을 줄 수 있다. 심지어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답이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감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챗GPT의 발전으로 감정 공유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지만, 그래도 인간 교사만큼 학생들의 감정을 세심하게 챙기기는 어렵다. 또한 챗GPT는 내가 먼저 상황을 말하지 않으면 나의 감정 변화를 알아차릴 수 없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은

다르다. 직접 만나 수업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교사가 학생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먼저 물어볼 수 있고, 학생도 챗GPT처럼 보이지 않는 기계와 대화하는 것보다 교사의 따뜻한 말과 위로를 더 선호할 수 있다. 따라서 챗GPT는 어느 정도의 감정 공유는 할 수 있지만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또, 교육 현장은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데 집중하지만 챗GPT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을 방해할 수 있다. 챗GPT 사용으로 인해 학생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원래 문제가 있으면 오래 고민하고 시도도 해보고 결론을 내리는데 이를 챗GPT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사고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특히 챗GPT의 가장 큰 단점은 학습자들이 챗GPT를 온전히 신뢰하고 챗GPT의 의견을 공인된 사실인 것처럼 제시하거나, 인공지능을 너무 신뢰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온전히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데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챗GPT를 활용하는 이들은 인공지능이 전능한 도구가 아니며 불완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또한 이를 교육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챗GPT는 장/단점이 확실하다. 따라서 챗GPT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활용 방식에 따른 교육적 효과 차이

챗GPT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적 효과가 달라진다. 챗GPT를 협동 학습에 활용한다면 토론을 할 때 다양한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며 생각을 확장할 수 있어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학생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어 보다 심도 높은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 언어 학습을 하는 데 사용하면 좋다. 외국어 학습에서 챗GPT는 오류가 적고 빠른 응답을 해주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언어 학습이 가능하다.

반대로 챗GPT를 단순히 과제를 하기 귀찮아서, 내 생각을 오래 하기 힘들어서 등의 이유로 사용한다면 교육적 효과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챗GPT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교육 효과를 가져오기도, 부정적인 교육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IV. 챗GPT를 학습 도구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

1. 비판적 사고 및 자기주도적 학습 도구로서의 활용 방안

이제 구체적으로 챗GPT를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특히,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자기주도적 학습을 끌어내기 위한 방안이다. 먼저, 비판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주제에 대해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글을 챗GPT에게 보여주고 내 주장에 대해 반론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또 챗GPT를 설득하기 위해 챗GPT의 반론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내 주장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서로 반박하며 나의 생각을 확장하게 되고 공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히고 내 주장이나 글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챗GPT가 주는 답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의심하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지, 챗GPT가 실수한 것은 아닌지 물어보며, 인간이 그저 정보를 수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판적 검토를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평상시에 공부 습관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나 맞춤 학습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챗GPT를 통해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또한 자신이 짠 계획을 챗GPT에게 검토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 또한 내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에 대해 문제나 퀴즈를 원하는 형식(서술형, 4지선다 등)으로 만들어서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챗GPT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공부도 해보면서 챗GPT를 공부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대화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챗GPT에게 정답만을 묻지 말고 과정을 함께 탐구하라는 것이다.

2. 이를 교육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올바른 사용을 위해 AI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 챗GPT를 활용하여 과제나 보고서 작성을 했을 때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인용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챗GPT를 잘못 사용했을 때 책임 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또, 초·중등 과정에 생성형 AI를 이해하는 과목을 편성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챗GPT를 학습 파트너로 잘 쓰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답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공부 친구로써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AI와 함께 일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AI와 인간이 함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람이 해왔던 일들을 AI가 대신 하게 된다면 그 업무를 했던 사람들의 직업이 전환될 때 큰 무리가 없도록 정부의 지원과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V. 나가며

인공지능과 챗GPT는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챗GPT의 편리함 뒤에는 인간의 사고력과 주체성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도 공존한다. 잘못된 사용이나 무조건적 수용은 오히려 사용자의 깊이 있는 사고를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챗GPT를 단순한 학습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사고를 확장하고 탐구하는 과정 속에 함께 하는 학습 파트너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용자는 비판적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가져야 하며, 나아가 정부와 교육부는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대해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챗GPT의 가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사고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 문헌〉

논문

- 김주은, 「인공지능이 인간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문화기술의 융합』 5권 2호,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19, 177~182쪽.
- 이은성·전용철, 「챗GPT 리터러시가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학업자신감과 지각된 학업역량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기술의 융합』 10권 2호,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4, 565~574쪽.
- 이윤빈, 「대학생 필자의 글쓰기에서 챗GPT 답변의 활용 유형 및 양상 연구」, 『교양교육연구』 18권 4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4, 59~79쪽.

일러두기

이 책은 조선대학교 교무처 글쓰기센터가 대학혁신사업지원으로 추진한
「2025 우수에세이 공모전」에서 수상한 33편의 글을 모아놓은 작품집입니다.

『마음이 문장이 될 때』

2026년 2월 5일 초판 1쇄 인쇄

2026년 2월 5일 초판 1쇄 발행

저 자 최혜인 외 32명

발행처 조선대학교 교무처 글쓰기센터

주 소 광주 동구 조선대길 126 본관 1165 글쓰기센터

전 화 062-230-7926/7927

이 책의 저작권은 저자와 조선대학교 교무처 글쓰기센터가 소유합니다.
신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조선대학교 글쓰기센터

우수에세이 공모전

모집기간 : 2025. 5. 26(월) ~ 11. 10(월)

신청대상

조선대학교 재학생

신청방법

조선대학교 THE 조아

자기서사 에세이
(2000자 이상)

자신의 성장 과정이나 사회적 경험에 대한 성찰을 담은 글

학술 에세이
(5000자 내외, 참고문헌 제외)

사회적, 학술적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전개한 글

작성요령

- 1) 제목 기재
- 2) 직간접 인용한 경우, 각주나 참고자료 목록 표기

시상내역

대상(1명): 500,000원 + 문화마일리지 50M
금상(5명): 300,000원 + 문화마일리지 30M
은상(7명): 200,000원 + 문화마일리지 20M
동상(20명): 100,000원 + 문화마일리지 10M
장려상 : 기프트콘(5,000원 상당) 문화마일리지 5M

(※ 시상 인원은 참석 인원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 가능)

교무처 글쓰기센터 T. 062)230-7926~7



마음이 문장이 될 때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